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 창 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조 영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 은 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contents

I. 서론 ● 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3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발	5
제2절 연구방법	7
제3절 연구수행절차	9
제4절 기대효과차	10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11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13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14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22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26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30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35
1.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35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36
제3절 종합 평가	44
1. 서울시 성인지지표값 평가	44
2. 서울시 성인지지수 평가	50

III. 국제비교 ● 55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57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7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59
3. 성별 평균임금비	62
4. 성별 관리직 비율	64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65
제2절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70
1.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70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71
3. 부부 가사노동시간	73
제3절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74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75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77

IV.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방안 ● 81

제1절 지표 개요	83
제2절 지표의 개념 및 구성	84
1. 지표의 명칭 및 개념	84
2. 지표의 구성	89
제3절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별 세부지표	91
1.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 구성	91
2. 영역별 세부지표	92
제4절 사회조사 : 집단별 조사항목	98
1. 조사 대상 집단 구성	98
2. 집단별 조사항목	100

V. 결 론 ● 107

참고문헌 ● 112

부 록 ● 115

● 표 목차

표 1-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4
표 1-2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7
표 2-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13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5
표 2-3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16
표 2-4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17
표 2-5	성별 관리직 비율	17
표 2-6	성별 정규직 비율	18
표 2-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19
표 2-8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20
표 2-9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1
표 2-10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2
표 2-11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3
표 2-12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4
표 2-1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25
표 2-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25
표 2-15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7
표 2-16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28
표 2-1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29
표 2-18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30
표 2-19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31
표 2-20	성별 기초의원 비율 변화 추이	32
표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3
표 2-22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4
표 2-23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36

표 2-24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37
표 2-25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38
표 2-26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39
표 2-27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0
표 2-28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1
표 2-29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2
표 2-30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3
표 2-3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44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58
표 3-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2006)	60
표 3-3	OECD 국가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2006)	62
표 3-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1997, 2007)	63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64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66
표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68
표 3-8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69
표 3-9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율(6세 이하 아동 대상)(2006)	71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율(2006)	71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74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75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76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77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78
표 4-1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84
표 4-2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	86
표 4-3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	86
표 4-4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의 전략과 행동수칙	87
표 4-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영역 및 추진방향	88

표 4-6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90
표 4-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영역 및 세부영역	91
표 4-8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일	92
표 4-9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돌봄	94
표 4-10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문화 및 여가	95
표 4-11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건강 및 안전	96
표 4-1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97
표 4-1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98
표 4-14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99
표 4-15	사회조사분야 비혼여성집단 조사항목	100
표 4-16	사회조사분야 기혼여성집단 조사항목	101
표 4-17	사회조사분야 여성노인집단 조사항목	102
표 4-18	사회조사분야 여성한부모집단 조사항목	103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절차도	9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5
그림 2-2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16
그림 2-3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17
그림 2-4	성별 관리직 비율	18
그림 2-5	성별 정규직 비율	19
그림 2-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20
그림 2-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21
그림 2-8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2
그림 2-9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3

■ 그림 2-10 ■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3
■ 그림 2-11 ■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4
■ 그림 2-12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25
■ 그림 2-13 ■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26
■ 그림 2-14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7
■ 그림 2-15 ■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28
■ 그림 2-16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29
■ 그림 2-17 ■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30
■ 그림 2-18 ■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31
■ 그림 2-19 ■	성별 기초의원 비율	32
■ 그림 2-20 ■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3
■ 그림 2-21 ■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4
■ 그림 2-22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정도	45
■ 그림 2-23 ■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45
■ 그림 2-24 ■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정도	45
■ 그림 2-25 ■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5
■ 그림 2-26 ■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 그림 2-27 ■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 그림 2-28 ■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 그림 2-29 ■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47
■ 그림 2-30 ■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7
■ 그림 2-31 ■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47
■ 그림 2-32 ■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48
■ 그림 2-33 ■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48
■ 그림 2-34 ■	여성 건강검진률 목표치 달성 정도	49
■ 그림 2-35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9
■ 그림 2-36 ■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9
■ 그림 2-37 ■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0

■ 그림 2-38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1
■ 그림 2-39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2
■ 그림 2-40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2
■ 그림 2-41 ■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53
■ 그림 3-1 ■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59
■ 그림 3-2 ■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8)	59
■ 그림 3-3 ■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61
■ 그림 3-4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8),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61
■ 그림 3-5 ■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2007)	63
■ 그림 3-6 ■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67
■ 그림 3-7 ■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8)	67
■ 그림 3-8 ■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69
■ 그림 3-9 ■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73
■ 그림 3-10 ■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76
■ 그림 3-11 ■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79
■ 그림 4-1 ■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84

■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발되었음.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을 목표로 함
-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서울시 성인지지수 체계를 토대로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또한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당시 제시되었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는 성인지지표의 발전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함.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라는 독자적 여성 정책을 시행해 왔고,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킹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정운영방향을 답을 수 있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발전적 형태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1차안을 구성,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 2009년 10월 ~ 11월
 - 조사대상 : 교수, 연구자, 단체 대표 및 활동가, 공무원 등 50명
(총 45부의 응답지 회수)
 - 조사내용 : 여성친화도시기표의 전반적 구성 적합성, 세부지표 및 산식의 적합성과
중요도(5점 척도) 등
 - 조사방법 : 전화 섭의 후 조사지 이메일 발송 및 이메일 회수
- 서울시 협의

3. 기대효과

-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
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서울시 각 실·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함
-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을 설정하는데 기여함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및 목표치 대비 현황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도 지수화 작업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한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됨. 각 지표별 측정치 및 지표값(여성/남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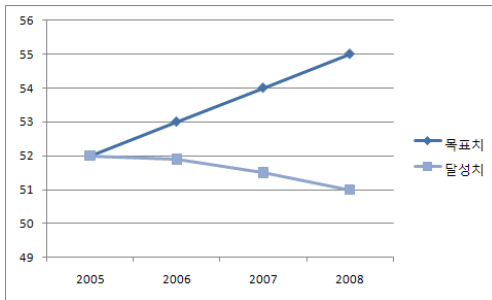
표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치 및 지표값

영역	세부지표	여성	남성	지표값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0	73,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2	72,0	0,91
	3. 성별 평균임금비	64,7	100	0,65
	4. 성별 관리직 비율	24,8	31,6	0,78
	5. 성별 정규직 비율	42,3	60,0	0,71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8	68,2	0,4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8	80,2	0,25
	8.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15,1	84,9	0,18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9.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1,8	94,2	0,66
	10.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8	9,1	0,75
	11. 성별 장애인 등록률	40,0	60,0	0,67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2.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률	65,0	75,5	0,86
	13.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22,2	41,1	0,54
	14.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1,4	60,5	0,85
	15. 성별 건강검진율	55,8	57,3	0,97
여성의 대표성 제고	16.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12,3	87,7	0,14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19,6	80,4	0,24
	18.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3	7,7	0,3
	1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 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11,3	10,2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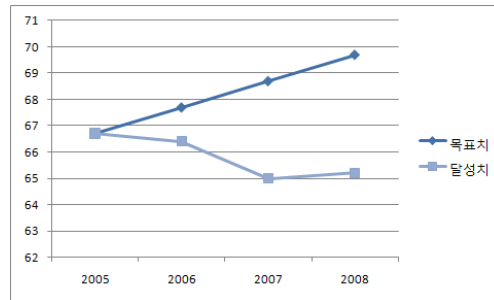
2) 목표치 대비 현황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목표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2007년도까지는 하락추세이나, 2008년도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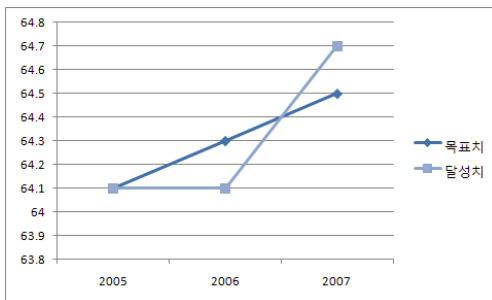


■ 그림 1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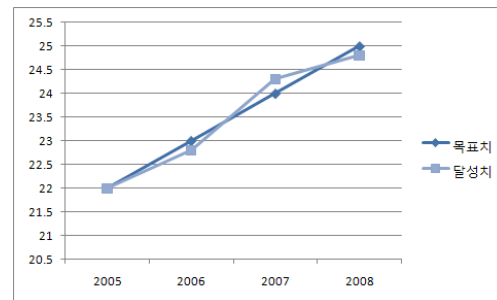


■ 그림 2 ■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 성별 평균임금비는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여성 관리직 비율도 목표치와 근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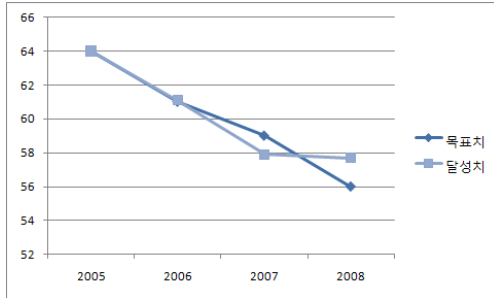


■ 그림 3 ■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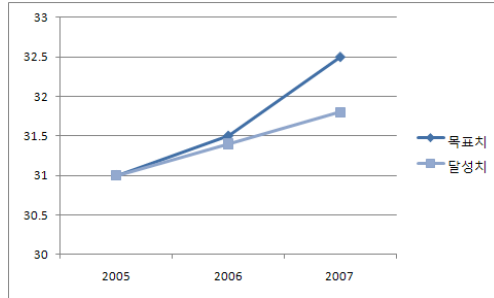


■ 그림 4 ■ 여성 관리직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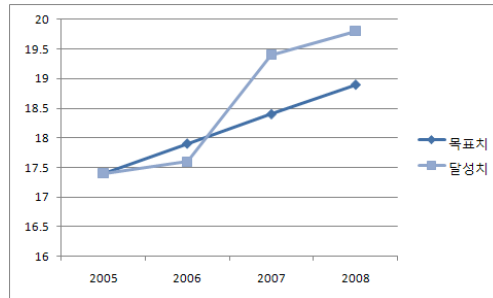
- 여성 정규직 비율로부터 산출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지속 하락하면서 목표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의 경우 전년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치와의 거리가 발생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 현황을 보임. 성별 주택보유율은 2005년 이후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아 생략함



■ 그림 5 ■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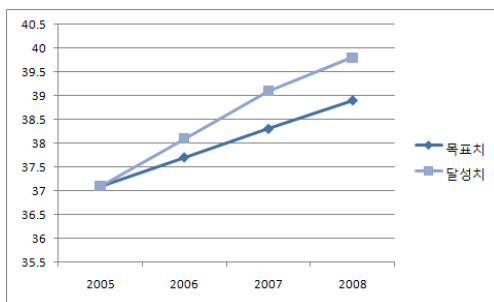
■ 그림 6 ■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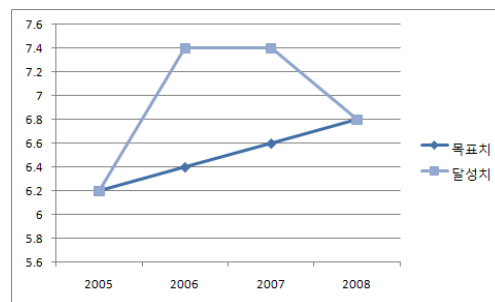
■ 그림 7 ■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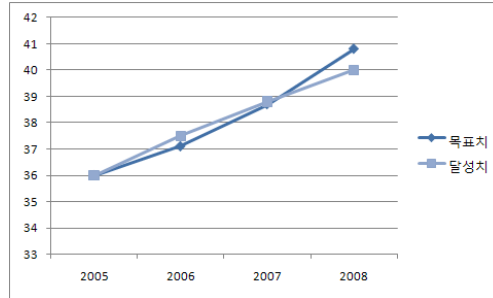
-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상향 달성하고 있음. 여성노인 취업률은 2006년 크게 상승한 이후 2008년도에 다시 크게 하락한 지표임. 여성 장애인 등록률은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지표임



■ 그림 8 ■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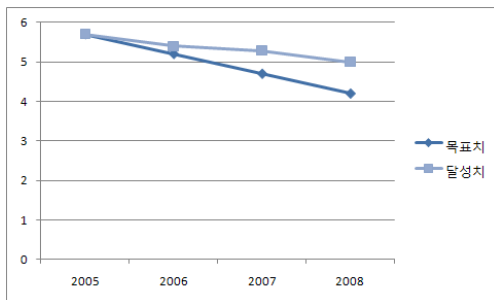
■ 그림 9 ■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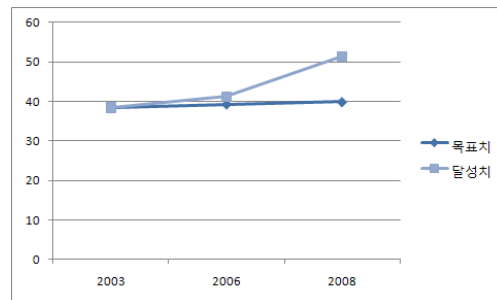
■ 그림 10 ■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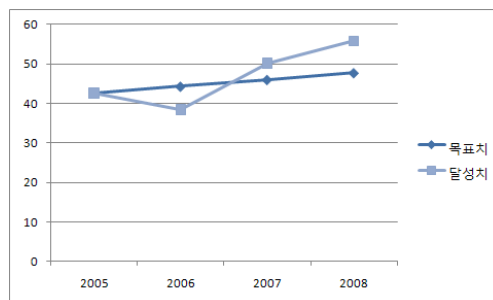
-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는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성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서울의 도시위험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2006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크게 높아지면서 목표치를 웃돌고 있음. 여성 건강검진율은 2006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넘고 있음



■ 그림 11 ■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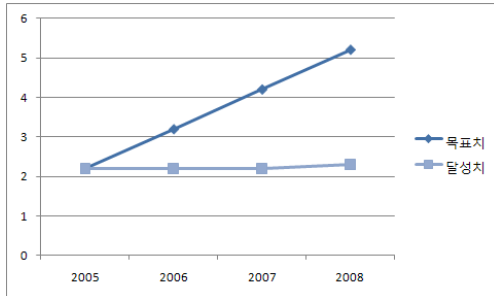


■ 그림 12 ■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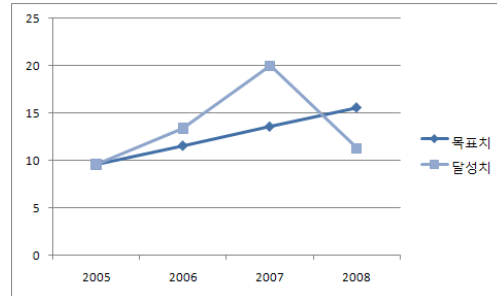


■ 그림 13 ■ 여성 건강검진률 목표치 달성 정도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 그림 14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 그림 15 ■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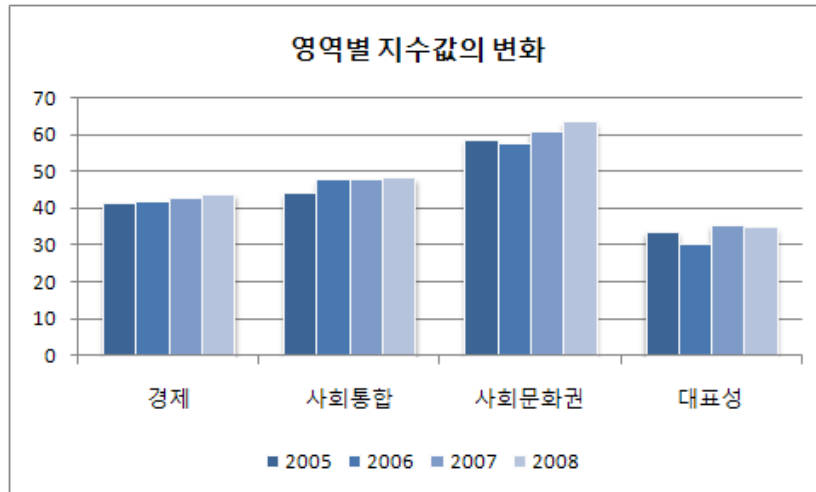
-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은 2010년도의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는 생략함.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목표치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7년도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2008년도 들어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및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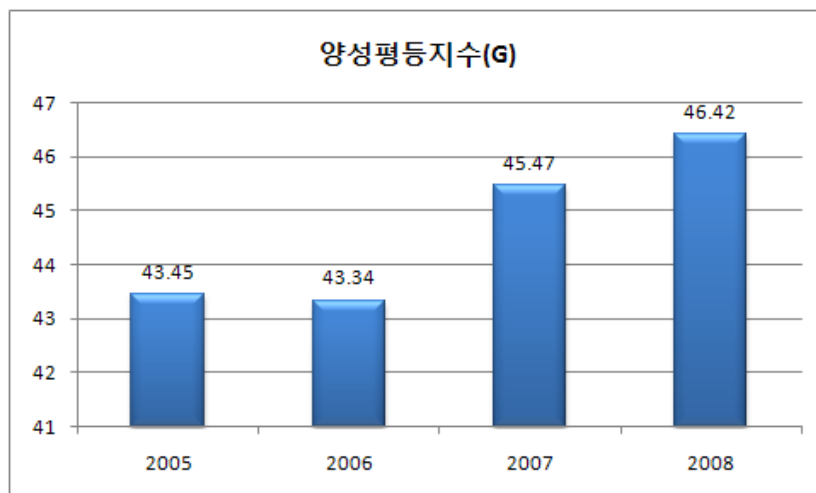
- 2008년 서울시의 양성평등지수는 46.42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서울시 양성평등지수는 미약하지만 해마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영역별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상승폭이 가장 낮은데, 이는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개선이 미진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표 2 ■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영역명	2005	2006	2007	2008
전체	43.45	43.34	45.47	46.42
여성의 경제세력화	41.00	41.49	42.31	43.6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43.88	47.44	47.57	47.89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58.19	57.22	60.44	63.12
여성의 대표성 제고	33.41	30.09	35.26	34.49



■ 그림 16 ■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 그림 17 ■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의 연도별 변화 추이

III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방안

1. 지표 개요

- 본 연구에서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때 필요한 정책영역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기존의 여성정책이 담보하였던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함. 다시 말해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된 영역인 경제, 돌봄, 사회통합, 문화, 건강, 폭력대응, 대표성 등에 더하여 교통안전,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가 도시 전반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수립에 있어 여성시민 및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이고자 함. 또한 영역의 이러한 확대는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함으로써 도시 정책이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주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함.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의 분야별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측정방법
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로 구성 ○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영역 일부 유지 ○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 도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 영역 (6개) -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 공간 및 환경,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매년 측정 ○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통계자료, 서울시 행정통계, 서울서베이 활용
② 사회조사	○ 여성 집단별 주요 조사 항목으로 구성 ○ 여성 집단별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파악,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 ○ 가변지표로 활용 ○ 집단 (6개) - 비혼여성, 기혼여성, 여성노인, 여성한부모,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여성 등)	○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 ○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

2.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구성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하여 구성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 영역별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음

■ 표 4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일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text{여성 경제활동인구} / \text{15세 이상여성인구}) \times 100$
	성별 취업률 (학력연령장애유무)	각각의 산식 적용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text{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text{전체 사업체 수}) \times 100$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성별 평균임금비	$(\text{여성 월평균임금} / \text{남성 월평균 임금}) \times 100$
	성별 관리직 비율	$(\text{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text{전 직종 여성 수}) \times 100$
	성별 정규직 비율	$(\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text{여성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일-가족 양립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전체 육아휴직자 수}) \times 100$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산전후휴가 급여자 수}) \times 100$
	부부 가사노동 시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 표 5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돌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아동보육 지원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text{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times 100$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text{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아이돌보미 지원 비율	$(\text{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 / \text{재가 아동 수}) \times 100$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text{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여성 이용자 수} / \text{전체 여성 노인 수}) \times 100$
	여성장애인도우미 (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율	$(\text{홈헬퍼 이용자 수} / \text{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수}) \times 100$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6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문화 및 여가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사업 종사인력비율	$(\text{여성 문화예술사업종사자 수} / \text{전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수}) \times 100$
	문화창조지원사업 지원자 중 여성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문화 및 여가향유	성별 여가활동 비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건강 및 안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건강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text{수검한 여성의 수} / \text{검진대상 여성의 수}) \times 100$
	성별 유병률	$(\text{기간내 (2주간) 유병자} / \text{조사 대상 인구}) \times 100$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 성폭력 발생 건수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수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여성 폭력 관련 상담 건수 (연령별, 장애유무별)	서울시 내부자료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8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교통 안전 및 주거 안정	성별 교통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영구임대주택 여성세대주 입주 비율	$(\text{여성 세대주 수} / \text{대상 여성 세대주 수}) \times 100$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환경	성별 수돗물 안전성 인식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농약 오염에 대한 안전성 인식	사회통계조사 결과

【 표 9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적 수 / 서울시 전체 실적 수) × 100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당해연도 정책 건수 / 전년도 정책 건수) × 100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성인지교육 이수자 수 / 전체 공무원 수) × 100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 100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 100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3. 사회조사의 구성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사회조사를 위한 대상집단은 다음과 같음

【 표 10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변수 예시
비혼여성	십대 청소년	재학 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기혼여성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여성노인	취업 여성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비취업 여성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여성한부모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기타	장애여성	연령별, 취업유무별, 혼인여부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미혼모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성적소수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자녀유무별

- 사회조사는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공간 및 환경, 젠더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을 설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조사는 해마다 1개 집단씩을 선정, 실시하며 시정운영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적극 반영할 필요 있음

IV 결론

-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을 통해서 볼 때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과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임
 -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졸자 취업률이 특히 상승되어야 함
 -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또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점이므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지표 역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개선의 정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과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임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여성 노인 취업률이 2007년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는 도시위험 체감도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 여행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 중 하나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었던 만큼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고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선, 1차안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제안하였음. 여기에는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과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이 새로 추가되었음. 또한 사회조사 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여성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추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모습과 기능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진 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민선 4기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조영미 외, 2006a).

이어 2007년도에는 5개 영역 25개 세부지표로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을 하고 정책을 제언하였다(조영미 외, 2007). 2008년도에는 성인지지표 측정에 더하여,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반의 변화와 영역별 변화 추이를 객관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 지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도의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5개 영역 26개 지표인데,¹⁾ 이에 대하여 서울시 성인지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양성평등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의 선정 기준은 첫째, 남녀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지표가 아닌지, 둘째, 극단적인 지표값으로 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셋째, 정(+)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지의 여부였다. 그 결과 10개의 세부지표가 양성평등지표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되었으며, 1개 영역이 삭제되어²⁾ 총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지수화가 이루어졌다(조영미 외, 2008).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루어진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과제명과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
- 1) 2006년도 지표 개발 시 하나의 지표였던 '성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비율'을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로 구분함에 따라 지표수가 1개 증가하였다.
 - 2) 삭제된 영역은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영역이다. 이 영역의 경우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외 2개 지표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고,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만으로 영역을 대표할 수 없어 지표와 영역이 함께 삭제되었다.

표 1-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연도	과제명	주요내용
2006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 성인지지표 개념 설정 및 지표체계 구성 - 세부지표 값 측정 및 목표치 제시
2007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	25개 세부지표 값 측정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시계열간 비교 - 국내 지역비교 및 OECD 국가 비교
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 평가 및 지수 개발	- 성인지 지수 개발 및 3개년 간의 서울시 성평등 정도 평가 - 세부지표 값 측정 및 OECD 국가 비교 - 영역별 대체지표 및 보완지표 개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독자적인 성평등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려는 노력은 타 시도에서도 있어 왔다. 일례로 대전에서는 2004년도에 「대전시 양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2006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도시 체감지수에 대한 시민의식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인천 시에서는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 시, 여성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부산여성생활조사 : 성평등지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여성생활조사의 지표는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가족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복한 생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잔걱정이 사라진 든든한 생활, 편리하고 여유로운 문화생활, 일상적인 안전이 보장된 안전한 생활, 여성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당당한 생활이 그것이다(주경미 외, 2009).

2005년도에 개발된 「한국양성평등지표」는 각 지역 간의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에서 전국의 양성평등 상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고 전국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전략을 마련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러한 한국양성평등지표는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유경 외, 2005).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양성평등 문화지표」(장미혜 외, 2008)와 「일가족양립지수」(송다영 외, 2008)가 개발되었고, 올해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Index)」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 개발 이래 4년째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

으며,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2006년도에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발하면서 제시하였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는 성인지지표의 발전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통해 시정의 전 영역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행 프로젝트는 최초의 지역정부 여성정책이자 도시 공간 문제를 도입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여성의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조영미 외, 2009).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는 또한 미흡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대표적인 한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전업주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라는 것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이다(조영미 외, 2009).

서울시 성인지지표에는 민선 4기동안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담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사회지표에 해당하는데,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처음 사용한 학자인 레이몬드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나 통계계열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Bauer, 1966; 문유경 외,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가치지향점을 가지고 현재의 정책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또한 사회지표로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점으로 분명히 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민선 3기까지 서울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이라는 틀에서 진행되었다. 민선 2기 여성정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립되었는데, 총 12개 과제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 2기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소외여성과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선 3기(2003년~2006년) 여성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며, 5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선 3기의 정책방향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조성,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의 4가지로 설정되었다(조영미 외, 2006b).

2006년도에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민선 3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4기 여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서울시 여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측정 기간은 민선 4기인 2010년까지이며,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과 영역 구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성인지지표가 서울시 여성정책의 흐름에 민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인지지표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정책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정책의 변화·발전 양상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우어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고, 여성정책을 관련 부서만이 아닌 전 실·국 및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성주류화의 한 모델을 구축해왔다. 또한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변화가 서울시 성인지지표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를 지향하는 성인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성인지지표 개선안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라는 명칭으로 구성되며, 민선 5기 여성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서울시 성인지지표 세부지표별 측정치를 제시하고 성인지지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목표치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안을 제시한다. 영역 및 세부영역 그리고 세부지표와 측정방안 등을 제안하여 민선 5기 동안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기본안을 제시한다.

셋째, 서울시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성인지지표 및 성인지지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제2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서울시 협의 등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주로 사용한 통계들은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들의 지역데이터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 생산 데이터로서 「서울서베이」조사 결과 및 각 부서의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지표별 통계데이터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1-2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영역	세부지표	자료원
여성의 경제 세력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대졸자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성별 평균임금비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성별 관리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정규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서울시 고용창업담당관 내부자료
	성별 주택보유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노동부 여성고용과 내부자료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서울시 복지국 내부자료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율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도시위험 체감 정도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성별 건강검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성폭력 관련 시설 수	서울시 내부자료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서울시 내부자료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총람」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의원 선거총람」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통계는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UNDP, UNECE의 DB 통계 자료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글로벌 젠더격차지수 관련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통계와 지수를 이용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활용된 통계들은 통계청의 조사통계자료, 중앙정부 등에서 발간된 통계자료들로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 서울시 내부 자료의 경우에도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으나, 발간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의 경우 전년도 연구에서는 서울시 인력운영과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나,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대체하였다.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서울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운영 방향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연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2개 분야, 42개 영역, 218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위한 조사를 가구조사, 사업체 조사, 외국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 사업이며, 그 결과는 다양하게 인용되어 정책 수립이나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김창연, 2008). 이러한 서울 서베이는 다른 조사나 통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폭넓은³⁾ 조사라는 점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에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국제통계의 경우 여성권한척도(GEM)이나 성별격차지수(GGG) 등을 산출, 발표하는 UNDP 및 세계경제포럼의 자료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측정, 발표하고 있어 국제비교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여성친화도시지표 명칭과 전반적 구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의견, 세부지표 및 산식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의견과 중요도(5점 척도), 기타 의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전문가는 교수, 연구자, 단체 대표 및 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45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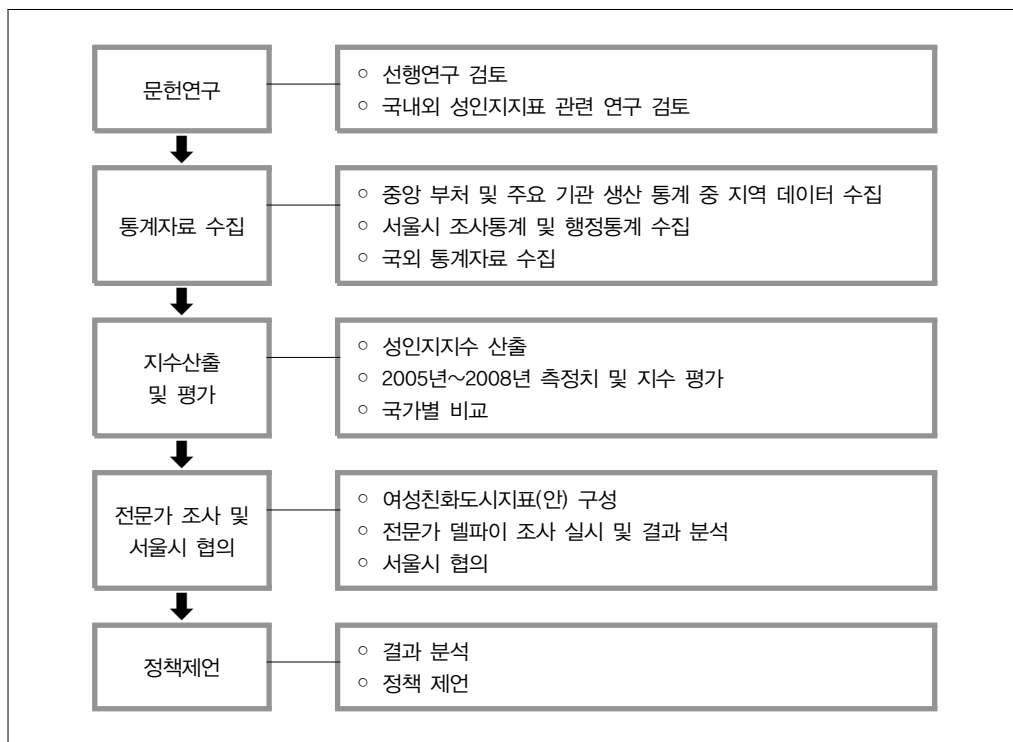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전화 섭외 후 이메일로 조사지를 발송, 다시 이메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였다.

3) 2007년도의 경우 가구조사 표본은 20,000가구, 가구원조사 표본은 15세 이상 가구원 48,207명, 국내 사업체 조사 표본은 5,000개, 외국인 투자사업체 조사 표본은 500개, 외국인 조사 표본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중 만 20세 이상 3개월 이상 거주자 1,000명이다.

셋째, 여성친화도시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추진하였다. 협의는 민선 4기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실무 부서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행복도시팀과 이루어졌으며, 연구진이 구성한 여성친화도시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최종 반영하였다.

제3절 연구수행절차

연구수행 절차는 크게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지수산출 및 평가, 전문가 조사 및 서울시 협의,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각 절차별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1 ■ 연구수행절차도

제4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성인지지표 측정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나 연구자, 서울시민 등이 정책입안이나 평가, 연구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여성의 현황이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서울시 각 실·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선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가져야 할 목표 지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민선 4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성인지지표 분석 및 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리지표 제안은 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II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에 5개 영역 26개 지표로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② 성별 대졸자 취업률, ③ 성별 평균임금비, ④ 성별 관리직 비율, ⑤ 성별 정규직 비율, ⑥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⑦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⑧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등 8개 지표이다. 그리고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①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②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③ 성별 장애인 등록률 등 3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지표는 총 4개로 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②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③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④ 성별 건강검진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총 4개의 지표인 ① 성별 광역의회 위원비율, ②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③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④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이 포함되었다. 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4개 영역 19개 지표와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2-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인구)×10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 수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100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100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 직종 여성 수)×100

(계속)

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의 경제 세력화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 / 여성 임금 근로자 수)×10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10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 (여성 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100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 포함)	여성 주택보유율 = (여성 명의 주택의 수 / 전체 주택의 수)×100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9.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18~60세 인구)×100
	10.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100
	11.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장애인 등록률 = (여성장애인 등록 수 / 전체 장애인 수)×10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2.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비율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3.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4.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 : 사회통계조사 결과
	15.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 건강검진율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100
여성의 대표성 제고	16.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100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100
	18.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100
	1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100

이러한 산식에 따라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역별 지표 측정 결과와 이에 따른 지표 값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는 총 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69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미약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로는 다소 정체되고 있다. 2008년도의 지표값은 0.69로 2007년도의 0.70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49.6	50.5	51.6	52	51.9	51.5	51.0
남성	75.3	74.8	75.1	75.3	74.7	73.9	73.7
여/남	0.66	0.68	0.69	0.69	0.69	0.70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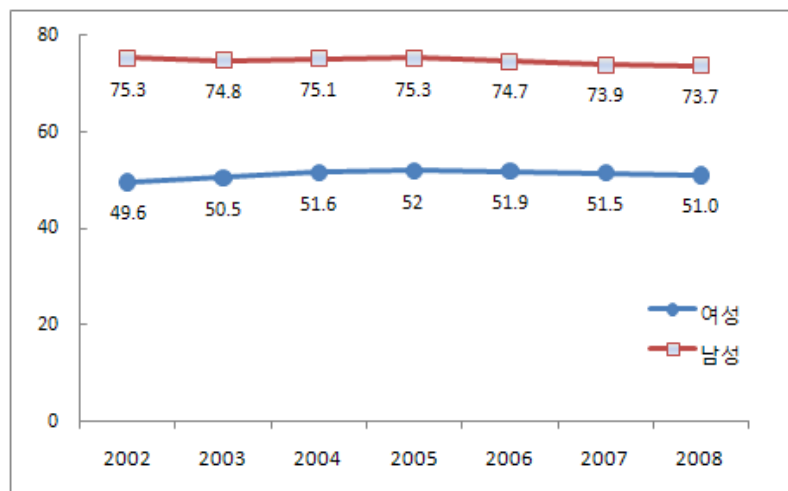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산식 :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 취업불가능자)) X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91

성별 대졸자 취업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지표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대출자 취업률이 2007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취업률이 낮아진 데에서 비롯된다. 대출자 취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7년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3 성별 대출자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52.9	66.7	66.4	65.0	65.2
남성	63.7	71.9	73.4	72.9	72.0
여/남	0.83	0.93	0.90	0.89	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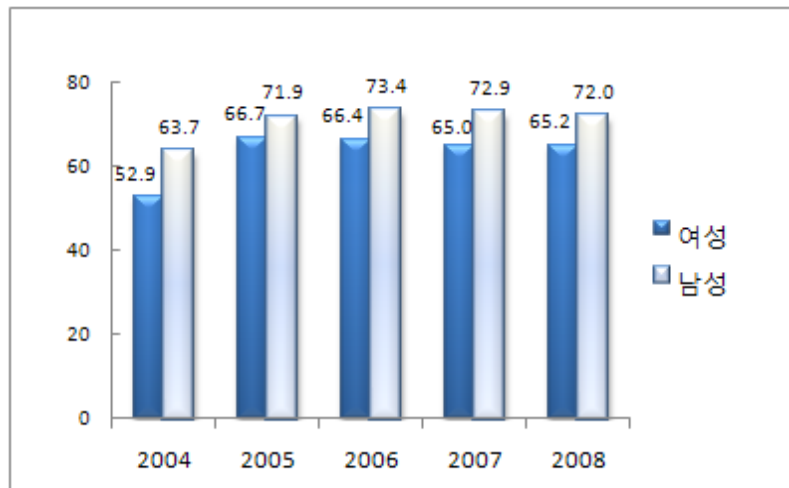


그림 2-2 성별 대출자 취업률 변화 추이

(3) 성별 평균임금비

산식 : 성별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 × 100
 지표값(2007년) : (여/남) = 0.65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평균임금비는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가 2004년도에 다시 크게 하락한 후, 2005년도에는 2003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여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4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비	63.0	64.1	63.1	64.1	64.1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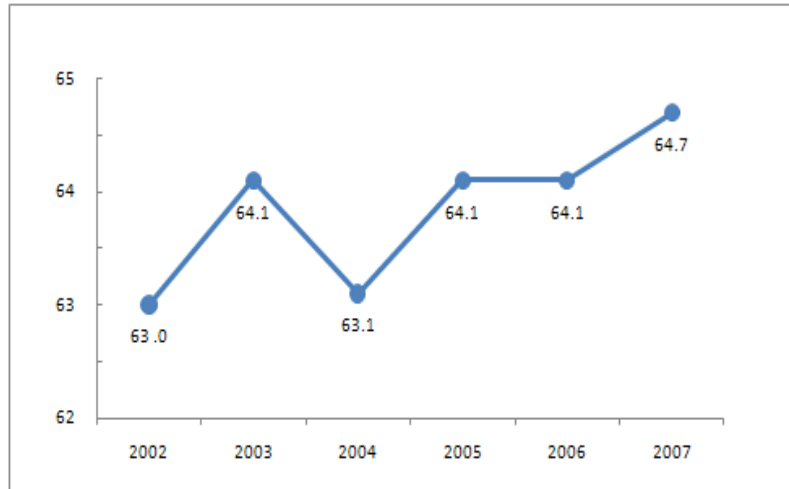


그림 2-3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4) 성별 관리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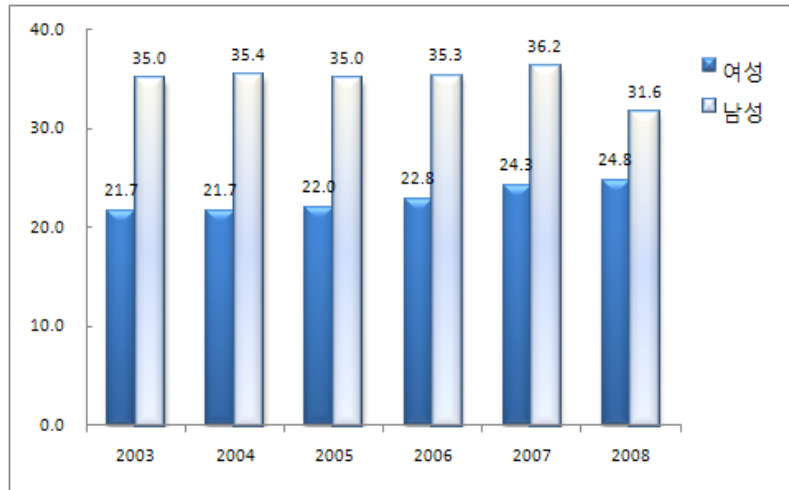
산식 :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 / 전 직종 근로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8

성별 관리직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은 상승하고 남성 관리직 비율은 하락하였다.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표값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표 2-5 성별 관리직 비율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21.7	21.7	22.0	22.8	24.3	24.8
남성	35.0	35.4	35.0	35.3	36.2	31.6
여/남	0.62	0.61	0.63	0.65	0.67	0.78



■ 그림 2-4 ■ 성별 관리직 비율

(5) 성별 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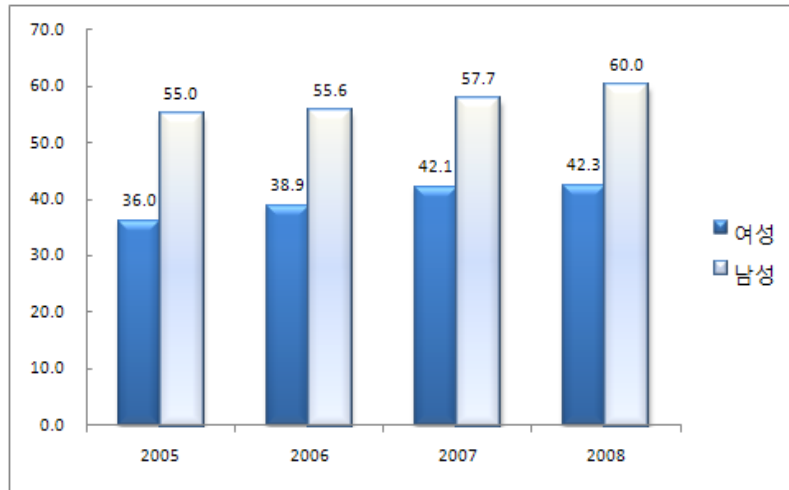
산식 : 정규직비율 = [{임금근로자-(일용직근로자수+임시직근로자수)} / 임금근로자] X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1

정규직 비율은 2005년 이래 여성과 남성 모두 그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08년도의 경우 2007년도에 비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데 반하여 여성 정규직 비율은 그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지표값은 오히려 2007년도보다 하락하였다.

■ 표 2-6 ■ 성별 정규직 비율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36.0	38.9	42.1	42.3
남성	55.0	55.6	57.7	60.0
여/남	0.65	0.70	0.73	0.71



■ 그림 2-5 ■ 성별 정규직 비율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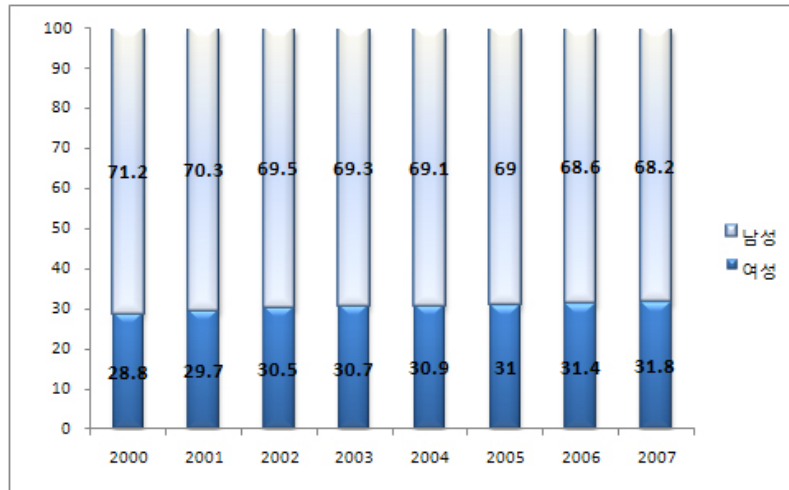
산식 :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 100
 지표값(2007년) : (여/남) = 0.4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남성의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여성 사업체 대표자 수가 남성 사업체 대표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현실이다.

■ 표 2-7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28.8	29.7	30.5	30.7	30.9	31.0	31.4	31.8
남성	71.2	70.3	69.5	69.3	69.1	69.0	68.6	68.2
여/남	0.40	0.42	0.44	0.44	0.45	0.45	0.46	0.47



■ 그림 2-6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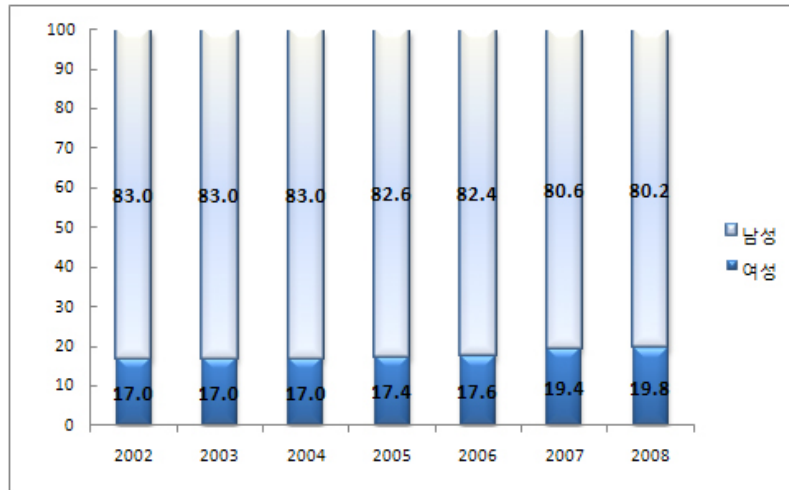
산식 :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25

노동조합원 구성비는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여성 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남성의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표 2-8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17.0	17.0	17.0	17.4	17.6	19.4	19.8
남성	83.0	83.0	83.0	82.6	82.4	80.6	80.2
여/남	0.20	0.20	0.20	0.21	0.21	0.24	0.25



■ 그림 2-7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8) 성별 주택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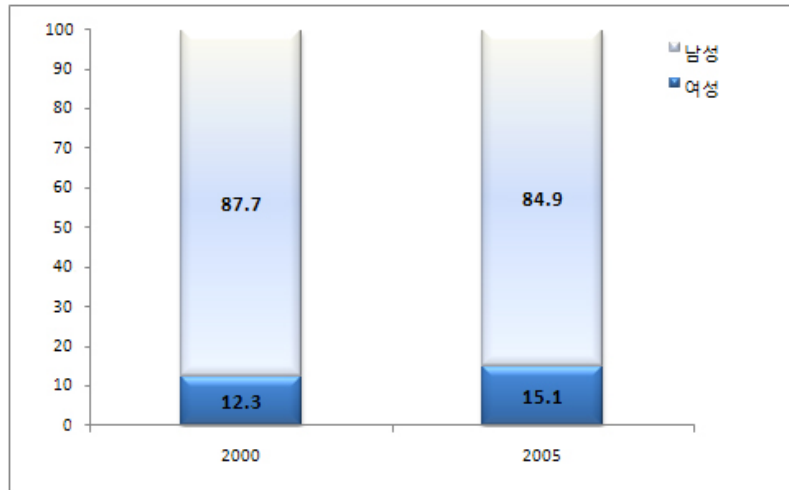
산식 : 여성의 주택보유율 = (여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지표값(2005년) : (여/남) = 0.18

성별 주택보유율은 2005년도 이후 후속 통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를 포함한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2005년도에 약 15%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 표 2-9 ■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2000	12.3	87.7	0.14
2005	15.1	84.9	0.18



■ 그림 2-8 ■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총 3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전체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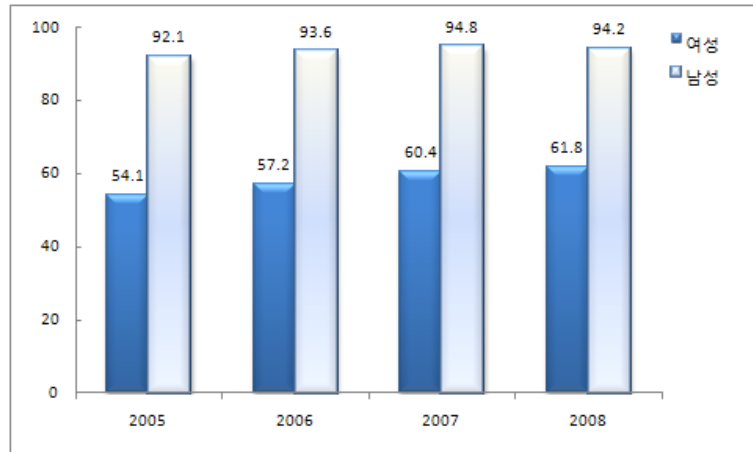
산식 :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18~60세 전체인구)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66

18세~60세 전체 인구 중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거의 95%에 이르는 반면, 여성들은 2007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60%를 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 표 2-10 ■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54.1	57.2	60.4	61.8
남성	92.1	93.6	94.8	94.2
여/남	0.59	0.61	0.64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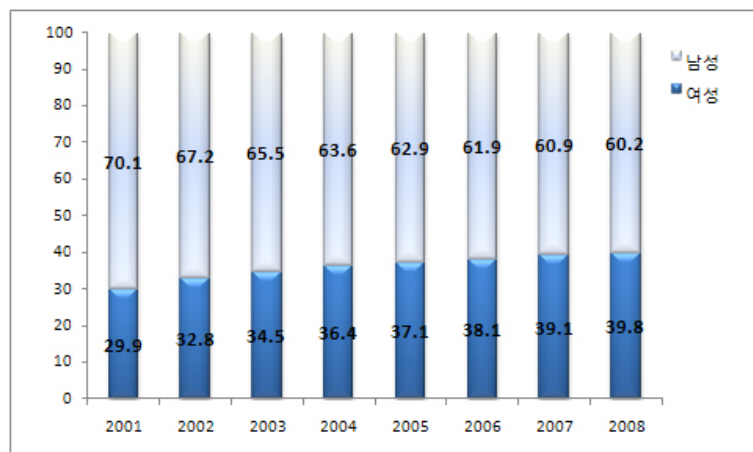
■ 그림 2-9 ■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를 성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및 그래프와 같다. 2001년도에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 가입자의 43%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66%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2-11 ■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29.9	32.8	34.5	36.4	37.1	38.1	39.1	39.8
남성	70.1	67.2	65.5	63.6	62.9	61.9	60.9	60.2
여/남	0.43	0.49	0.53	0.57	0.59	0.62	0.64	0.66



■ 그림 2-10 ■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여성 수급자가 남성 수급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2-12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38,3	36,9	35,9	36,6	37,5	37,8	37,8	37,4
남성	61,7	63,1	64,1	63,4	62,5	62,2	62,2	62,6
여/남	0,62	0,58	0,56	0,58	0,60	0,61	0,61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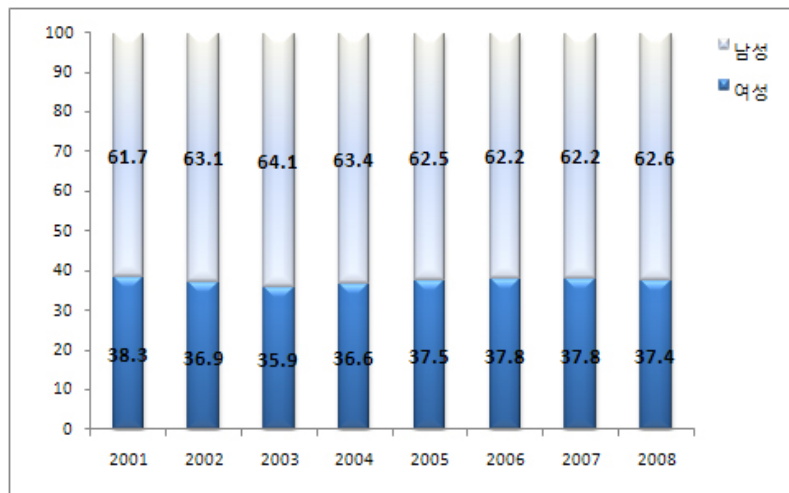


그림 2-11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산식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5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여성이 남성의 약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취업률이 다소 하락했다. 노인인구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성이 더 높아 여성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2-1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5.8	6.0	6.2	7.4	7.4	6.8
남성	7.0	7.7	8.2	8.6	9.3	9.1
여/남	0.83	0.78	0.76	0.86	0.80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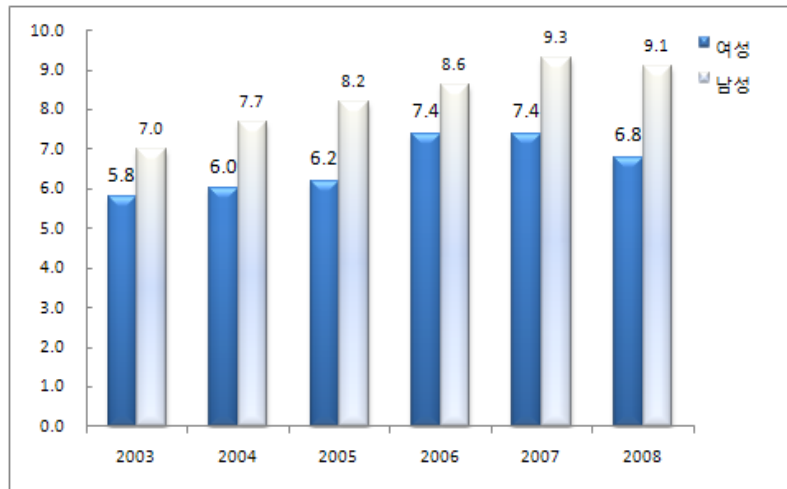


그림 2-1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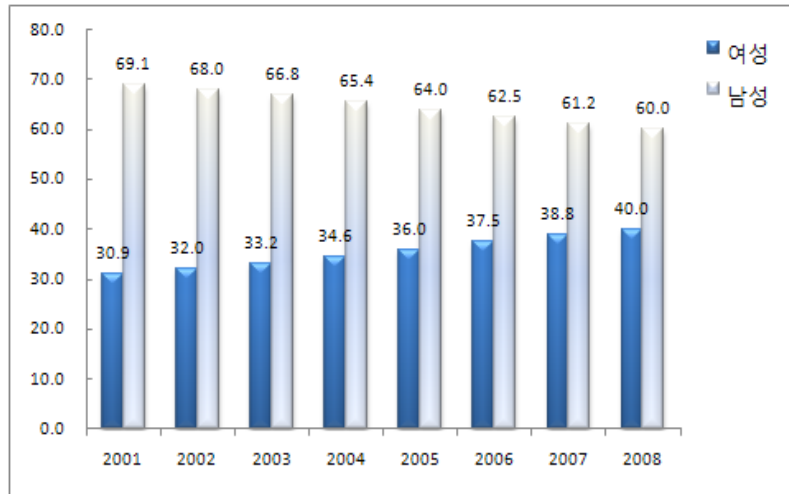
산식 : 여성장애인 등록률 = (여성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67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08년도에는 등록 장애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이는 남성 등록 장애인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2-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30.9	32.0	33.2	34.6	36.0	37.5	38.8	40.0
남성	69.1	68.0	66.8	65.4	64.0	62.5	61.2	60.0
여/남	0.45	0.47	0.50	0.53	0.56	0.60	0.63	0.67



■ 그림 2-13 ■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는 총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산식 : 인터넷 활용 가능성 =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름
지표값(2007년) : (여/남) = 0.86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은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2007년까지 서울서베이에서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응답 항목 중 “잘 줄 모름”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성별 인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며 자주 혹은 가끔 사용하는 인구의 성비를 파악하였다. 2008년도 서울 서베이 조사에서는 인터넷 활용 가능성 여부나 활용 빈도를 묻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5년 이래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표값은 0.86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여성인구는 인터넷 활용이 가

능한 남성인구의 약 86%에 해당한다.

표 2-15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여성	71.2	68.0	65.0
남성	80.0	77.8	75.5
여/남	0.89	0.87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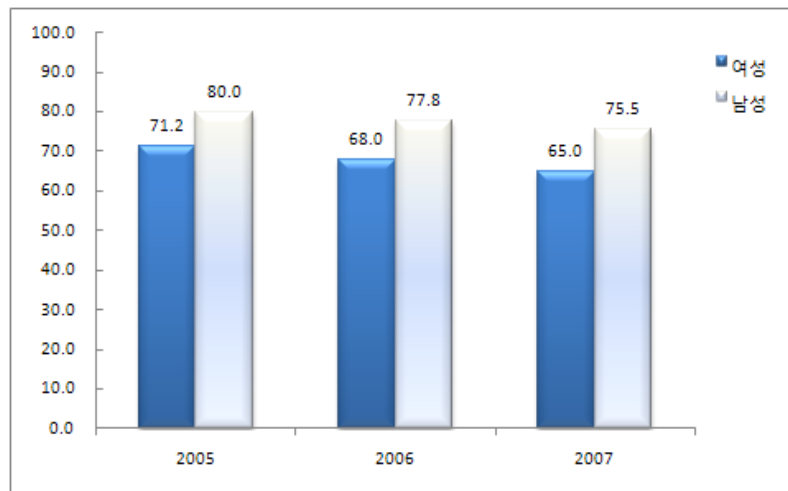


그림 2-14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산식 :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범죄피해+야간보행)
지표값(2008년) : (여/남) = 0.54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도시 위험 체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 위험도’,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다닐 경우 두려움 정도’,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건물 붕괴 등 건물에 대해 느껴지는 위험도’로 구분하여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이 중에서 성별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별로 두렵지 않다거나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안전체감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별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야간보행이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서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지표값은 2008년에 0.54이다. 그러나 지표값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14.7	17.7	18.2	22.2
남성	33.6	38.1	36.4	41.1
여/남	0.44	0.46	0.50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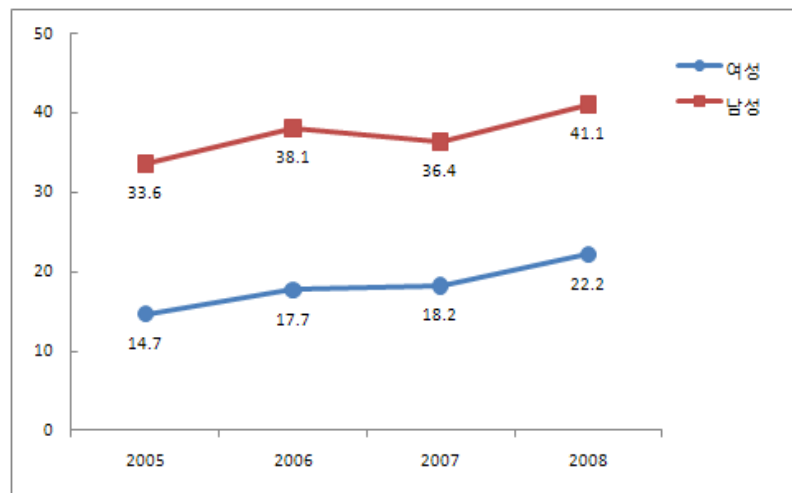


그림 2-15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산식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지표값(2008년) : (여/남) = 0.85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를 ‘좋다’, ‘좋은 편이

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나쁘다' 등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지표는 이 중에서 '좋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로 측정한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값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단위 : %)

	2003	2006	2008
여성	38.4	41.2	51.4
남성	51.1	51.3	60.5
여/남	0.75	0.80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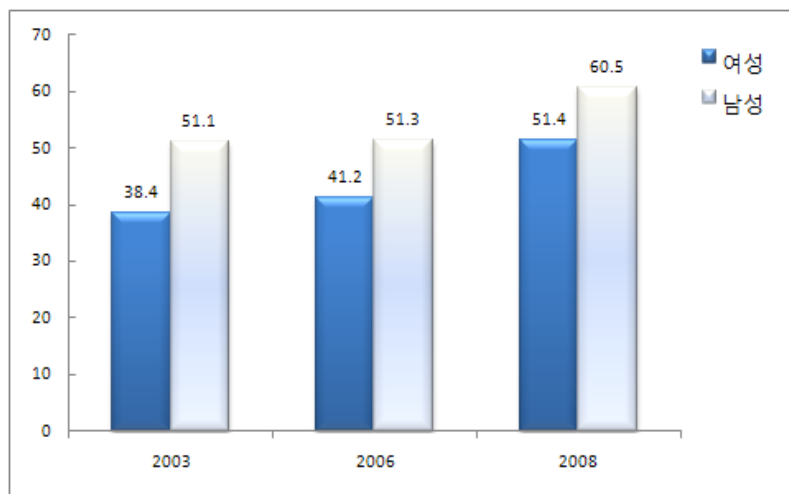


그림 2-1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 성별 건강검진률

산식 : 여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97

건강검진률은 성별 간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는 지표이다. 남성과 여성의 건강검진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커서 지표값 또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06년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근소하게 나타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건강검진 실천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표 2-18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42.6	38.4	50.2	55.8
남성	49.3	47.5	53.9	57.3
여/남	0.86	0.81	0.93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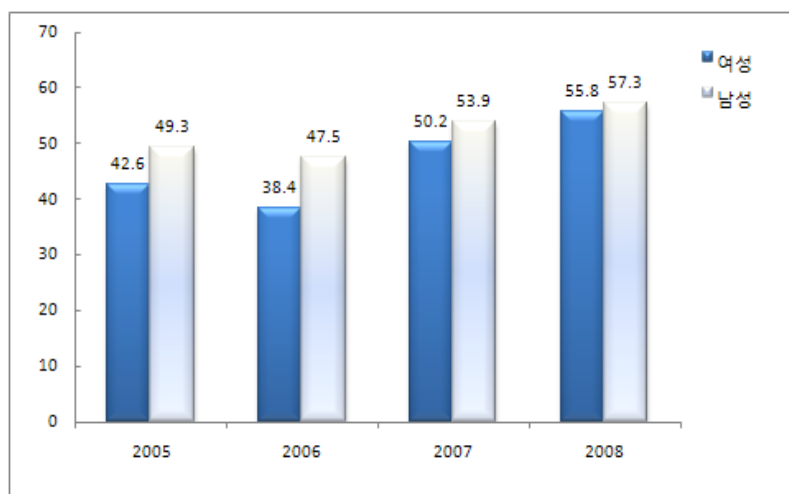


그림 2-17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산식 :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 의원 수) X 100
 지표값(4대) : (여/남) = 0.14

1대부터 4대까지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점차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지표값도 점차 상승해 왔다. 4대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의원은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의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성 의원의 수가 점차 증가해 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남성 의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임계치인 30%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표 2-19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여성	9.5	10.6	7.8	12.3
남성	90.5	89.4	92.2	87.7
여/남	0.10	0.12	0.08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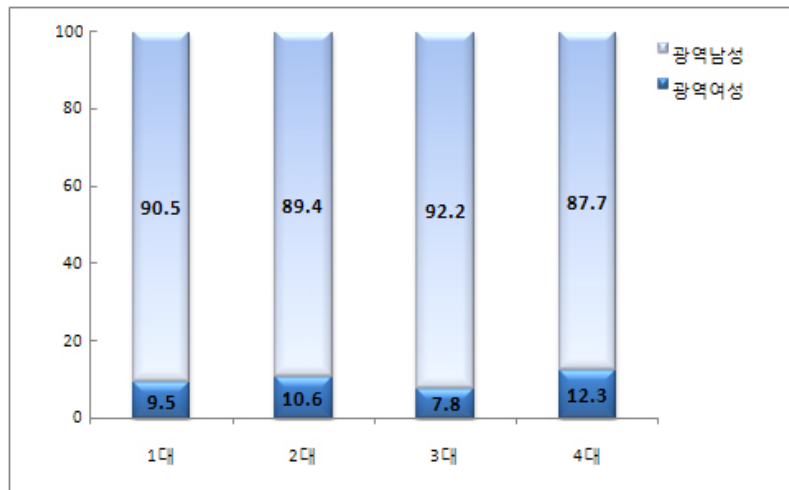


그림 2-18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산식 :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기초의회 전체 의원 수) X 100
지표값(4대) : (여/남) = 0.24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초 의회의 경우 처음 출발할 당시 여성의원 비율이 4.3%로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미약했으나, 4대에 접어들어서는 19.6%로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3대의 여성의원 비율(5.7%)에 비해 4대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값은 4대에서 0.24로 여성의원 수가 남성의원 수의 24%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대에 들어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원 수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며, 임계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20 성별 기초의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여성	4.3	5.0	5.7	19.6
남성	95.7	95	94.3	80.4
여/남	0.04	0.05	0.06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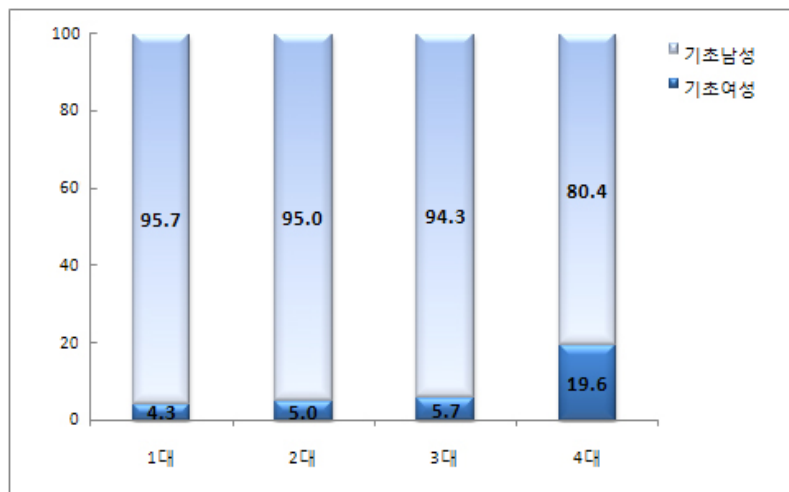


그림 2-19 성별 기초의원 비율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비율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3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1%에 불과했으나, 2008년도에는 2.3%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증가 정도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더 커서 지표값 역시 2002년도의 0.16에서 2008년도에는 0.3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남성의 7.7.%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치이다.

표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1.0	1.0	1.2	1.2	2.2	2.2	2.2	2.3
남성	6.1	6.4	6.7	6.6	6.9	8.4	7.5	7.7
여/남	0.16	0.16	0.18	0.18	0.32	0.26	0.2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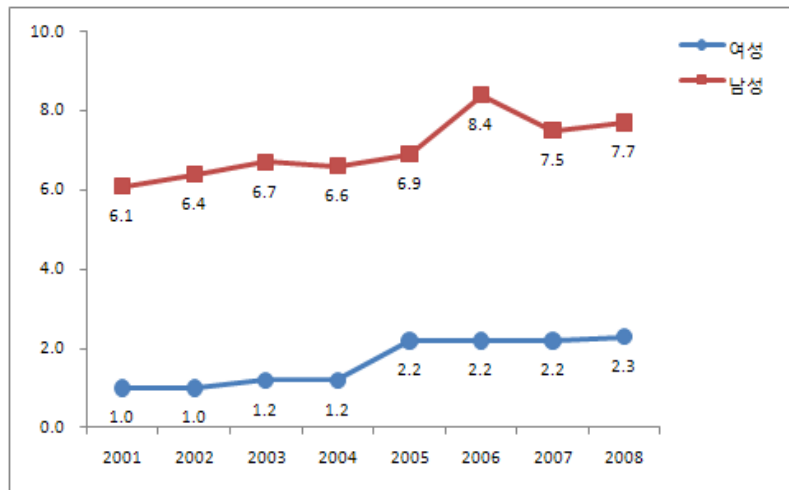


그림 2-20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 ×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1.11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지표값이 1을 넘는 지표이다. 여성 공무원 전체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도에 11.3%인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10.2%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 모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에는 성별 비율이 역전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2008년도의 지표값은 2007년도의 지표값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표 2-22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여성	9.6	13.4	20.0	11.3
남성	9.3	14.6	17.2	10.2
여/남	1.03	0.92	1.1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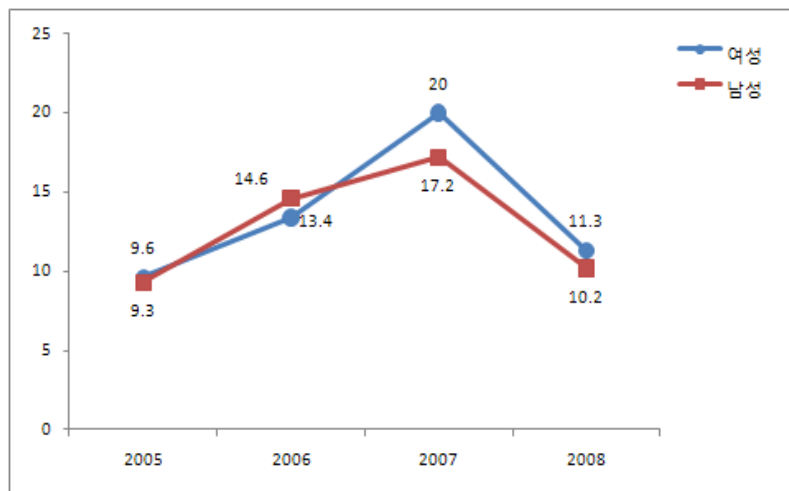


그림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지금까지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해 선정된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치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성인지지수를 산출하고 성인지 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1.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이상적으로 개발된 성인지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각 영역별 지표를 종합해서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때 주안점은 ① 측정된 지표가 각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② 각 영역 내에서 측정된 지표의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③ 지수산출 산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두어야 한다(조영미 외, 2008).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기 개발되었던 5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 지수 산출에 부적합한 지표를 제외하고 남은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수의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g_{ij} = 각 지표별 남성대비 여성 지표값

q_{ij} = 각 지표별 가중치

i = 영역별 번호, j = 영역별 지표번호

$$G_{ij} = g_{ij} \times q_{ij}$$

$$G_i = \left(\sum_{j=1}^m G_{ij} \right) / m$$

G_i 는 각 영역별 지수

m 은 각 영역별 지수에 포함된 지표의 수(총 7개의 지표는 제외됨)

$$G = \left(\sum_{i=1}^m G_i \right) / 19$$

G 는 양성평등지수

양성평등지수 산출 과정에 총 19개의 지표가 포함됨

우선 각 개별지표의 값 g_{ij} 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보여준다. 남성 대비 여성의 데이터 값인 성평등 지표값(g_{ij})에 전문가조사에서 결정된 가중치(q_{ij})를 곱하였다. 지표의 성격은 남성대비 여성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해진 가중 지표값(G_{ij})을 영역별로 더한 후 영역별 지표수(m)로 나누어 영역별 지수(G_i)를 구하고, 전체 지표의 지표값(G_{ij})을 더한 후 전체 지표수 19로 나누어 양성평등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향상 혹은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여성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어떤 영역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성인지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2005년도의 성인지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표 2-23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_{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2.0	75.3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7	71.9	0.93	
	3. 성별 평균임금비	64.1	100.0	0.64	
	4. 성별 관리직 비율	22.0	35.0	0.63	
	5. 성별 정규직 비율	36.0	55.0	0.6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0	69.0	0.45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4	82.6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4.1	92.1	0.59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2	8.2	0.7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6.0	64.0	0.56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71.2	80.0	0.89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4.7	33.6	0.4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42.6	49.3	0.86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2	6.9	0.32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9.6	9.3	1.03	

이 지표값을 토대로 산출된 2005년도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 2-24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1.0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3	71.45	66.44		
	3. 성별 평균임금비	0.64	87.90	56.25		
	4. 성별 관리직 비율	0.63	77.00	48.51		
	5. 성별 정규직 비율	0.65	78.55	51.0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5	57.40	25.83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2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59	76.07	44.88	43.88	43.45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6	64.87	49.03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56	66.93	37.48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9	67.50	60.07	58.19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4	85.14	37.4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86	84.55	72.7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3.41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32	75.33	24.10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03	76.67	78.97		

2005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3.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06년도의 성인지 지표 값과 그로부터 산출된 성인지지수를 살펴보겠다. 성인지 지표값은 〈표 2-25〉와 같으며, 성인지지수는 〈표 2-26〉과 같다.

표 2-25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9	74.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4	73.4	0.90	
	3. 성별 평균임금비	64.1	100	0.64	
	4. 성별 관리직 비율	22.8	35.3	0.65	
	5. 성별 정규직 비율	38.9	55.6	0.7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4	68.6	0.46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6	82.4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7.2	93.6	0.61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8.6	0.8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7.5	62.5	0.60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8.0	77.8	0.87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7.7	38.1	0.4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4. 성별 건강검진율	38.4	47.5	0.8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2	8.4	0.26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13.4	14.6	0.92	

표 2-26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47	41.49	43.34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0	71.45	64.30		
	3. 성별 평균임금비	0.64	87.90	56.25		
	4. 성별 관리직 비율	0.65	77.00	50.05		
	5. 성별 정규직 비율	0.70	78.55	54.98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6	57.40	26.4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2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1	76.07	46.40	47.44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6	64.87	55.78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0	66.93	40.15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7	67.50	58.72	57.22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6	85.14	39.1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81	84.55	68.48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0.09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26	75.33	19.58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0.92	76.67	70.5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3.34로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7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7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5	73.9	0.7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	72.9	0.89	
	3. 성별 평균임금비	64.7	100	0.65	
	4. 성별 관리직 비율	24.3	36.2	0.67	
	5. 성별 정규직 비율	42.1	57.7	0.73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4	68.6	0.46	2006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4	80.6	0.24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0.4	94.8	0.64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9.3	0.8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8.5	61.5	0.63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65	75.5	0.86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8.2	36.4	0.50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50.2	53.9	0.93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2	7.5	0.2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20.0	17.2	1.16	

표 2-28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70	84.75	59.32	42,31	45,47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89	71.45	63.59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7.13		
	4. 성별 관리직 비율	0.67	77.00	51.59		
	5. 성별 정규직 비율	0.73	78.55	57.34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6	57.40	26.4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4	53.37	12.80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4	76.07	48.68	47,57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0	64.87	51.89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3	66.93	42.16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6	67.50	58.05	60,44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0	85.14	42.57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54		
	4. 성별 건강검진율	0.93	84.55	78.63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5,26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29	75.33	21.84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16	76.67	88.93		

2007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5.47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9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0	73.9	0.7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2	72.0	0.91	
	3. 성별 평균임금비	64.7	100	0.65	2007년 자료
	4. 성별 관리직 비율	24.8	31.6	0.78	
	5. 성별 정규직 비율	42.3	60.0	0.71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8	68.2	0.47	2007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8	80.2	0.25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1.8	94.2	0.66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8	9.1	0.75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40.0	60.0	0.67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성	65.0	75.5	0.86	2007년 자료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22.2	41.1	0.5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51.4	60.5	0.85	
	4. 성별 건강검진율	55.8	57.3	0.97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3	7.7	0.3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11.3	10.2	1.11	

표 2-30 2008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70	84.75	59.32	43.60	46.42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1	71.45	65.01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8.01		
	4. 성별 관리직 비율	0.78	77.00	60.06		
	5. 성별 정규직 비율	0.71	78.55	55.77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7	57.40	26.9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5	53.37	13.34		
	8. 성별 주택보유율	0.18	57.37	10.32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66	76.07	50.20	47.89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5	64.87	48.65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7	66.93	44.84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6	67.50	58.05	63.12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4	85.14	45.97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5	78.18	66.45		
	4. 성별 건강검진율	0.97	84.55	82.0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0.14	79.67	11.15	34.49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0.24	79.67	19.1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3	75.33	22.5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1.11	76.67	85.10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서울시 성인지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성인지지수는 2005년도의 43.45에서 2006년도의 43.34로 약간 하락했으나, 2007년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07년의 45.47, 그리고 2008년도에는 46.42로 미약하지만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영역명	2005	2006	2007	2008
전체	43.45	43.34	45.47	46.42
여성의 경제세력화	41.00	41.49	42.31	43.6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43.88	47.44	47.57	47.89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58.19	57.22	60.44	63.12
여성의 대표성 제고	33.41	30.09	35.26	34.49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은 2005년의 41.00에서 2008년에는 43.60으로,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은 2005년도의 43.88에서 2008년도의 47.89로,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2005년도의 58.19에서 2008년도의 63.12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2005년도의 33.41에서 2008년도의 34.49로 각각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가장 낮는데, 이는 주로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서 개선이 미진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종합 평가

1. 서울시 성인지지표값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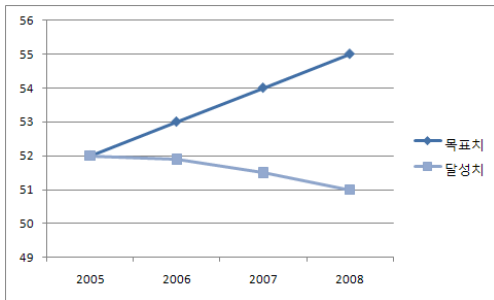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서울 여성들의 현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개발될 당시 각 지표별로 제시되었던 목표치와 실제 연도별 달성치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로 제시된 목표치는 각 지표별로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해당하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본 목표치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선도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연도별 측정치가 반드시 이 목표치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보다는 목표치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서울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세부지표별 목표치와 연도별 달성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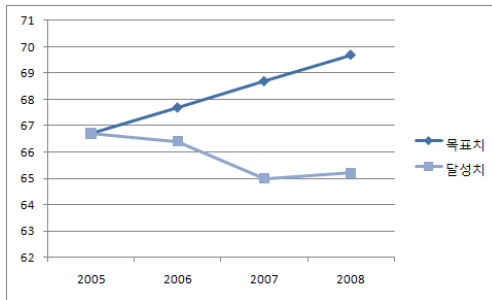
(1) 여성의 경제세력화

우선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8개 지표에 대한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05년도 52.0%에서 출발하여 해마다 전년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1.0%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에는 전년도 취업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된 목표치에 비해 2007년도까지는 점점 하락하였으나, 2008년도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모두 목표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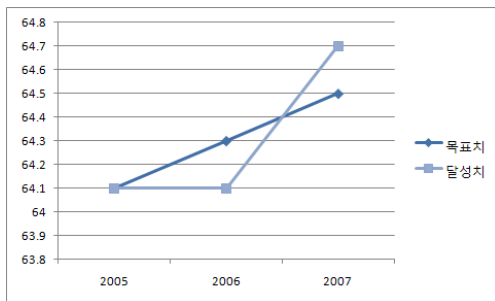


■ 그림 2-22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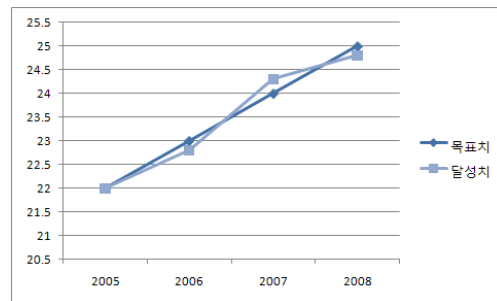


■ 그림 2-23 ■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성별 평균임금비는 전년도 임금비의 0.2% 이상으로 설정되었던 목표치를 2007년도에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1.0% 이상으로 설정되었던 목표치와 매우 근사하게 증가하여 2008년도의 경우 목표치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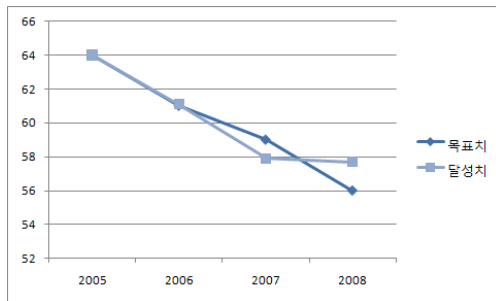


■ 그림 2-24 ■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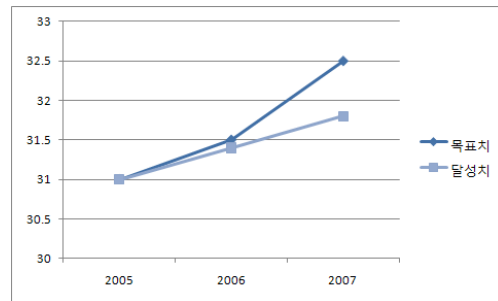


■ 그림 2-25 ■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다음으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아닌 여성 정규직 비율이지만, 2006년도에 설정된 목표치는 비정규직 비율이므로 여기에서도 정규직 비율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3% 이상 하락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목표치와 유사하게 하락하다가, 2008년도에 2007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치와 다소 거리가 발생하였다.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0.5% 이상으로 설정된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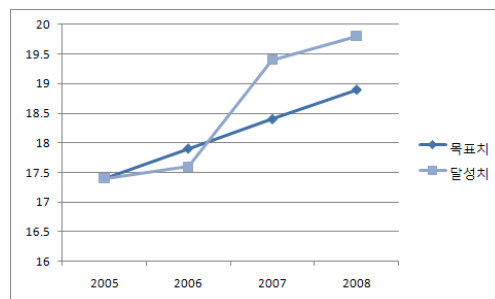


■ 그림 2-26 ■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 그림 2-27 ■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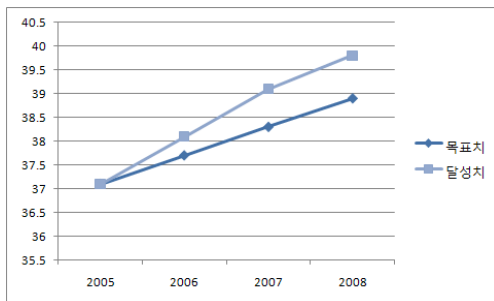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은 목표치를 훌쩍 넘어 달성된 지표이다. 전년도 비율의 0.5% 이상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2007년도에 이미 넘어섰으며, 2008년도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별 주택보유율은 전년도 보유율의 1.0% 이상 상승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나, 성별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2005년도 이후 발견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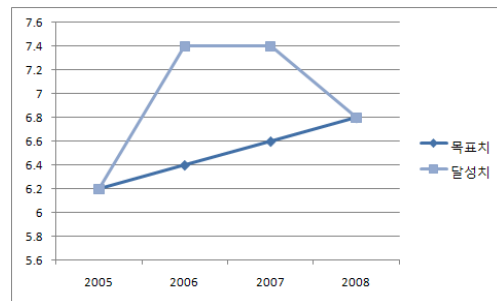
■ 그림 2-28 ■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는 전년 대비 0.6% 이상 증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만 2006년도에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사용한 통계는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교 자료로 사용한 것은 앞서 〈표 2-11〉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이다.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부터 이미 목표치를 넘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목표치와의 거리를 점점 넓히며 상향 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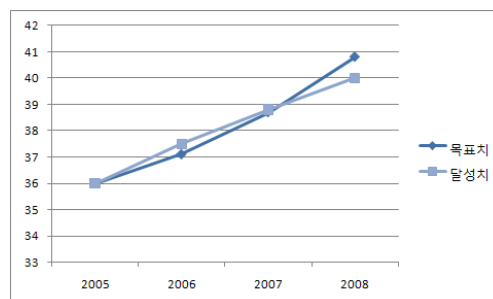
■ 그림 2-29 ■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 그림 2-30 ■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의 경우 전년 대비 0.2% 이상 상승하도록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이러한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다가 2008년도에 다시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목표치와 동일한 달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 장애인 등록률의 목표치는 2006년도에 전년 대비 1.1% 이상, 2007년도에 전년 대비 1.6% 이상, 2008년도에 전년 대비 2.1%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장애인 등록률은 목표치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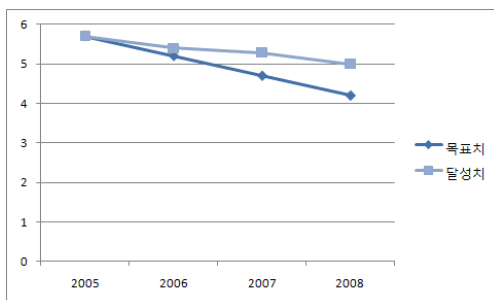


■ 그림 2-31 ■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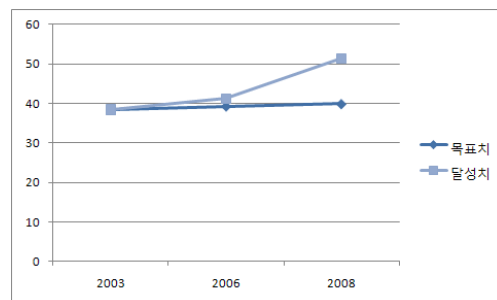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이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제시된 목표치는 서울서베이 조사항목 중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을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지표이므로 목표치와 달성치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두 번째 지표인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관련 목표치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이 느끼는 도시위험도의 평균점수를 전년 대비 0.5점 이상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본 지표와는 달리 목표치가 기반하고 있는 도시위험도는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도나 건물 위험도도 포함하고 있어 본 지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러나 전반적인 서울의 안전 정도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목표치와 달성치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달성치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나타난 평균 위험도로 4개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비교 결과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서울의 도시위험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32 ■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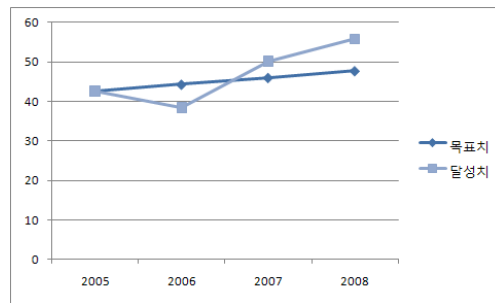


■ 그림 2-33 ■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해마다 0.3% 이상 늘이는 것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0.9%가 증가되어야 하며, 2008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0.6%가 증가되어야 한다. 목표치와 달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08년도의 달성치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지표는 성별 건강검진률이다. 여성의 건강검진률과 관련하여 목표치는 수검 여성의 비율을 전년 대비 1.7% 이상 상승토록 설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다소 하락했다가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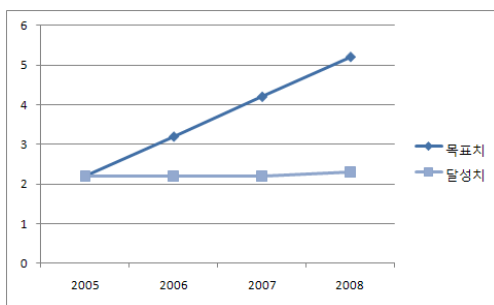


■ 그림 2-34 ■ 여성 건강검진을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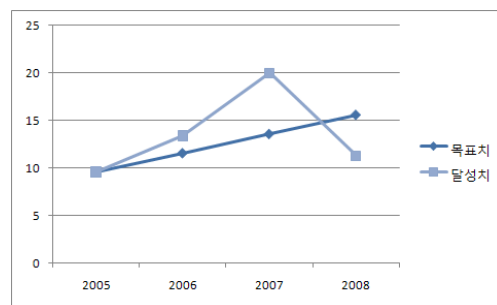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본 영역에서 세부지표인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2010년도의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참고로 2010년도의 목표치는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95%로, 그리고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25.0%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전년 대비 1% 이상 상승하도록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달성 정도는 2005년도의 비율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 목표치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 그림 2-35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 그림 2-36 ■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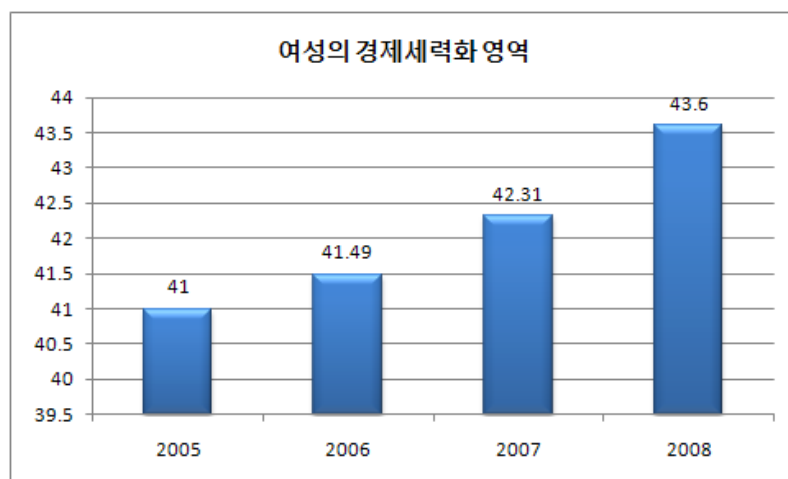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가 해마다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하도록 설정되었다. 2007년도까지는 목표치를 넘어설 정도로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2008년도에 들어 크게 하락하여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각 세부지표별 목표치와 달성치 간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이후 4년간에 걸친 개선 정도를 살펴보았다.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지표들 중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출자 취업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의 달성 정도가 목표치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표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장애인 등록률,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배치 공무원 비율 등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넘어선 지표들의 경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목표치를 재설정함으로써 서울 여성의 현실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들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 성인지지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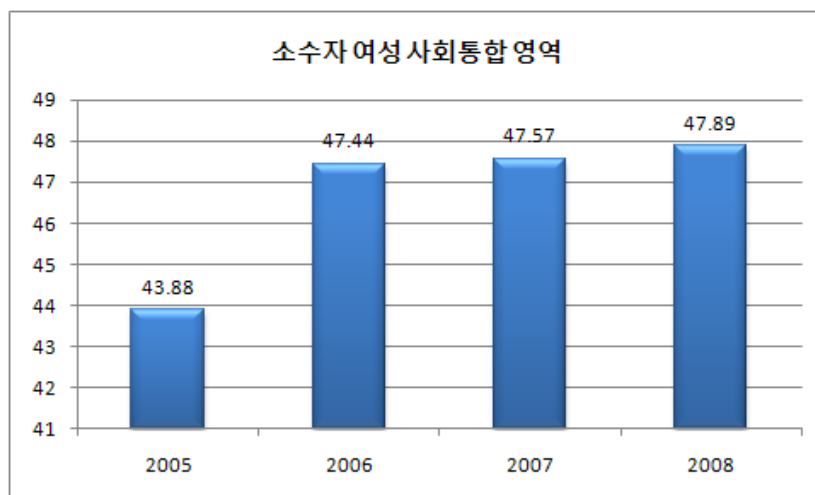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 측정 결과들이 서울시 성인지지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지수와 전체 지수로 구성된다. 우선 영역별 성인지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2-37 ■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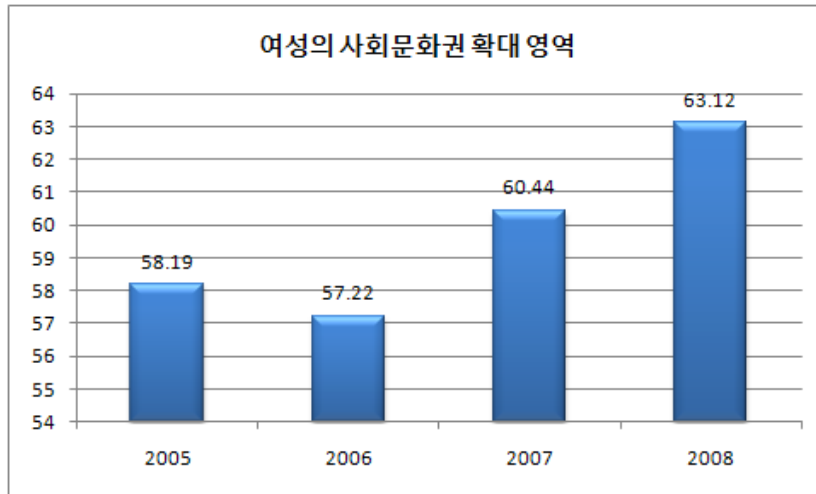
우선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은 영역별 지수값이 2005년도의 41.00에서 2008년도의 43.60으로 2.60점 상승하였다. 상승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세부지표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이 영역별 지수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2005년도의 지수값이 43.88인데 비해 2008년도에는 47.89로 4.01점이 상승하였다. 이 영역은 비교적 상승폭이 큰 편인데,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지수값이 대폭 높아졌고, 그 이후로는 미약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이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지표값이 상승되었고, 이후에는 지표값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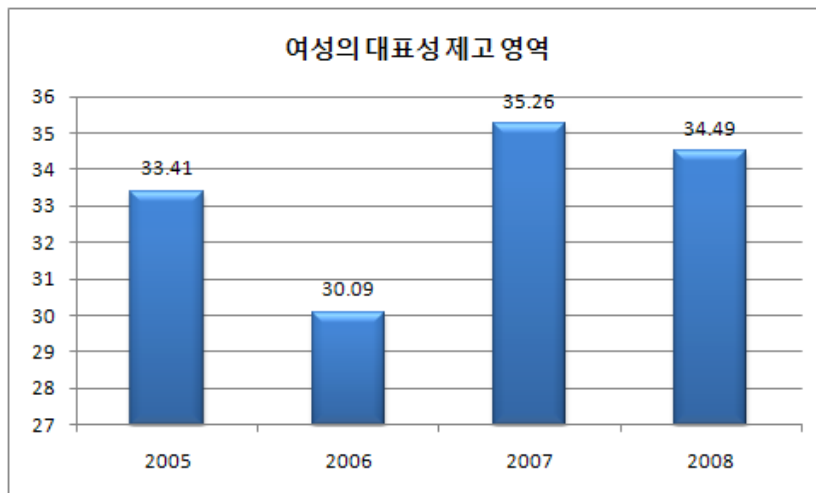


Ⅱ 그림 2-38 Ⅱ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2005년도의 지수값이 58.19에서 2008년도에는 63.12로 4.93점 상승하여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보다 큰 상승폭을 보인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해에는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의 지표값이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가중치가 높은 지표 중 하나인 성별 건강검진율에서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각 지표가 고르게 상승하면서 영역의 지수값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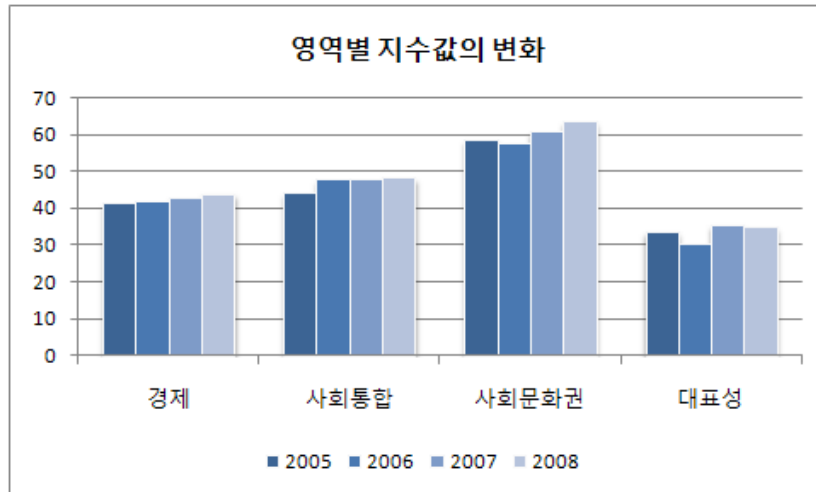


■ 그림 2-39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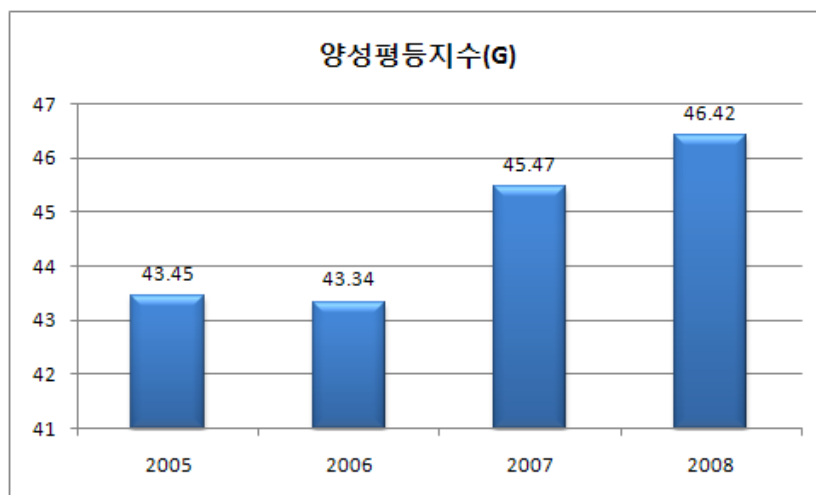
■ 그림 2-40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영역 지수값이 오히려 하락한 유일한 영역이다. 2005년도의 지수값은 33.41이고 2008년도의 지수값은 34.49로, 지난 4년간에 걸쳐 지수값은 1.08점 상승하여 상승폭 또한 매우 낮다. 이 영역의 지표 중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4년간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표값이 동일하고,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비율은 지표값이 1을 넘기 때문에, 이 영역의 지수값 부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2-41 ■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전체 양성평등지수(G)는 2005년도의 43.45에 비해 2008년도에는 46.42로 지난 4년 간에 걸쳐 2.97점이 상승하였다. 2006년도에는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지수값의 하락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양성평등지수 역시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0.11점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상승세가 2008년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 2-41〉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의 연도별 변화 추이

전반적으로 서울 여성의 성평등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양성평등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국제비교

III 국제비교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서울 여성의 현실 및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국가나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여 서울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조영미 외, 200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OECD 10개국과 비교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도시단위의 통계인데 비해 OECD 10개국의 통계는 국가단위의 통계여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정의나 산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현황을 OECD 국가 현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OECD 국가의 상황과 서울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에는 국제적으로 주로 산출되는 경제영역, 일-가족 양립 영역, 대표성 영역 지표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OECD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UNDP, UNECE 자료,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생산한 성별격차지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0%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가 서울시와 OECD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인 반면, OECD 국가는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비율이므로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스웨덴의 78.2%, 캐나다의 74.4%, 영국의 70.2%, 호주의 69.9%, 독일의 69.7%, 미국의 69.3%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OECD 평균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여	66.3	67.1	66.9	68.4	68.9	69.5	69.9
	남	82.3	82.1	82.1	82.7	82.8	83.0	83.0
캐나다	여	72.1	73.2	73.4	73.1	73.5	74.3	74.4
	남	82.7	83.1	82.9	82.5	82.2	82.5	82.7
프랑스	여	62.1	63.4	63.8	63.8	65.0	65.5	65.2
	남	74.5	75.3	74.9	74.5	75.1	74.8	74.3
독일	여	64.2	64.5	65.8	66.9	68.5	69.3	69.7
	남	78.7	78.0	79.2	80.6	81.4	81.8	82.1
이태리	여	47.9	48.3	50.6	50.4	50.8	50.7	51.6
	남	74.5	74.8	74.5	74.4	74.6	74.4	74.4
일본	여	59.7	59.9	60.2	60.8	61.3	61.9	62.2
	남	84.8	84.6	84.2	84.4	84.8	85.2	85.2
한국	여	53.5	52.9	54.1	54.5	54.8	54.8	54.7
	남	77.9	78.0	78.3	78.2	77.7	77.6	77.3
스웨덴	여	77.1	76.8	76.6	77.7	77.7	78.2	78.2
	남	81.1	80.8	80.7	82.5	82.6	82.9	83.1
영국	여	69.3	69.2	69.6	69.6	70.3	69.8	70.2
	남	83.3	83.6	83.1	83.0	83.2	83.1	83.4
미국	여	70.1	69.7	69.2	69.2	69.3	69.1	69.3
	남	83.0	82.2	81.9	81.8	81.9	81.7	81.4
OECD 유럽	여	57.0	57.2	57.8	58.1	58.7	59.0	59.7
	남	77.4	77.2	77.6	77.9	78.1	78.2	78.3
OECD 계	여	59.6	59.6	60.1	60.4	60.9	61.1	61.3
	남	80.4	80.1	80.2	80.3	80.5	80.4	80.5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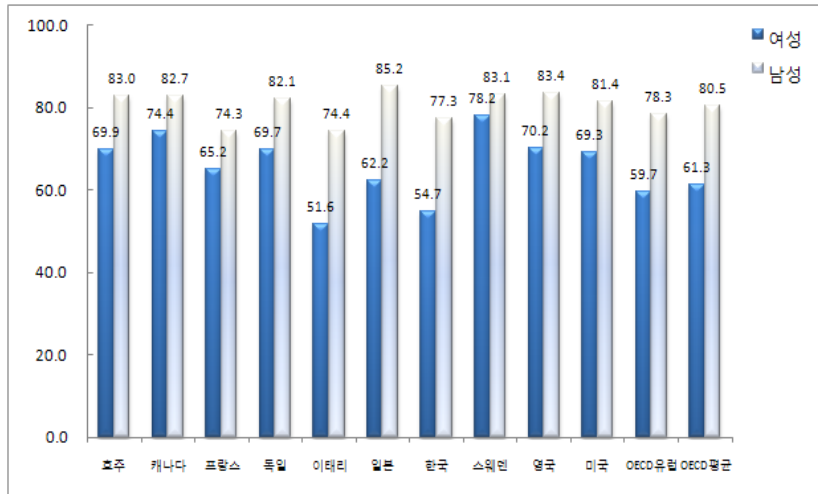


그림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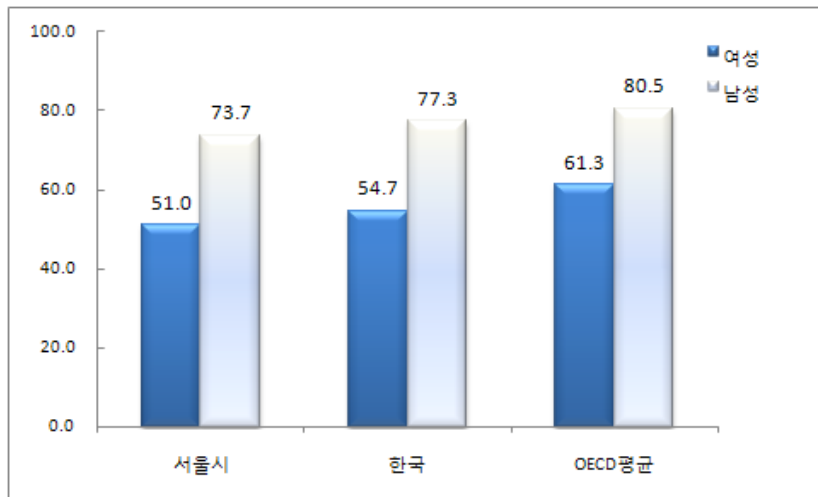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8)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 OECD 국가의 자료가 200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 데이터도 2006년도 수치로 비교해야 한다. 2006년도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66.4%이다. 서울시의 산출 기준은 당해 년도 여성 대졸자 중 취업자 비율인 반면, OECD의 기준은 25세~64세 대졸 여성 중 취업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서울시의 취업률이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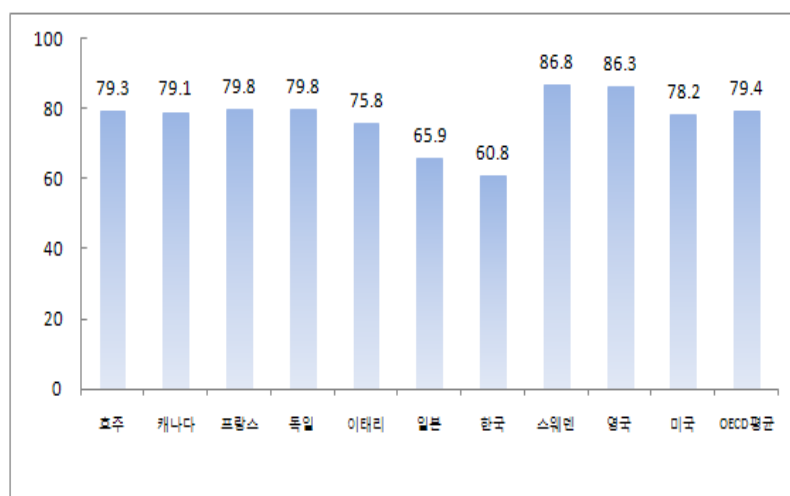
표 3-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2006)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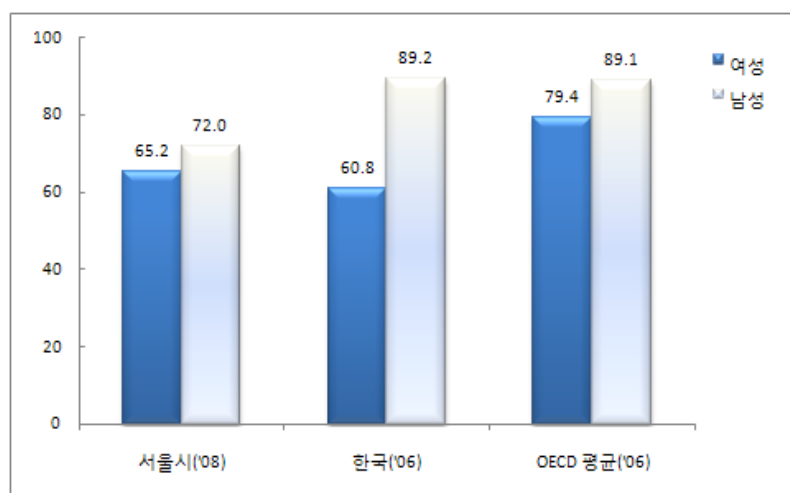
		남성			여성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호주	실업률	6.0	3.3	2.0	5.2	4.7	2.5
	경제활동참가율	80.1	90.8	92.1	57.5	73.1	81.4
	취업률	75.3	87.8	90.3	54.5	69.6	79.3
캐나다	실업률	8.8	5.7	4.1	10.1	5.6	4.1
	경제활동참가율	72.9	86.4	90.5	51.4	73.8	82.5
	취업률	66.5	81.5	86.7	46.4	69.7	79.1
프랑스	실업률	10.0	5.5	5.1	12.0	8.0	5.1
	경제활동참가율	73.2	85.5	91.4	58.4	75.7	84.1
	취업률	65.8	80.8	86.8	51.4	69.7	79.8
독일	실업률	21.4	10.1	4.5	18.4	9.7	5.3
	경제활동참가율	82.2	86.6	91.8	56.9	74.5	84.2
	취업률	64.6	77.8	87.6	46.4	67.3	79.8
이태리	실업률	5.3	3.4	3.7	10.2	6.1	5.9
	경제활동참가율	75.5	86.9	89.5	37.1	68.9	80.5
	취업률	71.5	83.9	86.1	33.3	64.7	75.8
일본	실업률	—	4.9	3.0	—	4.1	3.0
	경제활동참가율	—	91.8	95.7	—	62.3	67.9
	취업률	—	87.3	92.8	—	59.8	65.9
한국	실업률	3.7	4.0	3.0	1.7	2.5	2.7
	경제활동참가율	81.2	88.3	91.9	59.4	57.0	62.4
	취업률	78.2	84.8	89.2	58.4	55.5	60.8
스웨덴	실업률	6.7	4.9	4.5	8.5	5.2	4.0
	경제활동참가율	79.6	89.9	92.0	62.4	82.2	90.4
	취업률	74.3	85.5	87.9	57.1	77.9	86.8
영국	실업률	6.5	3.9	2.5	4.9	4.1	2.0
	경제활동참가율	77.3	88.1	92.1	64.6	79.1	88.0
	취업률	72.3	84.7	89.8	61.5	75.9	86.3
미국	실업률	7.6	4.8	2.7	9.4	4.3	2.3
	경제활동참가율	76.2	83.9	90.2	48.3	70.0	80.0
	취업률	70.4	79.9	87.7	43.8	67.0	78.2
OECD 전체	실업률	9.5	4.7	3.2	10.6	6.5	3.9
	경제활동참가율	76.9	88.2	92.0	52.7	71.1	82.5
	취업률	70.3	84.2	89.1	47.6	66.7	79.4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교육정도별 취업률에서 3차 교육 여성들의 취업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다. 스웨덴과 영국은 각각 86.8%, 86.3%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국가들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인 79.4%보다도 낮으며, 이는 2008년도 취업률인 65.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 그림 3-3 ■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 그림 3-4 ■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8),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반면 한국 남성의 대졸자 취업률은 89.2%로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6년도 남성 대졸자 취업률은 73.4%로 나타나, OECD 국가들의 남성 취업률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7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역시 OECD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성별격차는 28.4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격차가 작은 국가인 스웨덴의 1.1이나 영국의 3.5에 비해도 대단히 큰 격차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인 9.7과 비교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3-3 OECD 국가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2006)

(단위: %)

	대학 및 3차 교육	
	취업률	성별격차 (Gender gap)
호주	79.3	11.0
캐나다	79.1	7.6
프랑스	79.8	7.0
독일	79.8	7.8
이태리	75.8	10.3
일본	65.9	26.9
한국	60.8	28.4
스웨덴	86.8	1.1
영국	86.3	3.5
미국	78.2	9.5
OECD 평균	79.4	9.7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3. 성별 평균임금비

서울시의 성별 평균 임금비는 2006년도의 64.1에서 2007년 64.7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는 2006년도의 35.9에서 35.3으로 감소하였다.

표 3-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1997, 2007)

	1996	1997	2006	2007
호주	15	15	17	17
캐나다	25	25	21	21
프랑스	10	10	12	12
독일	24	24	23	23
일본	37	37	33	32
한국	42	41	38	38
스페인	-	29	-	17
스웨덴	16	17	15	15
영국	26	26	21	21
미국	24	24	19	20
OECD 평균	22	21	18	18

※ 주 : 1.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임금의 중앙값과 남성 임금 중앙값 대비 여성 임금의 중앙값의 차이로 계산됨
 2. 평균임금계산은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세전소득(gross earnings)을 사용하였음
 3. OECD 평균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
 ※ 자료 :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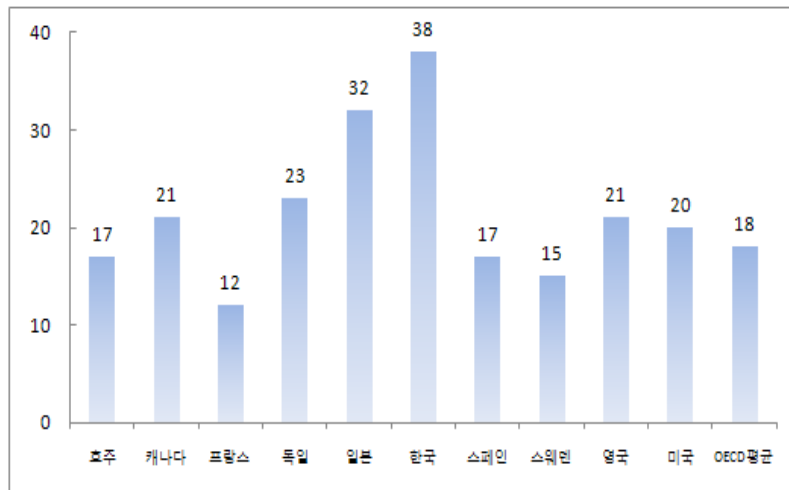


그림 3-5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2007)

그러나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도 약 2배 가량 큰 것이다.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임금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한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

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 직종이나 하위직, 비정규직과 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 낮은 평균 임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내 다양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양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노동시장 내에서의 세력화 또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성별 관리직 비율에서 ‘관리직’ 정의는 UNDP의 정의와 일치한다. 서울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07년도에 24.3%, 2008년도에는 24.8%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0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시 데이터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 비율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2개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30% 혹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OECD 평균도 35.3%로 보고되고 있다.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국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A) 비율	여성 행정, 고위관리(B) 비율	여성 전문가, 기술공(C) 비율	여성 관리직 (A+B+C+D)비율
아이슬란드	7	33.3	29.0	56.0	39.4
노르웨이	5	36.1	33.0	50.0	39.7
호주	4	29.6	38.0	56.0	41.2
캐나다	8	24.9	36.0	56.0	39.0
아일랜드	23	15.5	31.0	52.0	32.8
스웨덴	1	47.0	32.0	51.0	43.3
스위스	19	27.2	31.0	46.0	34.7
일본	27	12.3	10.0	47.0	23.1
네덜란드	11	37.8	27.0	50.0	38.3

(계속)

국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A) 비율	여성 행정, 고위관리(B) 비율	여성 전문가, 기술공(C) 비율	
프랑스	17	19.6	38.0	48.0	35.2
핀란드	2	41.5	30.0	55.0	42.2
미국	13	16.6	42.0	55.0	37.9
스페인	13	33.6	32.0	48.0	37.9
덴마크	9	38.0	25.0	53.0	38.7
오스트리아	20	26.6	29.0	48.0	34.5
영국	21	19.6	35.0	47.0	33.9
벨기에	9	36.2	31.0	49.0	38.7
룩셈부르크	—	23.3	—	—	—
뉴질랜드	3	33.1	40.0	52.0	41.7
이탈리아	22	20.2	33.0	47.0	33.4
독일	6	30.6	38.0	50.0	39.5
그리스	26	14.7	27.0	49.0	30.2
한국	28	13.7	8.0	40.0	20.6
포르투갈	15	28.3	33.0	51.0	37.4
체코공화국	24	16.0	29.0	53.0	32.7
헝가리	16	11.1	37.0	61.0	36.4
폴란드	12	18.0	35.0	61.0	38.0
슬로바키아	18	19.3	28.0	58.0	35.1
멕시코	25	22.1	27.0	42.0	30.4
터키	29	9.1	8.0	33.0	16.7
29개국 평균	—	26.0	30.1	50.5	35.3

※ 주 : 1. 여성의원비율은 상하 양 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 비율이며, 여성 행정·고위관리 비율은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을 기준으로 구한 측정치임

2. 평균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9개국의 평균임

※ 자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UNDP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 내 위치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클수록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이 주로 여성노동자 및 여성집중직종을 중심으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 측정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것이다. OECD 국가통계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으로 구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산출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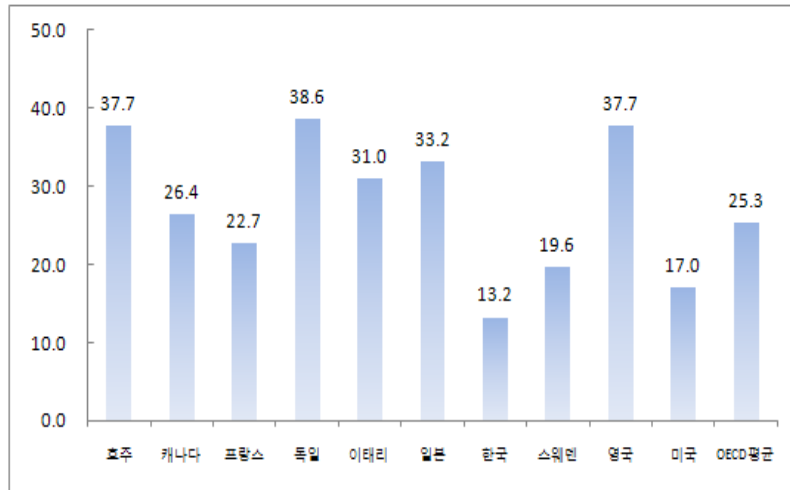
(단위: %)

	남					여				
	1994	2005	2006	2007	2008	1994	2005	2006	2007	2008
호 주	12.9	12.0	12.2	12.3	12.3	—	38.7	38.2	37.7	37.7
캐나다	10.8	10.8	10.9	11.0	11.3	28.8	26.9	26.2	26.1	26.4
프랑스	5.3	5.2	5.2	5.0	5.2	24.5	23.0	22.6	23.1	22.7
독 일	3.0	7.4	7.6	7.9	8.2	28.0	39.4	39.1	39.2	38.6
이태리	4.2	5.1	5.3	5.4	6.6	20.6	29.2	29.4	29.9	31.0
일 본	7.5	8.8	8.5	9.2	9.9	26.9	31.7	31.3	32.6	33.2
한 국	2.9	6.5	6.3	6.3	6.5	6.8	12.5	12.3	12.5	13.2
스웨덴	7.1	8.5	8.4	9.5	9.6	24.9	19.0	19.0	19.7	19.6
영 국	7.0	9.8	9.9	9.8	10.2	41.2	39.1	38.7	38.4	37.7
미 국	8.5	7.8	7.8	7.2	7.5	20.4	18.3	17.8	17.1	17.0
OECD 평균	5.1	7.3	7.4	7.4	7.7	19.7	25.3	25.1	25.3	25.3

※ 주 : 파트타임 고용자는 주당 30시간 이하의 임금 근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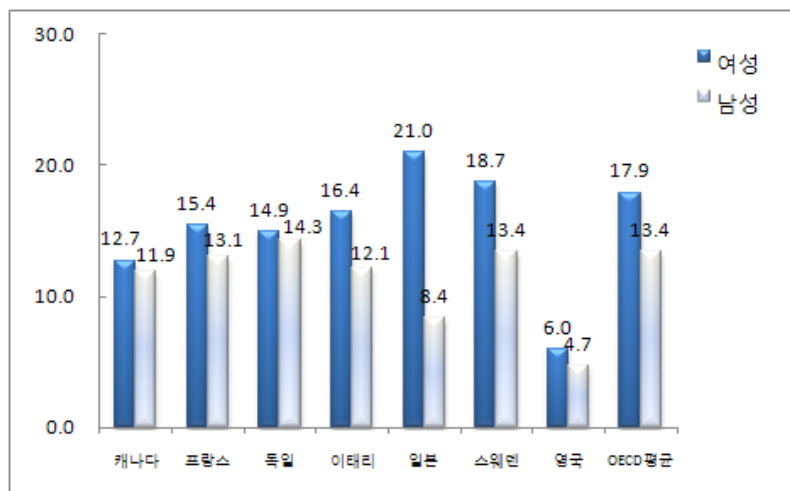
※ 자료 :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2009)

우선 서울시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도의 57.9%에서 2008년도의 57.7%로 근소하게 줄어들었다. 여전히 여성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7년도의 42.3%, 2008년도의 40%가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2008도의 경우 17.7% 정도가 발생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매우 낮은데 비해,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아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독일,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 그림 3-6 ■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성별 임시직 비율의 경우 OECD 국가들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OECD 국가 평균은 2008년도에 여성이 17.9%, 남성이 13.4%로 약 3.5% 정도 여성이 더 높다. 일본의 경우 성별 격차가 가장 커서, 여성이 21.0%이고 남성이 8.4%로 약 12.6% 정도 여성이 더 높다.



■ 그림 3-7 ■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8)

표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단위 : %)

국가	성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주	여	-	5.4	-	-	4.8	-	5.9	-	-
	남	-	4.3	-	-	3.9	-	4.5	-	-
캐나다	여	13.2	13.7	13.6	12.9	13.5	13.9	13.8	13.5	12.7
	남	11.8	12.0	12.3	12.0	12.0	12.5	12.3	12.3	11.9
프랑스	여	16.5	16.3	16.0	15.2	14.8	14.4	14.0	14.9	15.4
	남	14.6	13.6	12.5	11.7	11.4	12.2	12.8	12.4	13.1
독일	여	13.1	12.7	12.2	12.3	12.2	13.5	13.9	14.2	14.9
	남	12.5	12.2	11.8	12.1	12.7	14.0	14.4	14.2	14.3
이태리	여	12.2	11.5	12.1	11.8	14.9	14.8	15.3	16.6	16.4
	남	8.8	8.2	8.3	7.9	9.7	10.6	11.3	11.1	12.1
일본	여	20.9	21.1	22.1	22.3	22.2	22.3	22.0	21.7	21.0
	남	6.8	7.1	7.7	7.9	8.0	8.2	8.2	8.3	8.4
스웨덴	여	17.4	17.1	17.1	17.0	17.1	17.6	18.7	19.9	18.7
	남	13.0	12.4	12.3	12.3	13.1	13.9	14.8	15.0	13.4
영국	여	7.7	7.6	6.8	6.6	6.3	5.9	6.4	6.5	6.0
	남	5.9	5.9	5.5	5.2	5.2	5.2	4.9	5.2	4.7
미국	여	-	4.2	-	-	-	4.2	-	-	-
	남	-	3.9	-	-	-	4.2	-	-	-
OECD평균	여	15.2	11.1	15.2	16.5	16.7	13.2	17.7	18.3	17.9
	남	13.0	10.0	12.8	13.9	14.2	10.7	13.6	13.9	13.4

※ 자료 : OECD LFS database로 재구성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관련 지표들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나 대졸자 취업률, 성별 임금격차, 관리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세계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의 경제참여 부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세부 지표	지 수										
국가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경제 참여 및 기회	0.520	0.785	0.696	0.706	0.659	0.748	0.750	0.653	0.764	0.590	0.678
순 위	113	6	37	35	62	19	17	65	10	96	54
남녀 경제활동참여 비율	0.71	0.95	0.85	0.85	0.87	0.84	0.85	0.82	0.90	0.70	0.72
남녀 동일 직종 조건 임금 차이	0.55	0.72	0.58	0.64	0.47	0.68	0.67	0.61	0.75	0.51	0.59
남녀 근로 소득 차이	0.52	0.84	0.61	0.70	0.62	0.73	0.64	0.52	0.65	0.49	0.46
남녀 관리직 비율	0.10	0.46	0.61	0.51	0.61	0.59	0.74	0.46	0.59	0.50	0.86
남녀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	0.66	1.00	1.00	0.90	0.94	1.00	1.00	0.96	1.00	0.88	1.00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경제활동참여율, 임금차이, 승진차이 등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참여는 시장노동참여, 보수는 임금소득, 승진은 관리직(고위관리직, 기술직, 전문근로자) 중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함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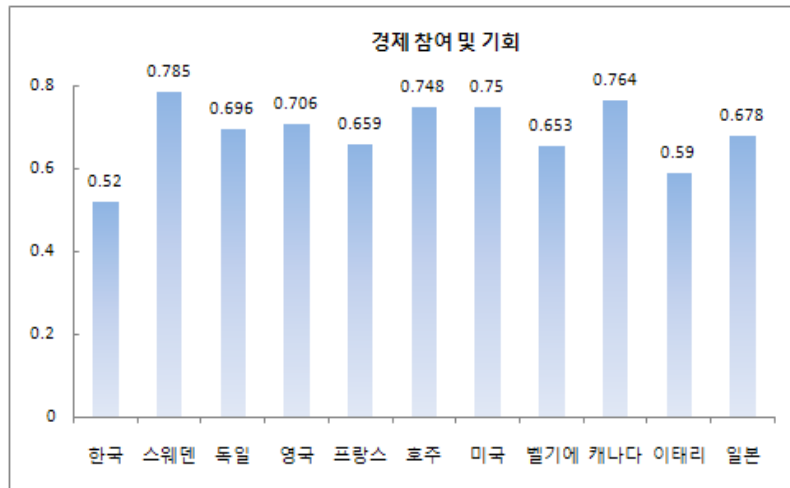


그림 3-8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GGG 지수는 경제부문(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부문(educational attainment), 정치세력부문(political empowerment), 건강부문(health and survival)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부문은 경제활동참여율, 동일조건 남녀임금차

이, 근로소득차이, 관리직 비율,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의 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지표에서 성별 격차(gender gap)를 구하여 국가별로 성별격차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30개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09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0개 국가 중 113위를 차지하여, 2008년 보고서에 나타난 순위인 110위보다 세 계단 하락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1%, 임금격차는 55%, 근로소득차이는 52%, 관리직 비율은 10%,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은 66%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경제활동참여비율 및 관리직 비율,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추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서울시의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2006년도의 26.5%, 2007년도의 25.7%, 2008년도의 25.3%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부록의 <표 2-1> 참조). 서울시 보육체계는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시설 중 국공립 시설 비율이나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비율은 낮은 편이다(조영미 외, 2008). 특히 2009년부터 실시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서울형 어린이집”사업을 통해 국공립 시설 수준을 갖춘 민간 시설에 대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공립시설의 확대보다는 민간을 통한 보육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보육시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의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률을 보면 한국은 전 연령대에서 보육 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보육시설 등록률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경제세력화를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요한 지표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및 서울 여성의 경제세력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므로,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돌봄노동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3-9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율(6세 이하 아동 대상)(2006)

(단위: %)

	3세 이하와 학령 전 3세에서 6세 이하 보육시설 등록률				3-5세 기대교육년수
	3세 이하	3세	4세	5세	3-5세
호주('05)	24.8	18.9	64.4	94.8	1.8
캐나다('06)	24.0	15.7	41.7	99.2	1.6
프랑스('06)	42.9	99.3	100.7	100.8	3.0
독일('06)	21.2	81.9	93.1	93.0	2.7
이탈리아('06)	28.6	96.6	100.7	101.1	3.0
일본('06)	28.3	71.5	94.8	96.5	2.6
한국('06)	37.7	73.0	79.0	86.0	2.4
스웨덴('06)	44.0	81.9	86.5	88.3	2.6
영국('06)	39.7	79.3	91.0	101.3	2.7
미국('05)	31.4	38.5	58.2	78.4	1.8

※ 자료 : OECD Family and Education databases 2009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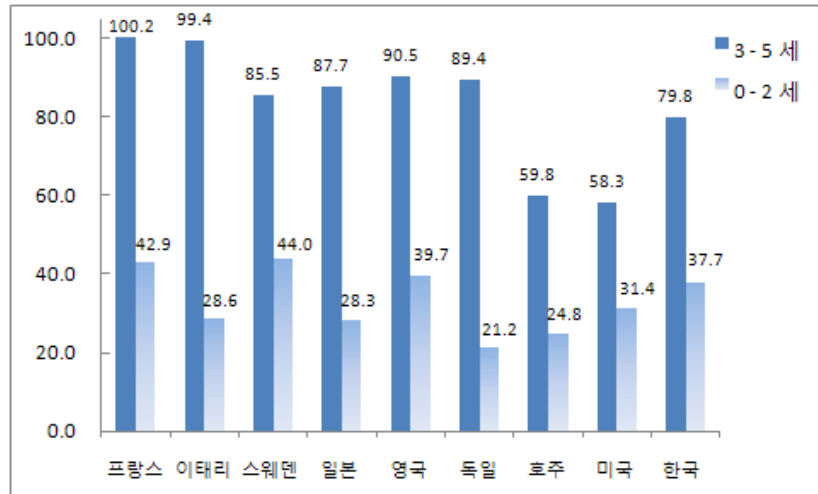
서울시의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2006년도에 24.2%, 2007년도에 29.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부록의 <표 2-3> 참조).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향상될 필요는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의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국가에 따라 편차가 크다. 덴마크가 70.5%로 가장 높고 네덜란드가 53.9%,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52.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낮은 국가들은 체코공화국이 2.6%,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4.9%, 멕시코가 5.8%이다. 이에 비하면 37.7%인 한국과 2006년도에 24.2%였던 서울시의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도 양질의 영아보육지원 제공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맞벌이 부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율(2006)

(단위: %)

국가	3 - 5 세	0 - 2 세
프랑스	100.2	42.9
이태리	99.4	28.6
벨기에	99.8	41.7
스페인	97.7	33.9
아이슬란드	95.0	52.9
뉴질랜드	94.5	37.9
덴마크	90.7	70.5
헝가리	86.9	10.5
스웨덴	85.5	44.0
일본	87.7	28.3
체코공화국	82.0	2.6
노르웨이	90.6	35.3
영국	90.5	39.7
독일	89.4	21.2
포르투갈	78.7	43.6
오스트리아	74.8	10.5
슬로바키아공화국	73.0	4.9
룩셈부르크	85.5	43.4
호주	59.8	24.8
네덜란드	58.0	53.9
아일랜드	48.6	25.2
멕시코	70.1	5.8
미국	58.3	31.4
한국	79.8	37.7
그리스	47.1	18.2
핀란드	67.8	25.0
스위스	48.2	-
폴란드	41.0	8.6
터키	16.3	-
캐나다	56.8	24.0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 2009



■ 그림 3-9 ■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3. 부부 가사노동시간

부부 가사노동시간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같은 돌봄 노동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 적절하게 분담되지 않는 한, 보육시설 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2004년도 여성의 총 가사시간은 4시간 47분이고, 남성의 총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11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36분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록의 <표 2-4>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남녀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비교는 자료 생산 년도가 국가마다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비시장 활동인 요리 및 청소시간과 양육시간 모두에 있어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요리 및 청소시간은 국가마다 성별 차이도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양육시간에서의 성별 차이는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OECD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사 및 양육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지만, 성별 차이는 한국과 서울에서 크게 나타나므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단위: 하루당 시, 분, %)

국가	년도	시장,비시장 전체활동시간		시장 활동 (전체시간 중 %)		특정 비시장 활동				기타 활동			
						요리 및 청소시간		양육시간		여가시간		자기 보살핌 기초시간 (잠자기 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호주	'97	7:15	6:58	30	62	-	-	-	-	-	-	-	-
캐나다	'05	7:57	7:51	40	59	1:54	0:48	0:35	0:17	5:28	5:53	10:49	10:26
스웨덴	'00-'01	7:32	7:43	42	59	2:04	0:59	0:29	0:16	5:16	5:37	10:39	10:12
일본	'96	6:33	6:03	43	93	-	-	-	-	-	-	-	-
프랑스	'98-'99	7:01	6:27	33	59	3:04	0:48	0:28	0:09	3:52	4:26	11:57	11:46
미국	'05	8:06	7:54	42	64	1:54	0:36	0:48	0:24	4:54	5:18	10:42	10:24
영국	'00-'01	7:41	7:32	35	62	2:34	0:59	0:33	0:12	5:11	5:44	10:43	10:22
이태리	'02-'03	8:08	6:51	26	70	4:02	0:31	0:28	0:11	4:15	5:29	11:12	11:16
독일	'01-'02	7:00	6:49	30	55	2:32	0:52	0:26	0:10	5:35	6:02	11:02	10:44
한국	'04	7:30	6:51	40	86	2:36	0:20	0:55	0:15	5:03	5:43	10:41	10:45

※ 주 : 시장활동 - 시장에서의 생산 활동

요리 및 청소시간 - 설거지, 청소, 세탁, 다림질 등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

양육시간 - 교육, 놀이를 비롯한 아이 돌보기 시간

여가시간 - 오락, 휴식, 운동, 컴퓨터 등 미디어 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시간

자기보살핌시간 - 잠자기, 식사 등 자기 보살핌 기초 활동시간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제3절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성폭력 범죄 피해 관련 지표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건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 관련 시설 수를 지표로 선정했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통해서 매년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를 알 수 있지만, 강간범죄만을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로 서울시의 강간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도에 3,569건이고 검거건수는 3,384건이며 검거인원은 3,709명이다(부록의 <표 4-6> 참조).

UNECE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국가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구분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및 서울시에서도 보다 정확한 성폭력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UNECE의 통계처럼 강간범죄에 대한 통계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강간미수나 성추행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캐나다							
전체	24,001(100.0)	24,044(100.0)	24,499(100.0)	23,514(100.0)	23,036(100.0)	23,521(100.0)	22,136(100.0)
여성	-(86.0)	-()	-()	-()	-()	-()	-()
남성	-(14.0)	-()	-()	-()	-()	-()	-()
독일							
전체	13,145(100.0)	13,725(100.0)	15,324(100.0)	15,702(100.0)	15,979(100.0)	14,977(100.0)	15,415(100.0)
여성	12,403(94.4)	12,961(94.4)	14,507(94.7)	14,753(94.0)	14,966(93.7)	15,105(94.2)	14,477(93.9)
남성	742(5.6)	764(5.6)	817(5.3)	949(6.0)	1,013(6.3)	872(5.8)	938(6.1)
영국							
전체	32,414(100.0)	35,121(100.0)	-	-	-	57,542(100.0)	57,542(100.0)
여성	28,230(87.1)	30,773(87.6)	-	-	-	-	-
남성	4,184(12.9)	4,348(12.4)	-	-	-	-	-

※ 주 : 성폭력 범죄(Sexual assault)는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이 포함됨

※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제4절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서울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대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제4대의 경우 12.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국가별 하원 또는 단원제 의원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한국은 13.4%, 서울은 12.3%로 프랑스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벨기에, 독일, 스웨덴의 경우 임계치인 30%를 넘고 있어 주목할 만하며,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47.3%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단위: %)

	2004		2005		2006		2007	
	하원(또는 단원제 의원)	상원	하원(또는 단원제 의원)	상원	하원(또는 단원제 의원)	상원	하원(또는 단원제 의원)	상원
벨기에	35.3	31.0	34.7	38.0	34.7	38.0	34.7	38.0
캐나다	20.6	32.4	21.1	37.1	20.8	35.0	20.8	35.0
프랑스	12.2	10.9	12.2	16.9	12.2	16.9	12.2	16.9
독 일	32.2	24.6	32.8	18.8	31.8	18.8	31.6	21.7
이태리	11.5	8.1	11.5	8.1	17.3	13.7	17.3	13.7
한 국	5.9	—	13.0	—	13.4	—	13.4	—
일 본	7.1	15.4	7.1	13.6	9.0	14.0	9.4	14.5
스웨덴	45.3	—	45.3	—	45.3	—	47.3	—
영 국	17.9	16.7	18.1	17.8	19.7	17.5	19.7	18.9
미 국	14.3	13.0	15.0	14.0	15.2	14.0	16.3	16.0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2005, 2006,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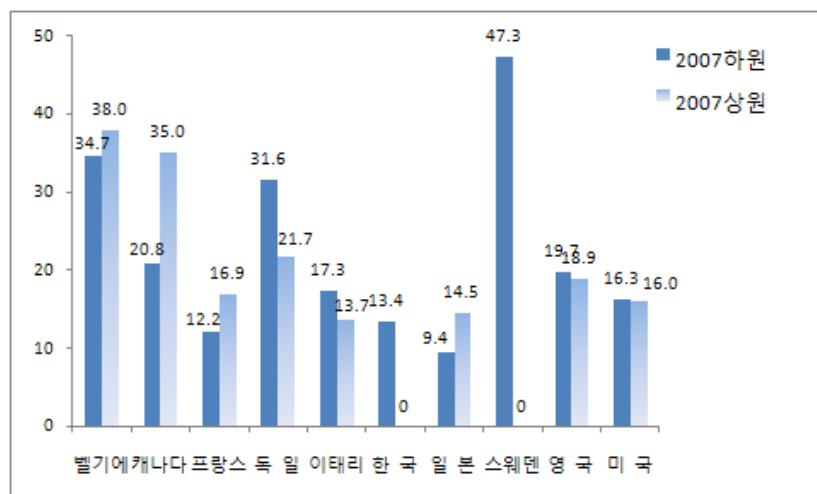


그림 3-10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서울시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는 데에는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기여한 바 크다 (조영미 외, 2008). 추후에는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서울시의 전제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6년도에 2.2%, 2007년도에 2.2%, 2008년도에 2.3%로 매우 낮은 비율일 뿐만 아니라 증가 정도도 상당히 미약하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국제 통계에서 고급 공무원의 정의는 정부 고위 행정가, 정부 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및 기타로 정의되거나 혹은 장관직, 주정부 및 연방 정부 대표로 정의되고 있어 서울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ECD 국가 중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계치인 30%를 꾸준히 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도 2000년도의 19.4%에서 2006년도에는 거의 10% 가량이 상승한 29.2%를 나타내고 있어 거의 임계치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증가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프랑스							
전체	3,188(100.0)	3,269(100.0)	3,376(100.0)	3,501(100.0)	3,573(100.0)	3,650(100.0)	-
여	381(12.0)	409(12.5)	435(12.9)	494(14.1)	532(14.9)	590(16.2)	-
남	2,807(88.0)	2,860(87.5)	2,941(87.1)	3,007(85.9)	3,041(85.1)	3,060(83.8)	-
스웨덴							
전체	-	970(100.0)	1,009(100.0)	1,015(100.0)	1,048(100.0)	1,051(100.0)	-
여	-	292(30.1)	327(32.4)	332(32.7)	347(33.1)	347(33.0)	-
남	-	678(69.9)	682(67.6)	683(67.3)	701(66.9)	704(67.0)	-
영국							
전체	3,720(100.0)	-	-	-	-	-	4,480(100.0)
여	720(19.4)	-	-	-	-	-	1,310(29.2)
남	3,000(80.6)	-	-	-	-	-	3,170(70.8)

(계속)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독일							
전체	70,297(100.0)	69,007(100.0)	65,306(100.0)	-	-	-	-
여	9,216(13.1)	10,478(15.2)	10,274(15.7)	-	-	-	-
남	61,081(86.9)	58,529(84.8)	55,032(84.3)	-	-	-	-
노르웨이							
전체	982(100.0)	-	-	-	-	-	-
여	169(17.2)	-	-	-	-	-	-
남	813(82.8)	-	-	-	-	-	-
스위스							
전체	9,068(100.0)	-	-	-	-	-	-
여	1,920(21.1)	-	-	-	-	-	-
남	7,148(78.8)	-	-	-	-	-	-
스페인							
전체	190(100.0)	190(100.0)	-	-	-	-	-
여	9(4.7)	9(4.7)	-	-	-	-	-
남	181(95.3)	181(95.3)	-	-	-	-	-

※ 주 : ISCO 1120(고급정부관료 - 정부 행정가, 정부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기타를 포함함)에 따라 정의함.

※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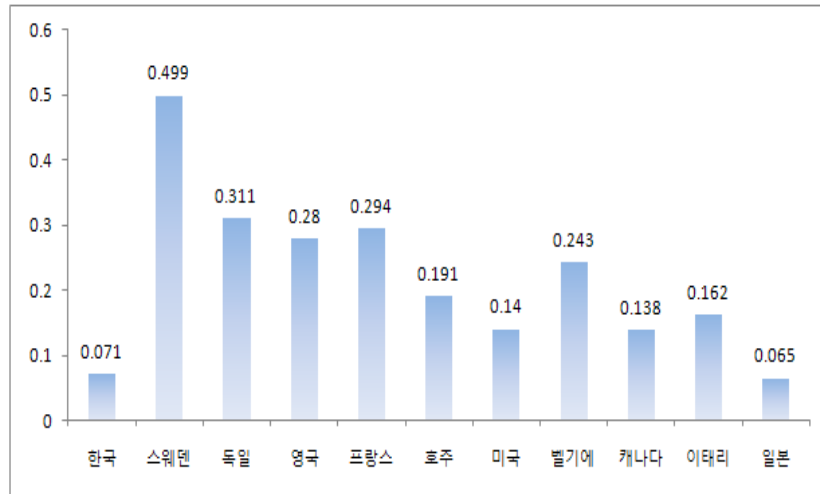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의 200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영역 성별격차지수는 130개국 중 104위로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도 보고서에서는 130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던 바, 오히려 순위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남녀 정부 수장의 수를 제외하고는 남녀 의회 의원 수와 남녀 장관 지수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표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세부 지표	지 수										
국 가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정치 영역 전체	0.071	0.499	0.311	0.280	0.294	0.191	0.140	0.243	0.138	0.162	0.065
순위	104	4	13	22	16	39	61	29	62	45	110
남녀 의회 의원 수	0.16	0.89	0.47	0.24	0.22	0.36	0.20	0.55	0.28	0.27	0.10
남녀 장관직 수	0.05	0.91	0.50	0.29	0.88	0.32	0.31	0.30	0.19	0.32	0.13
남녀 정부 수장의 수	0.02	0.00	0.09	0.30	0.02	0.00	0.00	0.00	0.01	0.00	0.00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장관, 의회의원, 최근 50년간 행정부 수장(수상 혹은 대통령) 등에서 남성 대비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함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



■ 그림 3-11 ■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N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방안

IV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방안

제1절 지표 개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민선 4기 동안 이루어진 서울시의 대표적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담아 민선 5기 동안 서울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도 및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지표는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와 사회조사 분야로 구성되어 행정통계 및 조사 통계 등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과 서울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 및 욕구를 직접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5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응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교수, 연구자, 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은 지표 명칭 및 지표 구성, 측정 방법의 적합성과 같이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전반적인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 세부지표와 산식의 적합성, 중요도(5점 척도), 부적합 사유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리고 사회조사 분야와 관련하여 대상 여성 집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와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1차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개발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각 영역 및 지표의 대표성과 측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정지를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성인지지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역시 측정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판단을 위한 도구로서 실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각 실·국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여성친화도시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시를 실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한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절 지표의 개념 및 구성

1. 지표의 명칭 및 개념

우선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라는 지표의 명칭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본 명칭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35명으로 77.7%,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11명으로 24.0%였다.

표 4-1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단위 : 명, %)

문항	적합	부적합	전체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명칭의 적합성	35 (77.7)	11 (24.0)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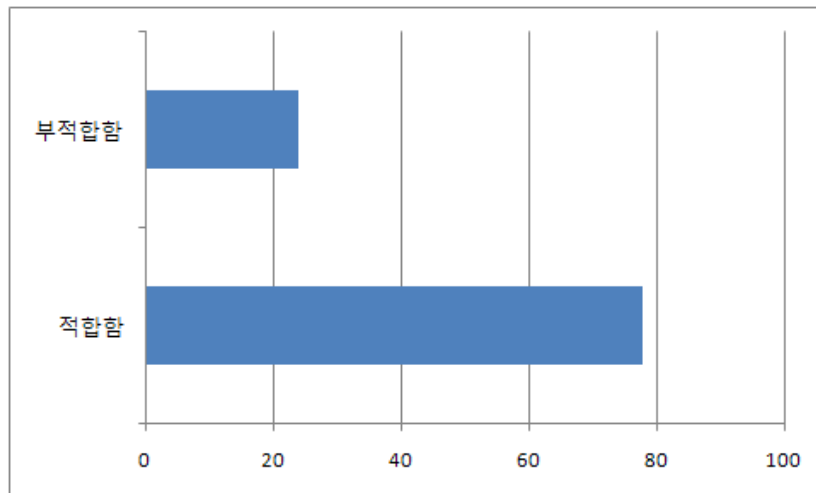


그림 4-1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은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읽혀 남성과 여성을 모두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성인지’ 등의 용어가 명칭에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여성친화”라는 용어에서의 ‘여성’은 흔히 ‘생물학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여성친화(women-friendly)” 개념은 정책의 주체나 연구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된다. ‘여성친화도시’는 한편에서는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도시 여성 삶 전반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조영미 외, 2009).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에서 “여성친화” 혹은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례로 여성부에서 정의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이다(이미원, 2009). 이러한 정의는 여성친화개념에 성평등한 참여와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 공간 정책이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같아야한다는 점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된다(조영미 외, 2009).

또한 충남 연기군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성친화 개념은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일상의 요구를 고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여성의 일상적 삶을 배려할 것, 여성과 아동의 안전감과 이동의 자유를 증진할 것, 소통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 법령과 지침,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한 정책 및 운영체계를 갖출 것, 도시 조성 시 여성주민과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할 것이 요구된다(김양희 외,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실제 도시 건설 및 조성을 위한 개념으로서 도시를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도시 여성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도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 정책의 행위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성들의 도시계획 참여가 확보되어야만 도시 정책이 여성친화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조영미 외, 2009).

해외의 경우 여성친화 개념은 성평등 정책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 각 도시의 여성친화정도 등급을 매기는 체크리스트를 매기고 이에 따라 각각의 도시들이 얼마나 여성친화적인지를 측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시의 여성친화

도시 개념은 정치, 행정, 시정 전반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로 정의한다 (조영미 외, 2009).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의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4-2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

구분	세부지표
정치영역	여성의 기본권, 성평등법, 정치대표성 제고를 위한 할당제 각종 위원회 및 공기업의 여성비율, 여성의원 네트워크 여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공공정책, 폭력/안전정책 성인지성 반영정도, 정부간 협력 등
행정조직	여성독립부서, 성주류화 전담 행정부서, 성평등 액션플랜 공무원 성인지 훈련, 성별분리통계, 도시 정책 성별영향평가 성별직종분리 해소, 시정정보 제공 및 요구 반영 정도
사회참여 및 협력	여성위원회, 의회 여성기구 구/동/마을 단위에서의 여성시민 참여절차, 여성자문단 시민교육 및 캠페인, 여성시민 활동 도시생활정책 자문을 위한 상설위원회 혹은 협력기구 마을 단위의 대중 집회 및 정기적 모임

※ 자료 : 조영미 외(2009)

표 4-3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

주요영역	세부지표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법, 스토킵법, 경찰인력 가정폭력 훈련의무규정 인구 1인당 가정폭력/성폭력 지원비용 경찰과 검찰의 성희롱 교육이수 법규정
아동지원정책	싱글맘 가구 중 아동수당/생활비 보조를 받는 비율 복합아동지원정책 수혜 비율
여성복지정책	한시적인급가족지원(TANF) 대상 여성/아동 범위 확대, 지원기간 연장, 가정폭력피해자 포함, 지원기준 완화, 월평균 수당 지급액수
고용 및 실업수당	주별 최저임금기준, 일시장애평가입 의무규정, 실업급여수여비율 유급가족휴가, 공공부문 성별임금형평성 보장여부
성적지향성 및 젠더 정체성	성적지향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법조항, 성적지향 증오범죄법 동성애 결혼금지법
재생산권	낙태허용, 비용지원, 의료보험에서 피임/불임치료 포함 게이/레즈비언 커플의 입양 허용, 학교 성교육 시행여부
제도적 지원	여성위원회 등

※ 자료 : 조영미 외(2009)

미국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소(IWPR)에서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 기초하여 “여성친화정책 : 여성자원 및 권리 체크리스트(Indicators of Women-Friendly Policy : Women's Resources and Rights Checklist)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지표에서는 여성친화정책 개념이 여성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영미 외, 2009). 이 지표의 세부지표 내용은 <표 4-3>과 같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혹은 여성친화정책의 개념을 전반적인 도시 정책으로 보는 개념에서건 여성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개념에서건 공통적이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여성의 일상적 요구에 대한 반영을 주요하게 다루는 등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여성친화 개념과 몬트리올 시의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 즉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4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의 전략과 행동수칙

전략	행동수칙
도시정책과 행정전반에 성주류화 확산	- 성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활용 - 정치, 행정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 - 풀뿌리조직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도시 정책과 도시 행정에 전문가로서 참여 - 일/가족의 균형 증진 - 남녀의 정형화된 역할 변화
경제위기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 향상	- 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여성기업 지원 - 경제위기 시 빈곤퇴치정책 강화 - 무보수 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불평등한 이중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 - 여성의 사회보장권과 연금수급권을 확대
여성이 안전한 도시건설	- 공공장소, 직장,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대응 - 대중에게 가정폭력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지역사회 조직과 비정부기구를 지원 - 여성에 의한 안전 감시를 시행하고, 도시 인프라와 도시 공간 설계를 개선하고,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
다양성과 여성의 창조성 확산	- 장애여성, 이주여성, 노인여성이 다양한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 모두가 도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 - 여성이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 - 예술작품이나 미디어에서 여성상을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의 지도적 역할을 표현하도록 지지, 장려 - 여성 예술가들에 의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명한 여성을 거리 이름, 조각상 등의 형태로 공공장소에서 드러냄

※ 자료 :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 홈페이지(<http://www.womenfriendlycity.or.kr>)

서울시의 경우 올해 10월 개최된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개념화하였다. 서울 선언문이 채택한 여성친화도시의 전략과 행동수칙은 위의 표와 같다.

서울 선언문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역시 물리적인 도시 공간 정책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추구하는 성평등한 도시 정책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선언문에서도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와 젠더 거버넌스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두고 있어 이것을 여성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주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영역 및 추진방향

영역	구분	세부영역	추진방향
일있는 서울	일	경제활동참가 증진	여성 일자리 창출, 직업교육, 취창업 지원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 동등임금제, 임금차별 audit, 승진 및 경력개발기회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대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임금차별 개선 - 건강/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여성노동자 조직화 - 성희롱 예방 및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 노동시간 유연화 - 유급육아/가족휴가 확대 - 돌봄 대상자 지원 - 남성의 돌봄휴가 참여 지원
돌보는 서울	돌봄	보육	- 양질의, 저렴한, 접근이 편한 보육시설 확대 - 맞춤보육서비스 제공 - 한부모, 싱글맘, 동거자녀, 입양자녀 우선 지원
		돌봄	- 노인돌봄 서비스 시설 확장 및 접근성 향상 - 돌봄노동자 노동 경감 지원 - 취약여성의 돌봄 우선 지원
넉넉한 서울	문화·여가	문화기회 및 문화창조	- 여성과 소녀에게 문화기회 및 접근성 제고 - 성별화된 문화, 정형화된 여가활동 도전
		문화가치 전환	이주민, 성적소수자, 비규범적 혼인에 대한 가치전환
안전한 서울	건강	보건서비스	보건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성별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인력, 전달체계 성별분석
	안전	도시안전	공공 공간의 안전 확보 시설 및 서비스 강화
		여성폭력	여성폭력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예방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에 동등한 참여
		생활환경	여성의 생활환경, 주거지, 세제 등 개선
편리한 서울	도시공간	교통 및 이동성	- 안전, barrier free한 교통시설 확보 - 노동시간, 돌봄노동, 주거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
		주거	- 취약계층 여성의 질 좋고 안정된 주거지 제공 - 소득, 연령, 가구규모 등에 따른 복합적 주거지 - 여성의 주택소유, 재산권 및 대출권 확보

영역	구분	세부영역	추진방향
성주류화 및 거버넌스	성주류화		○ 도시정책 전반에 여성의 시각 반영 ○ 도시정책에 여성 전문가,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거버넌스		○ 일상적인 생활지역 내에서 항시적인 여성참여 ○ 지역사회 여성이슈에 대한 감시 및 조사

※ 자료 : 조영미 외(2009)

한편 조영미 외(2009)는 민선 4기 동안 진행된 여행 프로젝트의 정착을 위한 이론화 방안을 연구하면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를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친화적인 도시 정책의 목표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시 공간 외의 고용, 돌봄, 일/가정 양립, 문화, 건강, 폭력 등의 영역에서 성차별을 해소하여 도시 여성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향유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 때의 “여성”이란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집단으로 범주화된다(조영미 외, 2009).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의 영역 및 추진방향은 위의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조영미 외(2009)의 개념화를 따르고자 한다. 즉,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때 필요한 정책영역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기존의 여성정책이 담보하였던 영역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된 영역인 경제, 돌봄, 사회통합, 문화, 건강, 폭력대응, 대표성 등에 더하여 교통안전,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가 도시 전반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수립에 있어 여성시민 및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영역의 이러한 확대는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함으로써 도시 정책이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주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 지표의 구성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된다. 하나는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이고 하나는 사회조사이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는 각종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세부지표로 구성, 서울시 성인지지표(GSI)와 마찬가지로 매년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조사 분야는 여성의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성 집단별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하는 가변지표로 활용한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의 분야별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6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측정방법
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로 구성 -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영역 일부 유지 -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 도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 영역 (6개) -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 공간 및 환경,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매년 측정 -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통계자료, 서울시 행정통계, 서울서베이 활용
② 사회조사	- 여성 집단별 주요 조사 항목으로 구성 - 여성 집단별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파악,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 - 가변지표로 활용 - 집단 (6개) - 비혼여성, 기혼여성, 여성노인, 여성한부모,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 여성 등)	-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 -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서울시 여성들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은 단일한(monolithic) 집단이 아니며, 여성들 간의 차이는 점점 더 세밀하고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성정책에서는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평가하려는 노력이 부재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민선 4기 대표적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한계는 중산층 전업주부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로는 이러한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통계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는 한 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의 각기 다른 경험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집단별 조사를 추가하였다.

둘째, 가변지표의 필요성 때문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나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현실을 측정,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고정지표만으로는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표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가변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에서는 사회조사 분야를 가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절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별 세부지표

1.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 구성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 구성은 조영미 외(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영역 및 추진방향에 따라 내부 연구자들이 초안을 구성한 뒤, 전문가 조사를 통해 1차안이 확정되었다. 영역은 크게 도시 여성의 삶에서 주요한 이슈인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과 도시공간의 여성친화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도시공간 및 환경’, 그리고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의 일종의 방법론으로서의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로 구성되었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과 세부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4-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영역 및 세부영역

영역	세부영역
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일-가족 양립
돌봄	아동보육지원,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
문화 및 여가	문화창조활동 지원, 문화 및 여가향유
건강 및 안전	건강서비스 증진,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도시공간 및 환경	교통안전 및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젠더 거버넌스

우선 ‘일’ 영역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일-가족 양립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의 현실을 파악하고 평등한 노동시장 및 안정적 일자리의 제공과 일가족 양립 지원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돌봄’영역에서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돌봄의 대상을 아동과 노인,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및 여가’ 영역에서는 문화창조와 문화 및 여가 향유의 부분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고 서울 여성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 및 안전’ 영역은 건강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를 통해 서울 여성의 건강 실천 정도 및 서비스 접근성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대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공간 및 환경’은 전문가 조사 당시 ‘도시공간구성 및 지속 가능성’이었으나, 조사 결과 보다 분명한 영역명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교통과 주거, 환경문제에 대한 서울 시민의 안전 정도와 의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주류화 강화 정도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 정도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인프라 구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영역별 세부지표

(1) 일

일 영역은 다시 세 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일-가족 양립이 그것이다.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4-8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일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text{여성 경제활동인구} / 15\text{세 이상 여성인구}) \times 100$	4.5	
	성별 취업률 (학력연령-장애유무)	각각의 산식 적용	4.0	‘성별 대졸자 취업률’에서 변경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text{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text{전체 사업체 수}) \times 100$	3.6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성별 평균임금비	$(\text{여성 월평균임금} / \text{남성 월평균 임금}) \times 100$	4.5	
	성별 관리직 비율	$(\text{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text{전 직종 여성 수}) \times 100$	4.3	
	성별 정규직 비율	$(\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text{여성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4.38	
일-가족 양립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전체 육아휴직자 수}) \times 100$	4.0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text{여성 육아휴직자 수} / \text{산전후휴가 급여자 수}) \times 100$	4.1	
	부부 가사노동 시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4.1	‘부부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에서 변경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우선 세부 영역인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에서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취업률, 그리고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을 측정한다. 성별 취업률의 경우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성별 대졸자 취업률’이었으나, 대졸자 취업률만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취업률이 세부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장애여성의 취업률을 주요한 지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유무’를 변수로 추가하였다.

세부영역인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에서는 성별 평균임금비와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조사 당시 이 세부영역 내에는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중요도의 평균 점수가 3.1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노조 간부의 구성비가 아닌 노조원의 성별 구성비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세부영역인 일-가족 양립 영역에서는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산전후 휴가 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부부 가사노동시간으로 측정하여 대표적인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의 활용도와 가사노동 및 양육에 있어 남성과의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문가 조사 당시 포함되었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다소 성급한 지표이며,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을 통해 추정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또한 부부 가사노동시간은 전문가 조사 당시 ‘부부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였으나 태도나 의식이 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변경되었다. 부부 가사노동시간은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지표이고, 실제 부부간 가사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는 하나,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주기가 길어서 매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다소 활용도가 낮다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돌봄

돌봄 영역은 두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아동보육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이 그것이다. 세부영역별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보육지원에서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과 서울형 어린이집⁴⁾ 이용 아동비율, 아이돌보미 지원 비율을 통해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4)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인절차에 따른 기준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에 한해 공인마크를 부여하며 공공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칭한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등에 관한 92개 평가항목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통해 국공립 시설을 통한 지원과 민간을 통한 지원, 재가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고르게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맞춤형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추가되어 있었
으나, 중복적 지표라는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지원비율은 전문가
조사 당시 없었던 지표이나, 시설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
라 추가하였다.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의 경우 조사 당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비율’이었으나,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른 지표와 통일성 있게 이용 아동비율로 변
경되었다.

표 4-9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돌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아동보육 지원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text{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4.3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text{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4.0	‘서울형 어린이집 비율’에서 변경
	아이돌보미 지원 비율	$(\text{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 / \text{재가 아동 수}) \times 100$	-	전문가 및 서울시 제안사항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text{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여성 이용자 수} / \text{전체 여성 노인 수}) \times 100$	4.1	‘노인돌봄서비스시 설 이용율’에서 변경
	여성장애인도우미 (홈헬퍼) 자원사업 이용율	$(\text{홈헬퍼 이용자 수} / \text{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수}) \times 100$	4.2	산식의 모집단 변경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의 경우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노인돌봄지원과 장애인 돌봄
지원의 두 개의 세부 영역이었고, 노인돌봄지원에는 ‘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율’과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이용율’의 두 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율은 노인인구 중 여성인구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이
용율’은 성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표명 및 산식이 수정되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뉘었던 세부 영역을 지표수가 각기 한 개씩으로 줄어들어 따라 하나의
영역으로 합쳤다. 홈헬퍼 지원사업 이용률은 원래 산식의 모집단이 ‘등록 여성장애인 수’
였으나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대상 여성 장애인 수’로 변경하였다.

(3) 문화 및 여가

문화 및 여가 영역에는 두 개의 세부영역인 문화창조 활동지원과 문화 및 여가 향유가 포함되어 있다. 세부영역별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1차안은 다음과 같다.

표 4-10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문화 및 여가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문화창조 활동 지원	성별 문화예술사업 종사인력비율	$(\text{여성 문화예술사업종사자 수} / \text{전체 문화예술사업 종사자 수}) \times 100$	3.7	
	문화창조지원사업 지원자 중 여성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	전문가 제안 사항
문화 및 여가향유	성별 여가활동 비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3.7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3.7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	서울시 제안 사항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우선 문화창조활동지원에서는 성별 문화예술사업 종사인력비율과 문화창조지원사업 지원자 중 여성비율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조사 당시 포함했었던 ‘문화예술관련 전공분야 졸업생 중 남성대비 여성 취업률’ 지표는 문화창조활동 지원을 인력 및 취업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적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에 따라 ‘문화창조지원사업 지원자 중 여성비율’을 추가하였다. 이 지표의 경우 서울시 내부자료를 통해 파악하여야 하는 바, 행정통계가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될 것을 전제한다.

문화 및 여가향유 부분에서는 성별 여가활동 비율과 비용,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라 측정하기로 한다. 성별 여가활동 비율 및 비용은 서울서베이의 격년제 조사항목이어서 매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사회조사 부분에서 여가 활용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건강 및 안전

건강 및 안전 영역에는 보건 서비스 증진, 그리고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등 두 개의 세부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영역별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1차안으로 확정된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4-11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건강 및 안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건강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4.3	
	성별 유병률	(기간내 (2주간) 유병자 / 조사 대상 인구) × 100	3.4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3.9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4.4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가정폭력 발생 건수 + 성폭력 발생 건수	-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수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여성 폭력 관련 상담 건수 (연령별, 장애유무별)	서울시 내부자료	-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우선 세부영역인 건강 서비스 증진에서는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유병률,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한다. 본래 이 세부영역의 명칭은 ‘보건 서비스 증진’이었으나, ‘보건’을 ‘건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변경되었다.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에서는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여성 폭력 범죄 발생 건수,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수, 여성 폭력 관련 상담 건수 등을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 당시 이 세부영역은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와 함께 ‘성폭력 관련 시설 수(중요도 평균점수 3.9점)’,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중요도 평균점수 3.9점)’,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중요도 평균점수 3.9점)’, ‘아동성폭력 상담건수(중요도 평균점수 4.2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상담 건수의 증가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어렵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폭력 범죄 발생 건수 지표를 신설하여 지표 측정결과를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설 수 관련 지표 두 개와 상담 건수 관련 지표 두 개를 각각 묶어 지표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5) 도시공간 및 환경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에는 교통안전 및 주거안전, 환경 등 두 개의 세부영역이 포함된

다. 세부영역별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1차안으로 확정된 세부지표 및 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교통 안전 및 주거 안정	성별 교통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3.9	
	영구임대주택 여성세대주 입주 비율	(여성 세대주 수 / 대상 여성 세대주 수) × 100	4.1	산식의 모집단 변경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3.8	
	성별 수돗물 안전성 인식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	
환경	성별 농약 오염에 대한 안전성 인식	사회통계조사 결과	-	

우선 교통안전 및 주거안정 영역에서는 성별 교통만족도와 영구임대주택 여성 세대주 입주 비율,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교통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 여성의 만족도와 빈곤 여성의 주거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여성 세대주 입주 비율은 전문가 조사 당시 ‘영구임대주택 성별 세대주 비율’이었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입주 대상 여성 중 어느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변경하였다. 또한 조사 당시 이 영역에 포함되었던 ‘저상버스 증가율’은 젠더 관련성이 낮고 저상버스의 증가가 반드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환경 영역에는 성별 수돗물 안전성 인식과 성별 농약 오염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포함하였다. 본래 이 영역에 포함되었던 ‘대기오염도’, ‘1인당 녹지비율’, ‘근린공원 수’는 젠더 관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다. 대신 측정가능성을 고려하여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이 영역의 경우 세부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쉽지 않았던 영역인데, 활용 가능한 조사결과나 통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6)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은 성주류화 강화, 여성 대표성 제고, 젠더 거버넌스 확대의 세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세부영역별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된 1차안의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4-1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평균	비고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국 수 / 서울시 전체 실국 수) × 100	4.2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당해연도 정책 건수 / 전년도 정책 건수) × 100	4.2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성인지교육 이수자 수 / 전체 공무원 수) × 100	-	전문가 제안 사항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4.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4.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4.2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 100	4.2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 100	4.2	

※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성주류화 강화 영역에서는 성인지 예산 도입률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등 세 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은 조사 당시 없었던 항목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신설하였다. 그리고 조사 당시에는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평균점수 향상율’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치구 여성정책 자체의 향상 여부를 평균점수 향상 여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은 광역의회 의원 비율과 기초의회 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 영역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과 자치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로 구성하였다.

제4절 사회조사 : 집단별 조사항목

1. 조사 대상 집단 구성

사회조사를 위한 대상 집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크게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혼인여부에 따라 비혼여성과 기혼여성을 구분하고,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점차 커져가는 노인인구집단의 경험을 주요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여성노인집단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한부모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보아 별도 분류하였으며, 장애여성 및 미혼모, 성적소수자, 이주여성 등은 기타로 묶어 구분하였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비혼여성집단은 다시 십대 청소년과 취업/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십대 청소년 집단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었으나, 조사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신설하였다. 십대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겠다. 여기서 소득수준은 빈곤가정 자녀 및 소년가장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변수이다. 또한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구분하여 취업여부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연령과 소득수준이 기본 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 즉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에 따라 취업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혼여성집단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는 가족동거여부 등이 있을 수 있겠다.

■ 표 4-14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변수 예시
비혼여성	십대 청소년	재학 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기혼여성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여성노인	취업 여성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비취업 여성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여성한부모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기타	장애여성	연령별, 취업유무별, 혼인여부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미혼모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성적소수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자녀유무별

기혼여성은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업 여성의 경우 고용형태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야 하며, 연령 및 자녀유무, 소득수준 등의 변수는 공통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 여부에 따라 소분류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여성노인집단과 여성한부모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두 집단 모두 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주요한 변수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외에 여성노인집단은 소득수준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성한부모집단은 연령과 소득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집단에는 장애여성, 미혼모, 성적소수자, 이주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여성은 전문가 조사 당시에는 없었던 분류인데, 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사가 필요한 대상집단이라고 지적하여 포함되었다. 이 집단 모두 연령과 취업유무, 소득수준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여성의 경우 혼인여부와 자녀유무가,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유무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한 주요 변수는 예시이므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변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위의 주요변수들은 사회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변수이므로 유지하고 이 밖에 필요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2. 집단별 조사항목

(1) 비혼여성집단

비혼여성집단에 대한 조사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혼여성집단 내 소분류인 십대 청소년, 비취업 여성, 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십대 청소년 내에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이나 소녀 가장 등의 경험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취업 여성 내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경험 및 욕구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표 4-15 사회조사분야 비혼여성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십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성희롱 포함), 용돈 마련 방법 (소녀가장의 경우) 빈곤 실태, 생활비 마련 방법
	비취업 여성	취업 준비 방법, 취업을 위해 소요하는 사교육비 비용, 직업전망
	취업 여성	취업준비 기간,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계속)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돌봄	십대 청소년	(소녀가장의 경우) 노인이나 동생 등 가족구성원 돌봄 실태
	비취업, 취업여성	돌봄 실태,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문화 및 여가	십대청소년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청소년 문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만족도
	비취업, 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건강 및 안전	십대 청소년	피임방법 인지여부, (빈곤여성의 경우)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비취업 여성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유방암 검진 여부 포함)
	취업 여성	직업 관련 질환 등 건강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유방암 검진 여부 포함)
도시공간 및 환경	십대 청소년	등하교길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학교 주변 전반적 도시 안전도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빈곤여성의 경우) 주거 실태, 먹거리 안전 문제
	비취업, 취업 여성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희망하는 거주형태 및 준비방법,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 만족도

(2) 기혼여성집단

기혼여성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취업 여성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경험도 구분되어야 한다.

표 4-16 사회조사분야 기혼여성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부 및 기간 등, 취창업 희망 여부, 취창업 준비방법 본인명의 재산 유무 및 정도
	취업 여성	남편과의 가사분담 및 양육분담 정도와 방법, 본인명의 재산 유무 및 정도,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돌봄	비취업 여성	사교육비 부담 정도 및 마련방법, 노인부양비 및 경조사비 지출 정도, 가족 생애주기별 돌봄 실태, 자녀보육방법, 자녀교육 만족도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 및 사유 등
	취업 여성	사교육비 부담 정도, 노인부양비 및 경조사비 지출 정도, 가족 생애주기별 돌봄 실태, 자녀보육방법, 자녀교육 만족도 (무자녀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계획 및 사유 등

(계속)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문화 및 여가	비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자기계발 투자 정도
	취업 여성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건강 및 안전	비취업 여성	자녀 안전 체감도,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 검진 실천
	취업 여성	자녀 안전 체감도,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및 건강관리 방법, 건강 검진 실천, 직업 관련 질환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3) 여성노인집단

여성노인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여성노인집단에 대한 조사에서는 취업 여부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동거인(자녀 등) 유무, 배우자 유무 등을 주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17 사회조사분야 여성노인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용돈 및 생활비 마련 방법, 취업 희망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취업 여성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근무형태, 월 소득, 급여 만족도, 이직 및 전직 희망 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등
돌봄	비취업 여성	손자녀 돌봄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 및 만족도, 요양사 이용여부 및 만족도, 가족과의 갈등
	취업 여성	가족구성원 돌봄 문제,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갈등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네트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공통	건강관리 방법, 건강검진 실천, 질환 유무,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희망하는 거주형태,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4) 여성 한부모

여성 한부모집단의 조사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비취업 여성, 취업 여성으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여성 한부모 집단의 경우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변수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4-18 사회조사분야 여성한부모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비취업 여성	양육비 및 생활비 해결 방법, 취창업 희망여부, 원하는 일자리 및 고용형태, 취업 준비 방법 등, 미래계획 및 노후준비 방법
	취업 여성	고용형태, 소득 수준,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 방법,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장기적 직업 전망, 직장 내 차별(직장내 성희롱 포함), 경제활동만족도, 직무향상교육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도와 수요, 직장내 성희롱 고충처리제도 유무 및 실효성 미래계획 및 노후준비 방법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방법
돌봄	비취업 여성	자녀와의 갈등 문제, 혼자 사는 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취업 여성	양육비 해결 방법, 자녀와의 갈등 문제, 혼자 사는 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정서적 네트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비취업 여성	건강검진 실천 등 건강관리 문제
	취업 여성	건강검진 실천 등 건강관리 문제, 직업 관련 질환 등
도시공간 및 환경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울 정주의식, 지역사회 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수혜여부와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5)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여성 집단의 사회조사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에 따라 각각의 집단별로 조사 항목을 나열하였다. 각각의 집단에서 취업 여부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 변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아래의 조사 항목은 예시이므로 실제 조사 시 필요에

따라 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

표 4-19 사회조사분야 기타집단 조사항목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일	장애여성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비취업 여성의 경우) 자활센터 및 직업훈련원 이용 정도 및 만족도,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활용 정도, 원하는 일자리 및 근무형태,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장애인 차별 문제, 일-가족 양립문제
	미혼모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직업훈련기관 이용 정도 및 만족도,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활용 정도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미혼모 차별 인식, 일-가족 양립문제
	성적 소수자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대책 준비, 취창업 희망여부, 취업 준비 방법 (취업 여성의 경우)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이주여성	하고 있는 일, 고용형태, 근무형태, 월평균 소득, 경제활동만족도, 직장 내 성차별 및 인종차별 등, 근무환경 안전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비취업 여성) 생활비 마련방법, 노후대책 및 준비, 취업 희망 여부, 구직활동
돌봄	장애여성	홈ヘルパー 이용 만족도,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욕구,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해결 방법, 자녀 양육비용 마련 방법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욕구,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해결 방법, 자녀 양육 비용 마련 방법
	성적 소수자	생애주기별 가족구성원(동거인 포함) 돌봄 문제, 성적 소수자의 돌봄 이슈 및 지원 요구
	이주여성	자녀와의 갈등 문제, 자녀 학업 문제, 자녀의 체류자격 문제(미등록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문화 및 여가	공통	문화 및 여가 방법과 비용, 문화생활 및 여가향유 만족도, 친구 등 정서적 네트워크 형성 방안
건강 및 안전	장애여성	건강실태,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건강 관련 서비스 욕구 성폭력 경험 및 성폭력 대처 방법, 건강검진 실태
	미혼모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직업 관련 질환 여부, 건강검진 실태
	성적 소수자	건강관리 및 건강실천 방법, 성소수자의 건강 이슈, 직업 관련 질환 여부, 성폭력 경험 및 성폭력 대처방법, 건강검진 실태
	이주여성	산재 및 직업 관련 질환 여부, 건강관리 및 건강 실천 방법, 성폭력 경험 및 성폭력 대처방법, 병원 이용 여부, 건강검진 실태

(계속)

영역	소분류	조사항목
도시공간 및 환경	장애여성	교통 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마을버스, 지하철 등) 이용 만족도, 무상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주거지원서비스 필요성
	공통	주거지 선택 시 고려사항, 교통만족도 및 안전도,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 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복지 정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수혜여부와 만족도
	이주여성	주거환경 실태, 교통 만족도 및 안전도, 병원이나 은행, 관공서 등 주요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전반적 도시 안전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젠더 거버넌스	공통	시민사회단체 참여여부(특히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단체), 지역 사회 관련 활동 참여여부, 시정만족도,

이상으로 사회조사 대상 집단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 대상 집단은 상호 중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항목이 단일한 이슈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이 전업주부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성 노인이면서 성적 소수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목적과 조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바에 따라 조사 항목은 재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V 결론

지금까지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양성평등지수 산출을 통해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과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를 통해 서울시의 현 수준을 가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발전방안으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제안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1차안을 확정,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지표값을 통해서 볼 때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졸자 취업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는 국제지표와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대조적이다. 서울시의 대졸자 취업률 역시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취업률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문제이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낮다면, 이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시장 개선 노력보다는 여성, 특히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인적자원 개발 이외에 여성에 대한 시장의 차별적 인식, 성별 임금 격차, 가사노동 및 양육노동 분담, 일-가족 양립 지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계성별격차 지수의 경제참여 부문 순위를 현재의 113위보다 상승시키는 데에 서울시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역시 그 중요성에 비해 개선 정도가 미약한 영역이다. 특히 이 영역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문제적이다. 이 지표의 경우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래서 개선의 여지를 크게 가질 수 있는 지표이므로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과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또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이 지표들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 역시 국제 지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이들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더욱 비교가 된다. 세계성별격차지수의 정치영역 부문에서 한국은 130개국 중 104위에 기록되고 있는 바, 추후 이 영역의 지표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순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들이 2006년도에 설정한 목표치를 웃돌거나 근사하게 접근함으로써 개선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다만 여성 노인 취업률의 경우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는 달성률을 보이다가 2008년도에 급격히 그 비율이 하락한 지표이다. 따라서 목표치에 도달했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치를 넘어서거나 거의 도달한 지표라고 하여 성 형평성을 완성한 지표가 아니므로, 나머지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목표치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설정된 것은 아닌지 판단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영역도 개선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혹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울 여성의 사회적·문화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영역에서 개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도시 위험 체감도는 서울시의 정책적 개입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의 노력이 기대된다. 특히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집중해 온 만큼 추후 도시공간의 편의성이나 쾌적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함으로써 지표 측정 결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과 함께 성인지지표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서울시 여성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지표 개발을 통해 차기 년도부터 시작될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는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제안하였다.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지표로서,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을 새로이 추가하고 여성친화도시

의 방법론으로서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표 측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지표처럼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측정 지표 외에 사회조사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지표의 측정을 통해 서울 여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현재로서는 확정안이 아니다. 추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모습과 기능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진 지표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현재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서울여행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바, 이 서울여행지수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어질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지표의 생명은 측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시의 성평등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으므로 실제 정책과의 연관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표의 존재 의미를 확립하는 일이라 사료된다. 추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층 실효성 높은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김양희 외(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김창연 외(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창연(2008), 「서울시 행정부문 성별분리통계 틀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문유경 외(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Ⅰ) :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송다영 외(2008),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
- 이미원(2009), 「여성친화 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여성부.
- 장미혜 외(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조영미 외(2006a),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재단법인 서울여성.
- 조영미 외(2006b),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재단법인 서울여성.
- 조영미 외(2007),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영미 외(2008),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 개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영미 외(2009), 「여행(女幸) 프로젝트 정착을 위한 이론화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경미 외(2009), 「부산여성 생활조사 I : 지표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도 의회의원선거총람」, 「구·시·군 의원 선거총람」
- 통계청 홈페이지, 「생활시간조사보고서」
- 통계청 홈페이지,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홈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OECD(2009),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OECD,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OECD,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LFS).
OECD, OECD Family and Education databases.
UNDP(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DP(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DP(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DP(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ECE,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World Economy Forum(2009),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부록 1]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세부지표별 통계 및 관련 통계

1.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ex)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남성인구) * 100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sex (%) =

(Women(me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all women(men), 15 years or over) * 100

〈표1-1〉 서울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¹⁾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²⁾	취업률 ³⁾	실업률 ⁴⁾
		계	취업자	실업자				
서울시								
2003	8 027	4 981	4 753	228	3 046	62.1	59.2	4.6
2004	8 039	5 068	4 831	237	2 971	63.0	60.1	4.7
2005	8 115	5 135	4 890	246	2 980	63.3	60.3	4.8
2006	8 161	5 137	4 905	232	3 023	63.0	60.1	4.5
2007	8 187	5 148	4 940	207	3 040	62.9	59.8	4.0
2008	8 258	5 122	4 922	201	3 136	62.0	59.6	3.9
여성								
2003	4 119	2 060	1 972	88	2 060	50.0	47.9	4.3
2004	4 129	2 131	2 039	91	1 998	51.6	49.4	4.3
2005	4 170	2 167	2 068	99	2 004	52.0	49.6	4.6
2006	4 199	2 179	2 090	89	2 020	51.9	49.8	4.1
2007	4 215	2 179	2 107	72	2 036	51.7	50.0	3.3
2008	4 246	2 167	2 095	72	2 079	51.0	49.3	3.3
남성								
2003	3 908	2 921	2 781	140	986	74.8	71.2	4.8
2004	3 910	2 937	2 792	146	973	75.1	71.4	5.0
2005	3 945	2 969	2 822	147	976	75.3	71.5	4.9
2006	3 961	2 958	2 815	143	1 003	74.7	71.1	4.9
2007	3 972	2 969	2 834	135	1 003	74.7	71.3	4.6
2008	4 012	2 955	2 827	129	1 057	73.7	70.5	4.3

※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교도소 수감자, 직업군인, 외국인, 공익근무요원 등은 제외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100

3) 취업률(%) = 취업자 / 서울시 15세 이상 전체 인구 *100

4)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of sex)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 * 100
남성 대졸자 취업률(%) =
(남성취업자/남성졸업자-진학자-군입대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 * 100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by sex(%) =
(No. of employed women(men) college graduates/ No. of women(men) college graduates)

〈표 1-2〉 서울시 성별 졸업자 및 취업자수

(단위: 명, %)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불가능자	취업률
2004	여	37,169	16,827	5,330	*	—	—	52.9
	남	34,203	17,836	5,405	794	—	—	63.7
2005	여	36,843	21,033	5,246	*	—	—	66.7
	남	33,060	19,490	5,113	835	—	—	71.9
2006	여	36,661	20,997	4,790	*	189	44	66.4
	남	32,807	19,963	4,826	632	138	12	73.4
2007	여	37,325	20,851	4,929	*	267	29	65.0
	남	34,105	20,723	4,968	533	151	7	72.9
2008	여	36,067	20,262	4,633	*	345	21	65.2
	남	32,445	18,646	4,758	1,566	212	5	72.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성별 평균 임금비(%)= (여성 월평균임금/남성 월평균임금) * 100

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to-male ratio =

(Women 's Average Monthly Wage / Men's Average Monthly Wage) * 100

〈표1-3〉 서울시 산업별 성별 평균 임금 및 임금비

(단위: 명, %)

	월급여총액 (1)정액급여+(2)초과급여			특별급여(3)			월평균임금 (1)+(2)+(3)			남녀 임금비 (3/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3 상반기	1,930,776	1,424,288	2,179,567	455,441	310,797	526,491	2,386,217	1,735,085	2,706,058	64.1
2004 상반기	2,049,824	1,514,932	2,331,475	450,775	292,481	534,125	2,500,599	1,807,413	2,865,600	63.1
2005 상반기	2,156,833	1,605,654	2,444,623	426,045	282,708	500,887	2,582,878	1,888,362	2,945,510	64.1
2006 상반기	2,293,368	1,706,978	2,603,299	445,353	297,111	523,704	2,738,721	2,004,089	3,127,003	64.1
2007 .12	2,430,462	1,806,423	2,764,093	422,789	489,648	297,735	2,853,251	2,104,158	3,253,741	64.7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성별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직종 여성 근로자 수) * 100

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

(No. of women(men) in legislators, managers or higher, professionals , administrative position/ No. of total employed women(men) * 100

〈표 1-4〉 서울시 성별 관리직 비율

(단위: 천명, %)

		총수	의회의원 고위임직 원 및 관리자	전문 가	기술공 및 준전 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 업 및 어 업 관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직 비율
2003	여	1,972	13	227	187	440	390	329	2	168	21	195	21.7
	남	2,781	179	336	457	351	223	307	4	435	260	229	35.0
2004	여	2,039	14	231	197	455	431	312	1	161	24	215	21.7
	남	2,792	165	338	484	327	210	304	5	453	273	233	35.4
2005	여	2,068	12	245	197	450	453	310	1	144	26	229	22.0
	남	2,822	144	337	508	314	223	278	3	474	271	271	35.0
2006	여	2,091	10	265	202	458	455	301	2	122	34	241	22.8
	남	2,815	131	357	505	314	222	267	4	458	271	287	35.3
2007	여	2,107	16	260	236	477	442	292	3	118	27	237	24.3
	남	2,834	123	378	526	302	205	280	3	445	274	298	36.2
2008	여	2,095	15	504	—	456	376	327	4	112	29	276	24.8
	남	2,827	118	776	—	353	215	384	1	392	290	296	31.6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5) 성별 정규직 비율(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여성임금근로자 수) * 100
 남성정규직비율(%) = (남성 상용직 근로자수 / 남성임금근로자 수) * 100
 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
 (No. of women(men) regular workers / total employed * 100

〈표 1-5〉 서울시 성별 정규직 비율

(단위: 천명, %)

		총수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2003	여	1,972	314	220	1,438	510	694	234	35,5	64,5
	남	2,781	859	27	1,895	1,063	587	246	56,0	44,0
2004	여	2,039	322	191	1,526	551	713	262	36,1	63,9
	남	2,792	859	28	1,904	1,066	586	252	56,0	44,0
2005	여	2,068	329	188	1,551	557	731	262	36,0	64,0
	남	2,822	825	26	1,971	1,083	597	291	55,0	45,0
2006	여	2,091	319	186	1,586	618	713	256	38,9	61,1
	남	2,815	806	21	1,988	1,106	586	296	55,6	44,4
2007	여	2,107	315	171	1,621	681	691	248	42,1	57,9
	남	2,834	787	18	2,028	1,171	563	294	57,7	42,3
2008	여	2,095	314	158	1,624	687	692	246	42,3	57,7
	남	2,827	763	21	2,042	1,225	523	294	60,0	4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 100

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

(No. of establishment, women(men) representative enterprise / No. of total establishment) * 100

〈표 1-6〉 서울시 성별 사업체 대표자 분포

(단위: 개소, %)

	계		여성		남성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2000	719 536	100.0	207 260	28.8	512 276	71.2
2001	723 701	100.0	214 586	29.7	509 115	70.3
2002	735 258	100.0	223 969	30.5	511 289	69.5
2003	748 953	100.0	230 256	30.7	518 697	69.3
2004	740 779	100.0	228 531	30.9	512 248	69.1
2005	741 229	100.0	229 872	31.0	511 357	69.0
2006	733 759	100.0	230 414	31.4	503 345	68.6
2007	728 614	100.0	231 410	31.8	497 204	68.2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Rate of Union members by sex)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 노동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100

남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남성 노동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100

Rate of union members by sex(%) =

No. of female(male) union members/ total no. of union members) * 100

〈표 1-7〉 서울시,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

(단위: 명, %)

		조합원 수			조합원 비율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위조합 + 지부또는분회 등	2002	202,338	167,951	34,387	83.0	17.0
	2003	199,137	165,332	33,805	83.0	17.0
	2004	201,464	167,284	34,180	83.0	17.0
	2005	201,134	166,198	34,936	82.6	17.4
	2006	173,452	142,976	30,476	82.4	17.6
	2007	141,322	113,974	27,348	80.6	19.4
	2008	126,936	101,843	25,093	80.2	19.8

※ 자료 : 서울시 고용창업담당관 내부자료

(8) 성별 주택보유율(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공동명의 포함, 2005년)

여성의 주택보유율(%) = (여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남성의 주택보유율(%) = (남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
(No. of houses owned by women(men)/ total no. of houses in Seoul) * 100

〈표 1-8〉 서울시가구주 성별 점유형태별 일반가구수

(단위: 명, %)

가구주성별	점유 형태별							
	미상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2000)								
여성	1	155,503	264,811	152,196	10,986	7,211	11,827	602,535
여성비율	14.2	12.3	20.8	34.2	30.2	34.3	24.3	19.5
남성	6	1,107,854	1,006,519	293,040	25,384	13,806	36,792	2,483,401
남성비율	85.8	87.7	79.2	65.8	69.8	65.7	75.7	80.5
합계	21.2	1,263,357	1,271,330	445,236	36,370	21,017	48,619	3,085,9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여성		221,776	282,987	239,710	15,425	6,197	14,476	780,571
여성비율	—	15.1	25.7	39.1	30.6	36.5	26.9	23.6
남성	—	1,254,072	817,188	372,789	35,062	10,797	39,411	2,529,319
남성비율	—	84.9	74.3	60.1	69.4	63.5	73.1	76.4
합계	—	1,475,848	1,100,175	612,499	50,487	16,994	53,887	3,309,890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2.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begin{aligned} \text{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 \\ &(\text{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 \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 100 \\ \text{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 \\ &(\text{No. of children who use public childcare facilities} / \text{total No. of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 100 \end{aligned}$$

〈표 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

	설립주체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비율
	합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2003	155,337	46,232	5,100	4,061	80,500	—	16,730	2,714	29.8
2004	168,569	47,401	4,131	4,961	88,717	—	20,372	2,987	28.1
2005	179,309	48,521	3,443	9,949	90,991	249	22,836	3,320	27.1
2006	183,847	48,629	2,106	12,150	91,056	395	25,748	3,763	26.5
2007	189,768	48,856	1,975	10,358	95,485	427	28,709	3,958	25.7
2008	190,310	48,177	2,001	9,594	95,067	432	30,528	4,511	25.3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표 2-2〉 보육시설 이용비율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0-5세 인구	636,789	611,706	578,096	543,255	530,922
보육시설이용아동	155,337	168,569	179,309	183,847	177,804
보육시설이용비율	23.4	27.6	31.0	33.9	33.5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3) 부부 가사노동시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2004년)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
 Average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of women(men) among dual earners

〈표 2-3〉 서울시 가구의 성별 가정관리 시간사용 현황

(단위: 시:분)

		여성				남성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음식준비 및 정리	1:52	1:51	1:56	1:54	0:41	0:41	0:40	0:41
	의류관리	0:50	0:49	0:53	0:49	0:31	0:28	0:33	0:44
	청소 및 정리	0:51	0:49	0:57	0:54	0:34	0:32	0:41	0:35
	집 관리	0:31	0:29	0:35	0:35	0:55	0:56	0:58	0:47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0:44	0:41	0:48	0:51	0:43	0:42	0:42	0:50
	가정경영	0:26	0:27	0:25	0:22	0:31	0:34	0:25	0:20
	기타 가사일	0:25	0:24	0:18	0:40	0:47	0:58	0:30	0:10
	가족 보살피기	1:49	1:52	1:46	1:40	1:08	1:05	1:08	1:27
	총 가사 시간	4:55	4:55	5:04	4:49	2:06	2:01	2:10	2:31
2004	음식준비 및 정리	1:41	1:41	1:44	1:38	0:40	0:39	0:38	0:44
	의류관리	0:47	0:46	0:46	0:51	0:29	0:27	0:37	0:31
	청소 및 정리	0:51	0:49	0:53	0:55	0:39	0:40	0:33	0:42
	집 관리	0:32	0:30	0:34	0:37	0:46	0:45	0:38	0:58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0:45	0:42	0:55	0:49	0:37	0:33	0:45	0:50
	가정경영	0:26	0:27	0:19	0:24	0:39	0:45	0:31	0:16
	기타 가사일	0:24	0:18	0:35	0:37	0:22	0:20	0:43	0:10
	가족 보살피기	1:52	1:53	1:47	1:54	1:10	1:00	1:22	1:48
	총 가사 시간	4:47	4:48	4:44	4:49	2:11	1:59	2:20	1:58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0, 2005)

(4) 육아휴직자 비율(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 = (여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

(No. of men(women) who take parental leave/ total No. of people who take parental leave) * 100

〈표 2-4〉 서울시 성별 육아 휴직자 수 및 수급액(사업체규모별)

(단위: 명, 원, 일)

	여성			남성		
	휴직자수	수급액	평균 휴직일수	휴직자수	수급액	평균 휴직일수
2005 계 Total	22,831	17,388,303,240	-	329	219,698,790	-
2006 계 Total	10,789	19,905,885,130	737	140	228,106,320	631
2007 계 Total	8,404	24,336,209,330	2,337	122	315,358,620	1,985
2008 계 Total	13,213	46,720,233,800	232.5	171	514,585,980	179.1
규모별						
5인 미만	1,823	7,187,495,760	284.1	57	163,702,920	293.1
5-9인	1,067	3,971,362,370	274.3	8	136,646,860	205.6
10-29인	1,125	4,066,244,230	254.2	28	45,863,890	157.6
30-49인	412	1,285,539,500	226.1	9	21,967,740	260.2
50-69인	233	714,923,320	206.2	5	9,177,400	172.8
70-99인	315	976,226,820	211.6	1	1,000,000	61.0
100-149인	363	1,104,072,620	205.3	3	5,919,350	130.7
150-299인	750	2,285,755,050	211.5	10	21,549,440	182.4
300-499인	577	1,825,960,760	214.9	7	15,983,850	198.4
500-999인	974	3,262,436,530	219	7	23,129,170	104.0
1000인+	5,574	20,040,216,840	249.9	36	69,645,360	204.8

※ 자료 : 노동부, 여성고용과 내부자료(2009)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Rate of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y sex)

보호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 비율(%) = (여성수급자수/전체수급자수)*100
 보호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남성 비율(%) = (남성수급자수/전체수급자수)*100
 Rate of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y sex(%) =
 (No. of female(male)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total of
 beneficiaries)*100

〈표 3-1〉 서울시 보호대상 및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가구, 명, %, 개소)

	합계			
	가구	인원		
		계	여성	남성
2004	87,732	167,490	96,788(57.8)	70,702(42.2)
2005	97,495	183,018	105,092(57.4)	77,926(42.6)
2006	—	196,110	112,401(57.3)	83,709(42.7)
2007	—	191,893	110,735(57.7)	81,158(42.3)
2008	—	193,260	110,869(57.4)	82,391(42.6)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표 3-2〉 서울시 전체 남녀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명, %)

	기초생활수급자여성수 /여성인구수	기초수급 여성비율	남성인구수	기초수급 남성비율
2004	96,788/5,159,095	1.9	70,702/5,128,752	1.4
2005	105,092/5,173,266	2.0	77,926/5,123,738	1.5
2006	112,401/5,210,721	2.2	83,709/5,145,481	1.6
2007	110,735/5,247,127	2.1	88,598/5,174,655	1.7
2008	110,869/5,271,302	2.1	83,291/5,184,732	1.6

※ 자료 : 서울시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3〉 서울시 65세 이상 남녀 노인 인구 비율

(단위: 명, %)

	여성		남성		남성 100 기준 여성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1	358,858	61.2	227,039	38.8	158.1
2002	371,649	60.6	241,134	39.4	154.1
2003	389,542	60.0	260,213	40.0	149.7
2004	410,704	59.2	282,521	40.8	145.4
2005	411,623	57.9	299,221	42.1	137.6
2006	454,760	58.2	326,410	41.8	139.3
2007	490,607	57.6	361,628	42.4	135.7
2008	510,534	57.4	379,518	42.6	134.5

※ 주 : 외국인 제외

※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여성 가입비율(%) = (여성가입자 수/18-60세 서울시여성전체인구) * 100
 국민연금 남성 가입비율(%) = (남성가입자 수/18-60세 서울시남성전체인구) * 100
 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
 (No. of women(men) insureds of national pension/Aged 18-60 total no. of insureds of national pension) *100

〈표 3-4〉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가입자 현황					수급자 현황				
	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2001	3 650 644	1 092 160	29.9	2 558 484	70.1	144 782	55 455	38.3	89 327	61.7
2002	4 904 782	1 609 675	32.8	3 295 107	67.2	155 436	57 415	36.9	98 021	63.1
2003	4 952 511	1 708 480	34.5	3 244 031	65.5	172 727	62 042	35.9	110 681	64.1
2004	5 077 027	1 847 347	36.4	3 229 680	63.6	263 215	96 423	36.6	166 792	63.4
2005	5 121 899	1 900 583	37.1	3 221 316	62.9	313 981	117 666	37.5	196 315	62.5
2006	5 293 899	2 015 058	38.1	3 278 841	61.9	362 014	136 980	37.8	225 034	62.2
2007	5 448 053	2 127 916	39.1	3 320 137	60.9	418 668	158 339	37.8	260 329	62.2
2008	5 446 886	2 174 118	39.8	3 292 768	60.2	475 625	177 971	37.4	297 654	62.6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표 3-5〉 18세-60세 서울시 남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여성			남성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2005	3,510,656	1,900,583	54.1	3,499,518	3,221,316	92.1
2006	3,522,063	2,015,058	57.2	3,502,500	3,278,841	93.6
2007	3,523,016	2,127,916	60.4	3,501,321	3,320,137	94.8
2008	3,517,760	2,174,118	61.8	3,497,052	3,292,768	94.2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재구성

(3)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text{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text{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 100$$

 60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률 =

$$(60\text{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자 수} / 15\text{세 이상 전체 남성 취업자 수}) * 100$$

 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

$$\text{No. of employed women(men)aged 60 over} / \text{total No. of employed women(men) aged 15 or over} * 100$$

〈표 3-6〉 서울시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15-59세	1,857(94.2)	1,917(94.0)	1,940(93.8)	1,935(92.6)	1,951(92.6)	1,953(93.2)
	60이상	115(5.8)	122(6.0)	129(6.2)	145(7.4)	156(7.4)	142(6.8)
남성	15-59세	2,585(93.0)	2,576(92.3)	2,591(91.8)	2,572(91.4)	2,571(90.7)	2,570(90.9)
	60이상	195(7.0)	215(7.7)	232(8.2)	243(8.6)	263(9.3)	257(9.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4) 성별 장애인 등록률(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여성 장애인 등록 비율(%) = (여성 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여성 전체 인구 수) * 100
 남성 장애인 등록 비율(%) = (남성 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남성 전체 인구 수) * 100
 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
 (No. of registered disabled women(men)/total No. of population in Seoul) * 100

〈표 3-7〉 서울시 장애유형 및 성별 등록 장애인 수 추이

(단위: 명, %)

	전체(100.0)	여성	남성
2001	188,660	58,215(30.9)	130,445(69.1)
2002	213,121	68,181(32.0)	144,940(68.0)
2003	239,647	79,624(33.2)	160,023(66.8)
2004	267,365	92,465(34.6)	174,900(65.4)
2005	297,087	107,007(36.0)	190,080(64.0)
2006	324,560	121,856(37.5)	202,704(62.5)
2007	346,275	134,375(38.8)	211,900(61.2)
2008	368,955	147,682(40.0)	221,008(60.0)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내부자료

〈표 3-8〉 서울시 성별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수 및 비율

(단위: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 성	전체인구	5,155,458	5,135,690	5,143,274	5,159,095	5,173,266	5,210,721	5,247,127	5,271,302
	장애인구	58,215	68,187	79,624	92,465	107,007	121,856	134,375	147,682
	장애비율	1.1	1.3	1.6	1.8	2.1	2.3	2.6	2.8
남 성	전체인구	5,175,786	5,144,833	5,133,694	5,128,752	5,123,738	5,145,481	5,174,655	5,184,732
	장애인구	130,445	144,940	160,023	174,900	190,080	202,704	211,900	221,008
	장애비율	2.5	2.8	3.1	3.4	3.7	4.0	4.1	4.3

※ 자료 : 서울특별시 복지국, 「주민등록인구통계」(2001-2008) 재구성.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여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남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

Percentage of female(male) internet liter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eoul Survey

〈표 4-1〉 서울시 성별,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빈도

(단위: %)

	쓸 줄 앎(2007년, 사용 함)		쓸 줄 모름(2007년, 사용안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전체	71,2	80,0	28,8	20,0
2006 전체	68,0	77,8	32,0	22,2
2007 전체	65,0	75,5	34,7	24,1
10대	98,6	98,8	1,4	1,2
20대	97,8	98,3	2,2	1,7
30대	91,2	96,2	8,8	3,8
40대	67,4	82,9	32,6	17,1
50대	39,4	60,5	60,6	39,5
60대+	9,7	24,8	90,3	75,2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2) 성별 도시 안전도(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남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

Percentage of female security city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eoul Survey

〈표 4-2〉 서울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단위: %)

		두렵다			보통			두렵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두렵다	약간 두렵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2005〉								
	여성	61.9	18.5	43.4	24.2	11.7	2.1	13.8
	남성	35.2	7.4	27.8	32.3	25.7	6.7	32.4
〈2006〉								
	여성	58.8	17.1	41.7	24.8	12.2	4.2	16.4
	남성	33.1	6.4	26.6	30.5	26.0	10.4	36.4
〈2007〉								
	여성	58.7	17.2	41.5	22.3	15.0	4.0	19.0
	남성	35.8	7.5	28.3	28.3	25.9	10.2	36.1
〈2008〉								
	여성	53.9	13.9	40.0	25.1	16.5	4.5	21.0
	남성	30.8	5.2	25.7	29.9	28.6	10.7	39.3
여성	10대	57.7	17.9	39.8	25.5	13.4	3.5	16.8
	20대	59.3	19.4	40.0	22.3	14.7	3.6	18.3
	30대	57.3	14.8	42.4	24.0	14.6	4.2	18.8
	40대	53.9	11.8	42.0	26.3	16.1	3.8	19.9
	50대	51.8	12.5	39.3	26.3	17.2	4.7	21.9
	60대+	44.1	8.9	35.2	26.4	22.4	7.1	29.5
남성	10대	31.1	6.3	24.9	29.6	27.4	11.8	39.3
	20대	27.6	5.5	22.0	31.9	28.1	12.4	40.6
	30대	31.7	5.2	26.5	29.4	28.4	10.5	38.9
	40대	32.5	5.0	27.5	29.5	28.3	9.8	38.1
	50대	31.5	4.6	27.0	29.8	29.7	9.0	38.7
	60대+	30.2	4.7	25.4	29.0	29.5	11.3	40.8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표 4-3〉 서울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정도

(단위: %)

		불안하다			보통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별로 불안하지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2005〉								
	여성	62.6	20.4	42.2	21.8	12.9	2.6	15.5
	남성	34.3	7.8	26.5	30.7	27.3	7.6	34.8
〈2006〉								
	여성	57.5	17.5	40.0	23.6	14.1	4.8	18.9
	남성	31.2	6.2	25.0	29.0	27.6	12.2	39.8
〈2007〉								
	여성	61.0	18.6	42.4	21.7	13.8	3.5	17.3
	남성	35.2	7.8	27.4	28.2	26.9	9.7	36.6
〈2008〉								
	여성	52.3	13.7	38.6	24.3	18.5	4.9	23.4
	남성	27.1	11.5	31.3	30.2	22.1	5.0	42.8
여성	10대	57.1	16.8	40.3	23.9	15.7	3.4	19.0
	20대	59.7	19.2	40.4	20.9	15.4	4.0	19.4
	30대	55.8	15.8	40.1	23.5	16.2	4.5	20.7
	40대	51.7	12.0	39.8	25.7	18.4	4.3	22.6
	50대	50.2	12.3	38.0	24.7	19.8	5.2	25.0
	60대+	40.8	7.6	33.2	26.7	24.9	7.7	32.6
남성	10대	29.9	13.2	27.4	29.6	23.8	6.0	40.5
	20대	23.9	13.6	32.3	30.2	18.9	5.0	45.9
	30대	27.3	11.3	31.2	30.3	21.7	5.6	42.5
	40대	28.7	9.8	31.1	30.3	23.8	5.0	41.0
	50대	26.9	9.8	32.3	31.1	22.8	4.1	42.0
	60대+	26.5	12.3	32.0	29.2	22.4	4.1	44.3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남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

Rate of women(men) whose subjective assessment of health conditions is goo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표 4-4〉 서울시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단위: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3〉							
서울시	44.6	8.4	36.2	40.8	14.6	12.6	2.0
여성	38.4	6.1	32.3	43.5	18.1	15.7	2.4
남성	51.1	10.8	40.4	37.9	11.0	9.3	1.7
〈2006〉							
서울시	46.1	8.4	37.7	40.4	13.5	11.3	2.2
여성	41.2	6.4	34.8	42.7	16.1	13.6	2.5
남성	51.3	10.6	40.8	37.9	10.7	8.8	1.9
〈2008〉							
서울시	55.8	10.0	45.8	34.5	9.7	8.5	1.2
여성	51.4	7.8	43.7	36.9	11.7	10.6	1.1
남성	60.5	12.3	48.2	32.0	7.5	6.3	1.2
15~19세	72.4	24.0	48.4	24.1	3.5	3.3	0.2
20~29세	73.9	17.4	56.5	23.3	2.8	2.7	0.1
30~39세	61.3	10.1	51.2	34.7	3.9	3.7	0.3
40~49세	53.2	7.6	45.6	38.9	7.9	7.2	0.8
50~59세	47.5	3.6	43.9	41.8	10.6	9.3	1.3
60세+	28.6	2.9	25.7	40.6	30.8	26.3	4.5
65세+	26.2	2.8	23.5	37.3	36.5	30.7	5.8
초졸이하	27.7	4.0	23.7	36.2	36.0	29.6	6.4
중졸	52.4	11.3	41.0	35.0	12.6	11.5	1.2
고졸	57.1	10.1	47.0	34.7	8.2	7.5	0.7
대졸이상	62.2	10.7	51.4	33.8	4.0	3.6	0.4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4) 성별 건강검진률(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여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남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남성의 수 / 검진대상 남성의 수) * 100

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

(No. of women(men) who takes medical check-ups)/(No. of women(men) subject to a medical check-ups)*100

〈표4-5〉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명, %)

		1차 검진 +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05	여성	1,254,319	533,849	42.6
	남성	1,509,466	743,779	49.3
2006	여성	1,352,414	519,252	38.4
	남성	1,640,160	779,876	47.5
2007	여성	1,568,579	786,697	50.2
	남성	1,798,718	969,330	53.9
2008	여성	1,845,192	1,030,381	55.8
	남성	2,084,364	1,194,136	57.3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5) 성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성폭력 검거건수 = 서울지방경찰청 검거 결과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현 시설 수 * (100,000/ 서울시 전체 인구)

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eoul Provincial Police Agency Arrest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the population of 100,000) =
no. of current facilities * (100,000/ population of Seoul)

〈표 4-6〉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건수,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3,577	3,467	3,704
2007	3,548	3,441	3,789
2008	3,569	3,384	3,709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표 4-7〉 서울시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

(단위: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호시설	2	2	3	4	3	3	2	2
상담소	6	8	9	9	9	10	24	24
계	8	10	12	13	12	13	26	26

※ 주 : 2007년부터 민간단체 상담소 포함.

※ 자료 : 김유나 외(2009)

(6)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Domestic Violence &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인구 10만 명 당)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현 시설 수 * (100,000 / 서울시 전체 인구)
 No. of arrest domestic violence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eoul Provincial Police Agency Arrest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the populations of 100,000) =
 No. of current facilities * (100,000/ total population of Seoul)

〈표 4-8〉 서울시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시설 수 및 상담소 수

(단위: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보호시설	6	7	8	8	11	11	12	13
상담소	5	6	6	6	6	6	48	47
계	11	13	14	14	17	17	60	60

※ 주 : 2007년부터 민간단체 상담소 포함.

※ 자료 : 김유나 외(2009)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광역 및 기초의회 남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남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Rate of Legislators in Board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No. of female(male) legislators in broad unit of local assembly)/(total No. of legislators in broad unit of local assembly) * 100

(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광역 및 기초의회 남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남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Rate of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No. of female(male)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total No. of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 * 100

〈표 5-1〉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명, %)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제1대(1995. 6)	147	14	9.5	806	35	4.3
제2대(1998. 6)	104	11	10.6	520	26	5.0
제3대(2002. 6)	102	8	7.8	513	29	5.7
제4대(2006. 5)	106	13	12.3	419	82	19.6
비례대표	10	6	60.0	53	49	92.5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성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Rat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서울시전체여성공무원 수) * 100
 5급 이상 남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남성공무원 수/서울시전체남성공무원 수) * 100
 Rate of govern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
 (No. of female(male) government employees at Grade 5 or higher)/ (Total no. of government female employees)*100

〈표 5-2〉 서울시 성별, 직급별 공무원 수(2001~2006)

(단위: 명, %)

		공무원 수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5급 이상						6급 이하								
	(합계 100%)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1	전체 (43,157 / 100.0)	2,166	6	19	36	326	1,779	24,576	5,412	9,340	7,483	2,341	11,099			5,316
	여성 (9,322 /100.0)	91 (1.0)	0	0	1	20	70	6,664	544	2,290	2,752	1,078	2,530			37
	남성 (33,835 /100.0)	2,075 (6.1)	6	19	35	306	1,709	17,912	4,868	7,050	4,731	1,263	8,569			5,279
2002	전체 (42,591 / 100.0)	2,200	5	21	38	334	1,802	24,298	5,379	9,444	7,339	2,136	10,539			5,554
	여성 (9,508 /100.0)	95 (1.0)	0	0	1	20	74	6,763	555	2,410	2,748	1,050	2,459			191
	남성 (33,083 /100.0)	2,105 (6.4)	5	21	37	314	1,728	17,535	4,824	7,034	4,591	1,086	8,080			5,363

계속

		공무원 수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5급 이상						6급 이하								
	(합계 100%)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3	전체 (42,547 / 100.0)	2,313	5	18	46	342	1,902	24,553	5,724	10,780	6,230	1,819	10,282	-	5,399	
	여성 (9,887 /100.0)	116 (1.2)	0	0	2	21	93	7,133	706	2,654	2,798	975	2,431	-	207	
	남성 (32,660 /100.0)	2,197 (6.7)	5	18	44	321	1,809	17,420	5,018	8,126	3,432	844	7,851	-	5,192	
2004	전체 (42,688 / 100.0)	2,270	5	14	42	320	1,889	24,891	5,784	11,110	5,957	2,040	10,109	-	5,418	
	여성 (10,340 /100.0)	125 (1.2)	0	0	2	20	103	7,586	751	2,853	2,779	1,203	2,388	-	241	
	남성 (32,348 /100.0)	2,145 (6.6)	5	14	40	300	1,786	17,305	5,033	8,257	3,178	837	7,721	-	5,177	
2005	전체 (46,036 / 100.0)	2,621	5	17	52	356	2,191	26,630	6,705	11,803	5,368	2,754	11,341	-	5,444	
	여성 (11,748 /100.0)	253 (2.2)	1	1	3	23	225	8,846	1,056	3,364	2,766	1,650	2,385	-	264	
	남성 (34,288 /100.0)	2,368 (6.9)	4	16	49	333	1,966	17,784	5,649	8,439	2,602	1,094	8,956	-	5,180	
2006	전체 (40,793 / 100.0)	2,677	5	19	51	357	2,245	27,060	6,904	11,982	5,118	3,056	11,056	-	-	
	여성 (12,186 /100.0)	274 (2.2)	1	1	-	22	250	9,541	1,156	3,728	2,749	1,908	2,371	-	-	
	남성 (28,607 /100.0)	2,403 (8.4)	4	18	51	335	1,995	17,519	5,748	8,254	2,369	1,148	8,685	-	-	

〈표 5-3〉 서울시 성별, 직급별 공무원 수(2007~2008)

(단위:명)

		공무원 수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5급 이상						6급 이하						
	(합계 100%)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7	전체 (46,450 / 100.0)	2,783	5	15	62	364	2,337	27,406	7,027	12,149	5,272	2,958	10,603	5,658
	여성 (13,162 /100.0)	296 (2.2)	1	0	3	24	268	10,199	1,299	4,125	2,890	1,885	2,338	329
	남성 (33,288 /100.0)	2,487 (7.5)	4	15	59	340	2,069	17,207	5,728	8,024	2,382	1,073	8,265	5,329
2008	전체 (46,241 / 100.0)	2,827	4	18	59	368	2,378	27,527	7,139	12,482	4,757	3,149	10,156	5,731
	여성 (13,637 /100.0)	311 (2.3)	1	0	3	33	274	10,671	1,439	4,495	2,723	2,014	2,310	345
	남성 (32,562 /100.0)	2,516 (7.7)	3	18	56	335	2,104	16,856	5,700	7,987	2,034	1,135	7,846	5,344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각년도

(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Rate of Wo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주요부서 여성 비율(%)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주요부서 남성 비율(%) = (주요부서 남성공무원 수/전체 남성공무원 수) * 100

Rate of wo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

(No.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total No. of female public officials)* 100

〈표 5-4〉 서울시 전체 남녀 공무원 수 대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

(단위: 명, %)

		2005	2006	2007	2008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	여성	11,748(100.0)	12,186(100.0)	13,162(100.0)	13,638(100.0)
	남성	34,288(100.0)	28,607(100.0)	33,288(100.0)	32,632(100.0)
주요부서 합계	여성	1,133(9.6)	1,634(13.4)	2,631(20.0)	1,538(11.3)
	남성	3,173(9.3)	4,166(14.6)	5,740(17.2)	3,332(10.2)
기획	여성	29	51	62	134
	남성	101	130	135	253
예산	여성	21	42	54	104
	남성	89	130	113	196
인사	여성	41	72	86	50
	남성	116	243	163	96
감사	여성	40	59	74	91
	남성	244	341	319	385
실국주무과	여성	949	1,410	2,355	1,159
	남성	2,485	3,322	7,365	2,402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각년도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가제)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성친화도시지표(가제)” 구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06년부터 “서울시 성인지표(GSI)”를 개발,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인지표는 5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에는 지수화를 통한 서울시 성평등 정도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표별 측정 및 지수화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지표는 도시여성정책의 흐름과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반영하고, 여성의 다양성과 일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문가 여러분께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전반적 구성 및 세부지표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를 구성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 11.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창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조영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은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연락처	[e-mail] cykim5018@naver.com [전화] 02-810-5167, 5018	[팩스] 02-810-5003

I

여성친화도시지표의 개요 소개 및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여성친화도시지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는 각종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세부 지표로 구성하여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지표(GSI)와 마찬가지로 매년 측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회조사 분야는 여성의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여성 집단별 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하는 가변지표로 활용합니다.

구 분	구 성	측정 방법
①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로 구성 ○ 영역은 기존 서울시 성인지지표 (GSI) 영역을 일부 유지하되,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 영역 (6개) -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공간 구성 및 지속가능성,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 매년 측정 ○ 통계청 통계자료, 서울시 행정통계, 서울서베이 활용
② 사회조사	○ 여성 집단별 경험과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 ○ 집단 (6개) - 미혼여성, 취업여성, 전업주부, 여성노인, 여성한부모, 기타 (장애 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등)	○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시행 ○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

1. ‘여성친화도시지표’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합함

② 부적합함
2. 명칭이 부적합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본 지표의 명칭을 정할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적합 사유	
Keyword	

II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전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 및 세부영역, 세부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
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대졸자 취업률,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일/가족 양립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 부부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돌봄	아동보육지원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맞춤형 보육시설 이용률, 서울형 어린이집 비율
	노인돌봄지원	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율,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이용률
	장애인 돌봄지원	여성장애인도우미(홈헬퍼)지원사업 이용률
문화 및 여가	문화창조활동지원	문화예술관련 전공분야 졸업생 중 남성대비 여성 취업률, 성별 문화예술산업 종사인력비율
	여가향유	성별 여가활동 비율·비용 및 만족도
건강 및 안전	보건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유병률, 주관적 건강상태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성폭력 관련 시설 수,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장애인 성폭력상담건수, 아동성폭력 상담건수
도시공간 구성 및 지속가능성	교통안전 및 이동성 확보	성별 교통 만족도, 저상버스 증가율
	주거 안정성	영구임대주택 성별 세대주 비율,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지속가능성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대기오염도, 1인당 녹지비율, 근린공원 수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자치구 여성 정책평가 평균점수 향상율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성별 5급이상 공무원 비율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 영역 및 세부영역의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십시오.

III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세부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 각 영역별 지표에 대하여 지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지표의 경우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지표 혹은 추가지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부적합 사유 기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적합 사유 기재란에 적어주시고.

1 일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낮음	← →	높음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취업자수/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 × 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사업체대표자 비율	(여성대표자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 100					

(계속)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 월평균임금 / 남성 월평균임금)×100								
	성별 관리직 비율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기술및전문분야여성수 /전직종여성수)×100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상용직근로자수 /여성임금근로자)×100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조합원수 /전체노동조합원수)×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여성육아휴직자수 /전체육아휴직자수)×100 ※ 남성산식 동일								
일/가족 양립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여성육아휴직자수/산전후휴가급여자수)×100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	(당해연도 남성육아휴직자수/전년도 남성육아휴직자수)×100								
	부부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사회통계조사 결과								

2) **돌봄**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추가 지표 포함)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아동보육 지원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100								
	맞춤형 보육시설 이용률	(맞춤형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전체 아동 수)×100								
	서울형 어린이집(비율)	(서울형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노인돌봄 지원	성별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급자율	(여성장기요양보험수급자 수/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100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이용률	(노인돌봄서비스시설 이용자수/전체 노인 수)×100								
장애인 돌봄 지원	여성장애인도우미(홈헬퍼) 지원사업 이용률	(여성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수/등록 여성장애인 수)×100								

6)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인절차에 따른 기준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에 한 해 공인마크를 부여하여 공공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함.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등에 관한 92개 평가 항목에서 기존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가능해야 함.

3 문화 및 여가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문화·창조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전공분야) 졸업생 중 남성대비 여성 취업률	(여성취업자수/전체 졸업자수)×100							
	성별문화예술사업 중소기업비율	(여성 문화예술사업종사자 수/전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수)×100			※ 지역데이터 접근성 고려필요				
여가향유	성별 여가활동 비율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성별 여가활동 만족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7) 문화예술관련 학과 : 취업통계 전공, 소분류명에서 디자인일반, 디자인인, 연주, 영화, 산업디자인, 기타디자인, 패션디자인, 무용, 사진, 만화, 광고, 홍보학, 영상·예술, 영상·예술, 기악, 음악학, 기타음악, 응용미술, 언론·방송·매체학, 공예, 작곡, 진주학, 성악, 조형, 순수미술, 국악, 문화·민속·미술사학, 역사·고고학

4 건강 및 안전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보건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수검한여성의수/검진대상여성 의수)×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유병률	(기간내(2주간) 유병자/조사대상인구)×100							
	주관적 건강상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성폭력 관련 시설 수	전체 시설 수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전체 시설 수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상담건수							
	이동성폭력 상담건수	상담건수							

5 도시공간 구성 및 지속가능성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교통안전 및 이동성 확보	성별 교통 만족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저상버스 증가율	(당해연도 저상버스 수/전년도 저상버스 수)×100								
주거 안정성	영구임대주택 성별 세대주 비율	(여성 세대주수/서울시 전체 세대주수)×100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지속 가능성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 위원 수) × 100								
	대기오염도	서울시 연평균 대기오염도								
	1인당 녹지비율	(서울시 녹지면적/서울시 인구수)×100								
	근린공원 수	근린공원 수								

8) 한강공원자문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건강도시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협의회, 서울특별시지하수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수도권수질평가위원회, 빗물관리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맑은서울시민위원회 등

⑥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세부 영역	세부 지표	산식	지표 적합성		부적합 사유 (지표 부적합시) ※ 대체 혹은 추가 지표 포함	중요도 (지표 적합시)				
			적합	부적합		낮음	←	→	높음	
성주류화 강화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적 수/서울시 전체 실적 수)×100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⁹⁾	(당해연도 정책건수대비/전년도 정책수대비)×100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평균점수 향상율	(당해연도 여성정책평가 평균점수/전년도 여성정책평가평균점수)×100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100 ※ 남성산식 동일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100 ※ 남성산식 동일								
젠더 거버넌스 확대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100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100								

9) 자치구 포함

IV 사회조사의 필요성 및 전체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사회조사를 위한 여성 집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조사방법
취업여성	정규직 취업여성	○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시행 ○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
	비정규직 취업여성	
비혼여성	취업여성	
	비취업여성	
전업주부	-	
여성노인	-	
여성 한부모	-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적 소수자	

- ☐ 사회조사를 통해서는 다양한 여성집단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조사를 “여성친화도시지표” 내에서 실시, 활용하는 것의 적절성, 이와 같은 사회조사의 필요성, 조사대상 분류 방식,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V 사회조사 세부 조사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 ☐ 각 대상 집단별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불필요한 조사항목이나 누락된 조사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1 취업여성

집 단		조 사 항 목
취업여성	정규직	○ 직장 내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 유무 및 실효성 ○ 장기적 직업 전망
	비정규직	○ 정규직과의 차별,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 방법 등
	공통	○ 직장 내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포함) ○ 출퇴근시간 대 교통 만족도 및 안전도 ○ 직업 관련 질환 등 건강 문제 및 건강 관리
[의견]		

2 비혼여성

집 단		조 사 항 목
비혼여성	취업여성	○ 취업준비 기간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희망여부, 정규직 전환 방법 등
	비취업여성	○ 취업 준비 방법, 취업을 위해 소요하는 사교육비 비용
	공통	○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 건강검진 실천 (유방암 검진 여부 포함) ○ 도시 안전도 (교통수단 내 성희롱 등 포함), 호신용품 소지 여부 ○ 노후 준비 방법 ○ 희망하는 거주 형태, 준비 방법 등 ○ 비혼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등
[의견]		

③ 전업주부

집 단	조사항목
전업주부	○ 사교육비 부담정도, 노인부양비 및 경조사비 지출 정도 ○ 남편과의 가사분담 방법 ○ 문화 및 여가생활 방법, 자기계발 투자 정도 ○ 주거지 선택시 고려사항
[의견]	

④ 여성노인

집 단	조사항목
여성노인	○ 용돈 및 생활비 마련 방법 ○ 문화 및 여가 방법 및 비용 ○ 건강검진 등 건강 관리 실천 여부 및 방법 ○ 희망하는 거주형태, 가족 내 갈등 (손자녀 양육부담 문제 포함) ○ 교통수단 이용 시의 불편 사항
[의견]	

⑤ 여성 한부모

집 단	조사항목
여성 한부모	○ 양육비 문제 해결 방법, 자녀와의 갈등 문제 ○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 방법 (자녀양육의 어려움) ○ 건강검진 실천 등 건강 관리 문제 ○ 주거 불안정의 문제 ○ 혼자 사는 여성 및 정상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의견]	

⑥ 기타

집 단	조사항목
기타 (장애, 미혼모, 성적 소수자 등)	○ 재활센터 및 직업훈련원 이용정도 및 만족도 등 ○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활용정도 ○ 취업 차별정도 ○ 자녀양육 지원 및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의견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 ○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의견 및 건강관리 방법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방법 ○ 무상 집수리 서비스 관련 의견 등 ○ 주거비 비용 지원 관련 의견 등 ○ 저상버스 등 장애인 교통수단 활성화 방법
[의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정책개발-023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김창연, 조영미, 이은실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 2999